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총괄 보고서

진 미 석
이 영 대
한 상 근
정 윤 경
최 동 선
윤 형 한
김 나 라
정 향 진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달과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직업과 직장에서의 급격한 변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직종과 직업이 소멸하는가 하면 지식·정보 위주의 신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시채용, 경력자 선호,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비정규직 및 청년 실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인적자원의 역량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진로탐색과 직업준비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계속 개척해 나가야 하고 국가는 지식과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개인의 진로개발과 평생 학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3년도에 이어 진로·직업 정보서인 『미래의 직업세계 2005』를 발간하였다. 직업편과 학과편으로 구분하여 발간하여 청소년들에게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과와 직업간의 연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직업세계 이해는 물론 진로 선택, 직업탐색 및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대학원 재학생들의 교육과 직업에 관한 조사와 대학원 석·박사 취득자들의 취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발간될 2007년도판 책자의 콘텐츠가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원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 연구의 결과 자료가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그 동안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교육인적자원부의 김호곤 과장님, 김송미 연구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들, 관계 전문가,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수행한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2004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사업 목적·1

제2절 사업추진 경과·2

제3절 2004년 사업 주요 내용·3

제2장 석·박사 재학생 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7

제2절 조사의 결과·15

제3절 결론 및 제언·23

제3장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27

제2절 조사의 결과·34

제3절 결론 및 제언·55

제4장 직업편 발간 및 인터넷 탑재 사업

ii 목차

제1절 사업의 개요·61

제2절 선행연구 검토·66

제3절 주요내용·76

제4절 책자 발간과정·82

제5절 활용방안·90

제5장 학과편 콘텐츠 개발사업

제1절 사업의 개요·95

제2절 선행연구 검토·98

제3절 주요 내용·106

제4절 책자 발간과정·112

제5절 활용 방안·132

제6장 결론 및 제언

<부록 1> 조사도구 : 대학원 재학생 조사(석사과정용)·137

<부록 2> 조사도구 : 대학원 재학생 조사(박사과정용)·147

<부록 3> 조사도구 : 석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157

<부록 4> 조사도구 : 박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167

<부록 5> 「미래의 직업세계(2005): 직업편」 수록 직업의 유사직업 및 관

련 학과177

<부록 6>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 수록 학과목록185

<부록 7> 수록 학과의 관련 직업187

<부록 8>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 수록 팁 자료195

<부록 9> 석박사 취득자 조사 설문협조 대학 및 담당자 명단207

참고문헌209

<표목차>

- <표 I-1>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 추진체계3
- <표 I-2> 미래의 직업세계 2003과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체제 및 내용비교5

- <표 II-1> 조사도구의 영역별 세부내용9
- <표 II-2> 전공영역별 모집단표본 규모 및 회수율12
- <표 II-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4
- <표 II-4> 석박사 재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15선17
- <표 II-5> 석박사 재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15개 : 성별에 따른 비교19
- <표 II-6> 학위 취득 이후의 취업 전망20
- <표 II-7> 학위 취득 이후의 취업 전망(전공별)22

- <표 III-1>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석사29
- <표 III-2>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박사29
- <표 III-3> 조사도구의 세부 항목 및 내용30
- <표 III-4> 석사학위 취득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출신대학원별, 전공계열별)37
- <표 III-5> 석사학위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율, 실업율38
- <표 III-6> 석사 취업자의 성별, 계열별 소득 비교40
- <표 III-7>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 취업 예상42
- <표 III-8> 세부전공별 석사학위 효용가치평가43
- <표 III-9> 박사학위 진학 동가46
- <표 III-10> 박사 취득자중 신규입직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전공계열별)49
- <표 III-11> 박사 취득자의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율, 실업율50
- <표 III-12> 세부전공별 박사학위 효용가치평가54

- <표 IV-1> 테마별 직업의 세계 수록 직업들84
- <표 IV-2>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수록 직업87
- <표 IV-3> 미래의 직업세계 2003과 비교하여 2005에 추가제외된 직업들88

- <표 IV-4>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 작성 지침89

- <표 V-1> 사업 추진 방법97
- <표 V-2>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98
- <표 V-3>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상황99
- <표 V-4> 고교생들의 희망학과(계열)에 대한 정보 인식 정도101
- <표 V-5> 학교 졸업생의 전공-직업 일치도103
- <표 V-6>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편」에 대한 만족도105
- <표 V-7> 주요 학과정보 자료 비교113
- <표 V-8> KEDI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 분류114
- <표 V-9> KEDI 전문대학 학과(전공) 분류115
- <표 V-10>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분류117
- <표 V-11> 커리어넷 학과정보DB 현황118
- <표 V-12> 학과편 콘텐츠의 내용 구성 요소120
- <표 V-13>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 신규 추가/삭제 학과목록122
- <표 V-14>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 콘텐츠 증감 상황124
- <표 V-15> 취업률 상위 20개 학과125
- <표 V-16> 연봉수준 상위 20개 학과126
- <표 V-17> 학과전망 상위 20개 학과(4년제 대학)127
- <표 V-18> 학과전망 상위 20개 학과(전문대학)128
- <표 V-19> 학과편 콘텐츠 검토 외부 전문가 명단131

[그림목차]

- [그림 II-1] 석·박사 재학생들의 희망 직업 : OES 중분류16
- [그림 II-2] 석·박사 재학생의 학위 취득 이후의 전체 취업처에 대한 취업 전망20

- [그림 III-1] 설문조사 진행 흐름도33
- [그림 III-2] 석사과정 진학동기35
- [그림 III-3] 석사 과정 중의 취업 실패36
- [그림 III-4] 석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39
- [그림 III-5] 석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42
- [그림 III-6] 박사취득자의 졸업 후 진로 상황 : 전체48
- [그림 III-7] 박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49
- [그림 III-8] 박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52
- [그림 III-9] 계열별 박사학위의 효용가치 평가53

- [그림 IV-1] 미국 직업전망서(OOH)의 직업별 구성체계67
- [그림 IV-2] 캐나다 「Job Futures」의 직업별 구성체계68
- [그림 IV-3] 일본 「직업핸드북」의 직업별 구성체계69
- [그림 IV-4] 「한국직업전망서 2003」의 직업별 구성체계70
- [그림 IV-5]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의 직업별 구성체계73
- [그림 IV-6] 직업의 세계 예시1 - 강아지 관련 직업78
- [그림 IV-7] 직업의 세계 예시2 - 강아지 관련 직업의 교육·훈련 정보79
- [그림 IV-8]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의 내용 구성80
- [그림 IV-9] 직업의 세계 예시 3 - 만화가82
- [그림 IV-10] 「미래의 직업세계 2005」의 활용방법93

- [그림 V-1] 고등학생의 학과 정보에 대한 인지도100
- [그림 V-2] 대학 졸업자의 진로 상황103
- [그림 V-3] 학과별 소개와 전망의 구성107
- [그림 V-4] 학과편 도표(예시)109

【요약】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 국민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훈련투자, 경력, 직업선택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분산적·산발적인 직업 및 학과 관련 정보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전달하는 체제 구축
-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망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습·진로·고용이 통합된 종합직업정보지원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2004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
 - 석박사 학위과정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 석박사 학위취득자 취업실태조사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 직업편 책자 발간사업
 - 동책자의 인터넷 발간사업

2.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조사사업

- 이 조사는 ①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의 교육적·직업적 경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 학위 취득 이후의 계획 등을 조사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석·박사 과정 재학생에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② 격년으로 발행되는 「미래의 직업세계」의 학과별 학생들의 취업전망과

학과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2,811명의 일반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석·박사 재학생들은 수업이나 실험·실습, 각종 연구 활동, 대인 관계 등의 대학원 생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음. 이러한 만족도에 있어서 전공 분야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성별이나 지역, 석·박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석·박사 재학생들이 학위 취득 이후에 갖길 희망하는 직업분야는 재학 중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구관련 직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음. 이러한 직업기대에 있어서 석사과정 재학생과 박사과정 재학생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여러 유형의 교육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대학교수’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 이러한 직업기대와는 달리, 석·박사 재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는 전체 취업처에 대한 취업전망은 그저 그렇다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전공 분야로의 취업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박사과정 재학생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음.
- 한편 석·박사 재학생들은 소속 학과의 학부 졸업생의 5년 후의 전공 분야에서의 취업전망과 관련하여 그저 그렇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음. 즉 학부 졸업생의 학과 전공 분야로의 취업이 매우 낙관적이지도 또한 매우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임.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추후 조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학과를 보다 확대하고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확정하여 이들이 우편이나 웹, 또는 심층 면접 등을 통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학생 조사가 청년층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다소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청년층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의 관점보다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급인력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직업분류 및 학과분류체계에서 세분류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확립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 사업

- 본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음.
- 본 조사를 위해서 석사 750명, 박사 750명을 표집 규모로 하여 5개 권역에서 20개 대학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에서 5개 계열 22개 주요학과의 학생의 2단계 유층표집을 실시하였고 자료조사는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 까지 실시하였음.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석사 630명, 박사 430명이었음.
- 본 사업 조사결과에서 우선 박사학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찾을 수 있음. 전통적으로 박사학위는 중국교육으로서, 그리고 석사학위는 박사학위의 중간과정으로서, 대학교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 박사, 특히

국내 박사학위자의 경우 박사학위가 대학교수로의 준비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줌.

-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진학동기에서,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이 후 교수로의 취업전망에서도 뚜렷이 나타남. 이와 같은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기대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박사학위자의 공급과 대학교원의 수요간의 심각한 격차가 현실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진로로 박사학위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석사학위가 거쳐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온전한 관심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석사학위과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진학 동기나 취업 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학위과정에 대한 진학 동기나 취업실태에서 나타난 전공별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음.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교수준비라는 진학동기가 뚜렷하고,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실태의 여러 측면, 즉, 취업률, 임금, 향후 취업전망 등에서 적어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학위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낮음. 이에 비해, 최근에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논의와는 달리, 이공계열의 경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진학 동기도 실용적이지만, 취업률이나, 소득, 임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학문,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노동시장 성취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활용 촉진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낮은 노동시장 성취도는 이 분야로의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제약하고 이에 따라 학문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어 기초학문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 석·박사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전반적인 효용가치에 있어서 계열을 막론하고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학위과정은 경제적인 가치이외에도 자기발전이나 자신의 전문성 실현 등 비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 이는 교육과정의 선택, 즉 인력공급을 예측할 때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문화적 기반과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석사학위 취업자와 박사학위 취업자의 3분의 1정도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반응에서 학력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개선 정책이 요망됨.
- 석·박사 취득자, 특히 미취업 학위취득자들의 취업정보원으로 인터넷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다양한 채용지원 사이트가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석·박사 취업실태에서 나타난 바대로 상당수의 학위취득자가 학위취득이후 2년 가까운 시점에서도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있으나, 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이후 대학으로부터의 취업지원서비스나 상담서비스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들은 석·박사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의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강화하여야 함.
-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대학원 세계에 대한 안내

서를 개발하고 향후 전공의 확대와 표집수를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과 대학원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원 진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서 발간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석·박사 졸업생 및 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고급 인적자원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응답률 역시 떨어지는 어려운 대상임. 이에 따라 학교측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자료수집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각 대학의 종합인력개발센터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센터 인력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 예산상의 한계로 표집수가 제한되어 있어 세부학과별로 다양한 진로 및 취업유형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음. 향후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표집수를 확대하고 아울러 국외박사에 대한 자료조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직업편 발간 및 인터넷 탑재 사업

- 『미래의 직업세계2005: 직업편』은 ‘미래의 직업세계-개관’, ‘테마별 직업의 세계’, ‘직업별 소개와 전망’ 으로 구성됨
- 미래의 직업세계-개관
 -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주요 직업은 크게 7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 유망 직업을 정보화, 세계

화, 사업 서비스, 첨단과학, 문화산업, 노인 및 의료, 웰빙 열풍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소개함.

○ 테마별 직업의 세계

- 테마별 직업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옷, 아파트, 결혼과 같은 테마에서도 수많은 직업세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함.
- 구체적으로 한 학생에게 일요일 하룻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생활사를 중심으로 13가지의 주요 테마를 정하고, 각 테마별로 관련 직업을 선정하여 소개함.

○ 대표 직업의 선정

- 각 분야별로 총 150개 직업을 선정함.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OES)를 기준으로 조사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결과 종사자수 2,000명이상인 직업을 우선 고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분류에 따라 분류별 대표 직업은 우선적으로 채택

○ 직업분류 방식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의 대표 직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분류에 따라 정보가 제공됨. 이 경우 직업적성검사와 직업편, 학과편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대표 직업의 정보 수집 및 정리

-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및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지식, 능력, 기술)과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 등을 최신화하고 도식화함.

- 관련 학과 정보, 관련 정보처, 관련 적성·흥미 등 세부 직업별 직업 설명 내용을 기술함.
 - 직업의 개요, 교육·훈련 정보 등 직업에 관한 설명 수준을 표준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춤.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은 학생들에게 장래 진로·직업 설계를 위하여 적성에 따른 직업, 노동시장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돕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상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직업설계 및 개발(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은 적성에 따른 26개 직업분류에 따라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며, 직업과 관련 학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각 직업의 관련 학과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중·고교학생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직업경로(Career Path)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결정하도록 지원하며, 기존의 직업인이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학습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 2005의 보급시기가 수능이 끝난 12월에 발표되어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데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 11월 중순경으로 보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임.

5. 학과편 콘텐츠 개발 사업

- 이 사업의 목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구직자 등 교육수요자들이 교육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도록 2003년에 실시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조사결과를 기초로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정보 책자(「학과편」)의 콘텐츠를 개정하는데 있음.
- 2003년 조사결과를 반영한 정보개발 및 개정 : 학과별 졸업자 현황, 학과별 졸업자 취업현황, 학과별 졸업자 취업전망, 학과별 재학생 희망직업 등을 반영하여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을 개발하고 보급함.
- 미래의 직업세계 2007을 발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설문조사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부 학과의 경우 조사 대상자 수의 절대 부족으로 학과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임금 관련 데이터도 일부 수정한 바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 2005의 보급시기가 수능이 끝난 12월에 발표되어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데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 11월 중순경으로 보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임.
- 미래의 직업세계 2005는 고등학교에만 보급하였는데 앞으로는 초, 중학교 등 미래의 직업세계를 필요로 하는 학교나 기관에 더 많이 보급되도록 관련교육청이나 기관과의 협조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6. 제언

-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은 2002년부터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 3년차의 결과임. 이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 직업편, 학과편 양편으로 구성된 책자 발간 사업과 졸업생 취업조사와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즉 조사 사업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4년도에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직업편과 학과편을 발간하였으므로 이 책자가 학교 현장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의 안내와 재정지원이 요구됨. 동시에 책자 활용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개발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요구됨.
- 2006년도에 「미래의 직업세계 2007년」 발간작업에서는 직업편과 학과편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 새로이 나타난 신생직업들, 그리고 향후에 생겨날 직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전망을 수록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직업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학과 안내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깊이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음. 이를 위하여 2005년도에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조사에서는 학과안내와 직업안내를 위한 다양한 설문문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제 1 장
서 론¹⁾

제1절 사업 목적

- 국민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훈련투자, 경력, 직업선택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분산적·산발적인 직업 및 학과 관련 정보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전달하는 체제 구축.
-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망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습·진로·고용이 통합된 종합직업정보지원체제 구축.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래의 직업세계」는 학생과 구직자에게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향후 전망 및 관련 학과 정보를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직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1)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의 총괄조정과 책자 발간을 위한 디자인 작업은 총괄팀(진미석·정향진·김나라)에서 주관하였음.

제2절 사업추진 경과

-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2001년), 정책용역연구비로 수행.
 - 2001년
 - 학과분석 및 학과분류 체계 연구
 - 대학,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실태 조사
 - 2002년
 -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을 위한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취업 조사
 -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을 위한 졸업생 및 재학생 조사 사업 실시.
 -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
- 주요사업비로 전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고보조(2003년).
 - 2003년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발간을 위한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취업 조사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발간을 위한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 희망 직업조사
 - 책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만족도 조사
 - 교사용 안내서 개발, CD-ROM 및 인터넷 탑재 등 활용프로그램 개발

제3절 2004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추진체계

<표 I-1>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연 구 진
총 관	- 과제계획서 수립 - 교육부와의 협력 및 의견조율 - 편찬위원회운영 - 하부사업팀 지원 - 편집 및 디자인지원 - 과제별보고서인쇄지원 - 정산보고	진미석, 김나라(간사), 정향진
직 업 편	직업편 콘텐츠구성	한상근, 정윤경, 최동선 중앙고용정보원 연구진(김한준외)
학 과 편	학과편 콘텐츠구성	이영대, 윤형한
석·박사 재학생조사편	설문지 구성 분석	최동선, 김나라
석·박사 졸업생조사편	설문지 구성, 업체 모니터링, 분석	진미석, 김나라
인터넷 탑재	미래의 직업세계관 탑재	한상근, 정윤경, 최동선
출판 및 배포	출판 및 배포 계획 수립 디자인 및 출판	이영대, 윤형한

□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조사

○ 재학생 조사

▪ 대상

- 석사학위 과정 재학자 25개 학과, 30명씩 750여명
- 박사학위 과정 재학자 25개 학과, 30명씩 750여명

▪ 조사내용

- 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전망, 졸업 후 진로계획 등

4 미래의 직업세계(2004) : 총괄 보고서

○ 졸업생 조사

▪ 대상

- 2002학년도(2002년 8월말~2003년 2월 졸업생) 석사학위 취득자 25개 학과, 30명씩 750명
- 2002학년도(2002년 8월말~2003년 2월 졸업생) 박사학위 취득자 25개 학과, 30명씩 750명

▪ 조사내용

- 노동시장 활동실태(취업현황, 임금), 학과에 대한 전망과 만족도 등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책자 발간 및 배포

○ 직업정보 개발 및 개정

▪ 2002, 2003 조사 내용의 개정

- 직업정보 및 개별학과 정보 개정(개별 직업 서술 형태 및 내용, 개별 직업의 취업현황 및 취업전망 등)
※ 중앙고용정보원의 자료 협조

○ 신규 내용의 개발 및 탑재

- 2004년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조사 결과 탑재.
- 이공계 학과 중심의 심층자료 수집 및 구성
- 미래의 직업들에 대한 안내와 소개 자료 강화
- 선정된 직업에 관한 심층적 정보와 자료 소개

- 책자 제작 및 배포
 - 발간 부수 : 초판 3,000세트
 - 16개 시도별 관할 고등학교에 1질씩 배포(2300세트)
 - 가독성과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편집과 디자인의 질적 수준 제고
 - 책 표지 및 본문의 재구성, 도표의 그래픽 디자인
- 웹기반 서비스 구축
- 2003년 개발된 중고등학생용 콘텐츠 탑재
 - 교사용 안내서의 탑재

<표 I-2> 미래의 직업세계 2003과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체제 및 내용비교

구분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5(변경사항)
직업편	1. 총론 : 향후 직업세계전망 2. 개별직업 : 150여개에 대한 직업전망등 직업정보 (2002년도 자료)	1. 개별직업 : 2004년 조사결과와 업데이트(임금, 취업자수, 취업전망등) 2. 2005년 기획편 ·테마별 직업소개
학과편	1. 총론 : 향후 미래세계의 변화와 학과 2. 개별학과 : 70여학과 소개 2002 서베이 결과 탑재 (학과별 취업현황, 취업전망)	1. 개별학과 소개 : 2003년 서베이 결과 탑재(학과별 취업현황, 취업전망, 재학생 희망 직업) 2. 2005 기획편 ·전공계열별 소개
편집 디자인	1. 개별직업 및 학과별 2페이지씩의 소개	1. 개별직업 및 학과별 2페이지씩의 소개의 틀은 유지하나 그래프와 텍스트 배치의 변화를 통한 가독성의 증진 2. 2005년의 기획편의 독자적 편집체제 구성

제 2 장 석·박사 재학생 조사²⁾

제1절 조사의 개요

□ 조사 목적

- 이 조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음.
 - 첫째, 우리 나라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적·직업적 경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 학위 취득 이후의 계획 등을 조사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석·박사 과정 재학생에게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음.
 - 둘째, 격년으로 발행되는 「미래의 직업세계(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간)」의 학과별 학생들의 취업전망과 학과만족도 등에

2) 「최동산김나라(2004).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세한 분석결과를 수록함.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 이 조사는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적·직업적 이동경로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적·직업적 경험,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사하도록 구성하였음.
-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현재의 경험-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① 교육적·직업적 경험, ② 대학원 진학동기 및 진로결정과정, ③ 전반적인 대학원 생활 및 만족도, ④ 장학금 및 경제활동, ⑤ 대학원에서 연구활동, ⑥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등의 영역을 구성하였음.
- 조사도구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설문지(민무숙·이정화·송현주, 2002; 진미석·윤형한·박재민, 2003)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석·박사 과정 재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내용의 적절성 및 응답에의 용이성, 용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음. 또한 수 차례의 연구진 협의회를 통하여 문항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석·박사 학위취득자 조사」와의 연계성을 위한 문항도 추가하였음. 최종적으로 개발된 조사도구는 석사과정 재학생용이 50개 문항으로, 박사과정 재학생용이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표 II-1> 조사도구의 영역별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교육적 경험	·동일한 대학 및 학과를 졸업하였는지의 여부 ·학부과정(또는 석사과정)을 졸업한 학과명 ·이전 단계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이유	△ ● ●	△ ● ●
직업적 경험	·대학원 입학 이전에 직장생활 경험 여부 ·대학원 입학 이전의 직업명 ·대학원 입학 이전의 취업상태 ·대학원 입학 이전의 직업을 가진 시기 ·대학원 입학 이전의 직업을 그만둔 시기 및 이유 ·대학원 입학 이전의 직업과 현재의 대학원 전공과의 관련성	● ● ● △ ● ●	● ● ● △ ● ●
대학원 진학동기 및 진로결정과정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 ·현재의 대학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준 주변인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로 ·이전 단계의 졸업년도 및 현 대학원 입학년도	● ● ● ● ●	● ● ● ● ●
전반적인 대학원 생활 및 만족도	·대학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학원에 재학하는 과정에 겪는 어려움 ·대학원 재학 중 전공 변경 의향 및 그 이유	● ● ●	● ● ●
장학금 및 경제활동	·수여받은 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 ·수업료 및 납입금의 주요 출처 ·대학원 재학 중 경제활동의 병행 여부	● ● -	● ● ●
대학원에서의 연구활동	·연구 프로젝트에의 참여여부 및 참여역할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경제적 보상 정도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만족도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효과 ·독자적으로 또는 연구 참여자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유무 및 연구비 수혜기관	● ● ● ● ●	● ● ● ● ●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	·학위 취득 이후의 희망 직업 ·희망직업과 현재의 전공과의 관련성 ·희망 연봉의 금액 및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 ·전체 취업처 및 전공분야로의 취업 전망 ·희망직업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계획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일반적 사항	·성별 ·소속 학과명 및 재학 학기 ·연령 및 혼인 상태	● ● ●	● ● ●

주: ●는 대상별 구분 없이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는 조사하려는 내용은 동일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대상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조사 방법

- 이 연구의 조사 대상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일반대학원에 설치한 석·박사 과정 재학생임. 일반대학원의 재학생으로 모집단을 제한한 것은 이 조사가 대학원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2004년 4월 현재, 143개 대학에서 일반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에는 4,097개 학과에 83,740명의 학생이, 박사과정에는 2,941개 학과에 36,01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
- 표본추출은 ① 조사대상 학교의 선정, ② 전공 영역의 선정, ③ 조사대상 학과 및 표집규모의 선정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이 가운데 조사대상 학교와 전공 영역의 선정은 이 조사와 함께 진행된 “석·박사 학위취득자 조사”를 따라 이루어졌음.
 - ① 조사대상 학교의 선정 : 이 조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5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국공립·사립, 그리고 박사학위 배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개 대학(수도권 9개교, 충청권 3개교, 영남권 5개교, 호남권 2개교, 강원권 1개교)을 임의로 추출하였음³⁾.
 - ② 전공 영역의 선정 : 전공 영역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배출 규모를 고려하여 많은 수를 배출하고 있는 계열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음. 그리하여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기타계열로 구분하고 각 계열별로 대표적이라고 간주되는 24개 전공을 선정하였음. 이 조사에서는 “석·박사 학위취득자 조사”의 전공 영역 선정 방법을 따르되,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학과(전공)

3)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음.

- 수도권 :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 충청권 :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 강원권 : 강원대학교
- 영남권 :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 호남권 :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분류체계를 따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로 구분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 조사”에서 선정한 전공 이외에 문화민속미술사학 전공과 환경학 전공을 추가하였음.

- ③ 조사대상 학과 및 표집규모의 선정 : 우선 표집규모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요 전공영역별 모집단 비율을 추출한 뒤, 이 비율에 따라 전체 표본규모가 2,500이 되도록 전공영역별 표본규모를 설정하였음. 2,500명으로 전체 표본규모를 설정한 것은 각 전공영역별 표본규모가 통계분석 결과가 유의한 3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산출된 것임. 이렇게 각 전공영역별 표집규모를 결정한 뒤, 각 전공영역별로 석·박사 과정을 설치한 대학 목록을 토대로 조사대상 대학과 학과, 그리고 개별 학과별 조사규모를 결정하였음. 개별 학과별 조사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전공영역에 대해서는 각 대학 및 학과별로 동일한 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음.
- 이러한 절차에 따라 26개의 전공 영역에 대하여 20개 대학의 398개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2,500명이 표집되었음. 그러나 조사과정에 다수의 무응답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사회학 등 일부 전공 영역에서의 작은 표본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조사에서는 2,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표 II-2> 참조).

<표 II-2> 전공영역별 모집단·표본 규모 및 회수율

(단위: 명)

계열	전공영역	표본 규모			회 수			회수율 (%)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합 계		1,941	870	2,811	1,463	625	2,088	74.3
인문	국어·국문	64	48	112	55	34	89	79.5
	문화·민속·미술·사학	36	14	50	24	6	30	60.0
	역사·고고학	34	13	47	35	12	47	100.0
	영어영문학	68	48	116	43	33	76	65.5
	철학·윤리학	32	13	45	23	8	31	68.9
	외국어문학	60	22	82	40	12	52	63.4
	심리학	40	16	56	30	13	43	76.8
사회	경영학	169	85	254	88	32	120	47.2
	경제학	52	24	76	23	10	33	43.4
	법학	140	56	196	106	42	148	75.5
	사회학	28	12	40	26	11	37	92.5
	행정학	34	34	68	14	22	36	52.9
교육	교육학	56	48	104	42	41	83	79.8
공학	건축설비공학	75	28	103	64	30	94	91.3
	기계공학	135	45	180	83	30	113	62.8
	컴퓨터·정보통신공학	204	70	274	181	58	239	87.2
	전기·전자공학	182	60	242	135	43	178	73.6
	토목공학	70	39	109	73	34	107	98.2
	화학공학	52	24	76	40	18	58	76.3
자연	물리학	68	15	83	55	13	68	81.9
	생명과학	72	44	116	60	37	97	83.6
	생물학	70	27	97	52	16	68	70.1
	수학	42	12	54	37	10	47	87.0
	화학	75	33	108	62	26	88	81.5
	환경학	56	22	78	52	20	72	92.3
의약	약학	27	18	45	20	14	34	75.6

□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문지의 배포 및 수집 등의 자료수집은 우편을 통한 방식을 이용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

- ① 교육인적자원부와 조사대상 학과의 협조를 구하여 해당 학과의 조교에게 조사도구를 발송하였음. 이를 위해 조사대상 학과의 조교에게 전화를 통하여 협조 요청을 구하는 절차를 따랐음.
 - ② 해당 학과 조교에게 설문지, 조사의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서, 반송용 봉투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학과 조교의 협조 하에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였음.
 - ③ 조사가 완료된 설문지는 학과 조교가 수거하여 동봉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연구진에게 발송하도록 하였음. 이 과정에 학과 조교 및 응답자에게는 약간의 사례를 제공하였음.
- 이에 따라 설문조사는 2004년 10월 5일에서 10월 27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발송한 2,811부 가운데 2,160부가 회수(회수율 76.8%)되었으며, 이 가운데 분석의 주된 변인인 학과와 성별에 무응답인 72부를 제외한 2,08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음(분석율 74.3% 참조).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응답자의 소속 학과, 대학원 입학 이전에 가졌던 직업, 학위 취득 이후의 희망직업 등은 일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재분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를 따라 재분류를 실시하였음.
 - 응답자의 소속 학과 및 현재의 대학원 입학 이전의 졸업 학과 등은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학과(전공) 분류 체계에 따라 소분류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대학원 입학 이전에 가졌던 직업, 학위 취득 이후의 희망직업 등은 중앙고용정보원(2003)의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라 세분류 수준으로 분류하였음.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구분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분류 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 119개, 세분류 384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음. 비록 한국고용직업분류가 대분류 체계를 갖고 있으나 중분류가 중심인 체제(중앙고용정보원, 2003: v)이므로, 이 조사에서도 중분류와 세분류를 활용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최종 분석에 활용된 조사대상자는 남성(60.8%)이 여성(39.2%)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47.7%)에 위치한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가장 많았음.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대학원(39.2%)에 다니는 학생보다 사립 대학원(60.8%)에 다니는 학생이 더 많았음.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37.8%)과 자연계열(21.1%)에 재학하는 학생이 다수를 구성하는 가운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학생들이 18% 정도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았음.

<표 II-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석사	박사	계
성별	남성	864(59.1)	406(65.0)	1,270(60.8)
	여성	599(40.9)	219(35.0)	818(39.2)
	소계	1,463(100.0)	625(100.0)	2,088(100.0)
지역	서울/경기/인천	685(46.8)	310(49.6)	995(47.7)
	강원	59(4.0)	27(4.3)	86(4.1)
	충청	167(11.4)	74(11.8)	241(11.5)
	호남	103(7.0)	47(7.5)	150(7.2)
	영남	449(30.7)	167(26.7)	616(29.5)
	소계	1,463(100.0)	625(100.0)	2,088(100.0)
설립유형	국공립	559(38.2)	259(41.4)	818(39.2)
	사립	904(61.7)	366(58.6)	1,270(60.8)
	소계	1,463(100.0)	625(100.0)	2,088(100.0)
전공	인문계열	250(17.1)	118(18.9)	368(17.7)
	사회계열	257(17.6)	117(18.7)	374(17.9)
	교육계열	42(2.9)	41(6.6)	83(4.0)
	공학계열	576(39.3)	213(34.1)	789(37.8)
	자연계열	318(21.7)	122(19.5)	440(21.1)
	의약계열	20(1.4)	14(2.2)	34(1.6)
	소계	1,463(100.0)	625(100.0)	2,088(100.0)

제2절 조사의 결과⁴⁾

-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표집에서 나타난 주요 사항(취업전망, 희망직업 및 산업분야 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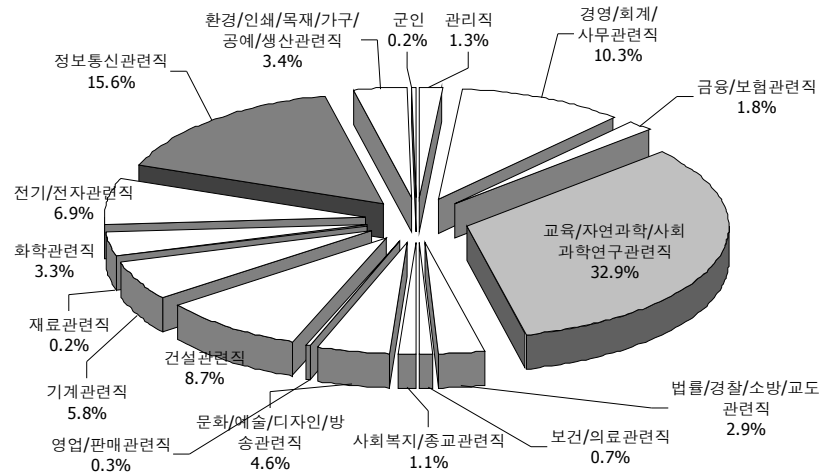
□ 희망직업

- 석·박사 재학생들이 학위 취득 이후에 갖길 희망하는 직업분야는 재학 중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구관련 직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음. 그러나 선호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석사과정 재학생과 박사과정 재학생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음.
- 석사과정 재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관련 연구직(32.9%)', '정보통신 관련직(15.6%)', '경영·회계·사무관련직(10.3%)' 등의 순서로 구성되는 반면, 박사과정 재학생이 학위 취득 이후 희망하는 직업에서는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관련 연구직(73.9%)'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II-1] 참조). 즉 석사과정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한 실무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반면,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대학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교육 및 연구 관련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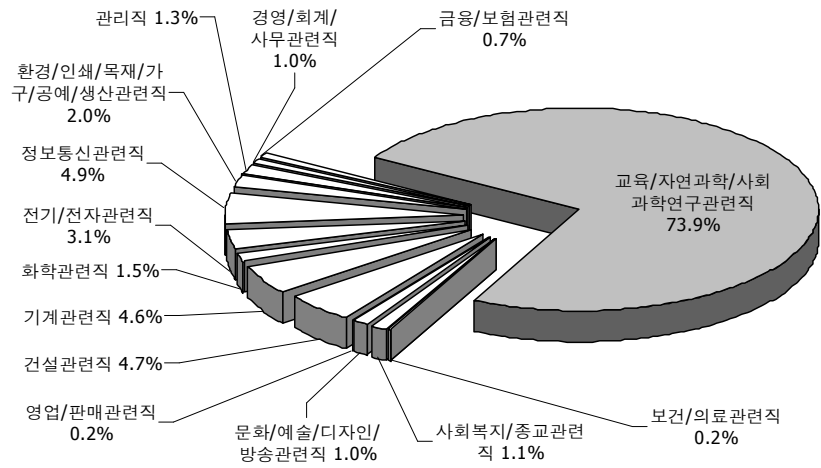
4)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발간 예정인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조사(2004)□□ 참고.

[그림 II-1] 석박사 재학생들의 희망 직업 : OES 중분류

<석사과정 (N=1,249)>



<박사과정 (N=612)>



-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세분류 수준에서 살펴보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차이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석사과정 재학생들의 경우 ‘생명과학연구원’이나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연과학연구원’, ‘기계공학기술자’ 등의 교육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 즉 깊은 학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직종과 함께 학문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엔지니어 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대학교수’를 선호할 정도로 이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 외에도 ‘생명과학연구원’, ‘인문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등의 연구 관련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II-4> 참조). 또한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범위가 박사과정보다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표 II-4> 석·박사 재학생의 희망직업 상위 15선

석사과정 (N=1,249)	박사과정 (N=612)
1. 생명과학연구원 (8.7%)	1.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50.8%)
2.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6.1%)	2. 생명과학연구원 (6.9%)
3.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6.0%)	3. 인문과학연구원 (5.6%)
4. 자연과학연구원 (5.4%)	4. 사회과학연구원 (4.9%)
5. 기계공학기술자 (5.3%)	5. 기계공학기술자 (4.6%)
6. 토목공학기술자 (4.5%)	6. 자연과학연구원 (4.2%)
7. 전자공학기술자 (4.4%)	7. 토목공학기술자 (3.1%)
8. 건축공학기술자 (4.2%)	8. 전자공학기술자 (2.3%)
9. 인문과학연구원 (3.4%)	9. 통신공학기술자 (2.0%)
10. 환경공학기술자 (3.4%)	10. 환경공학기술자 (2.0%)
11. 화학공학기술자 (3.3%)	11. 화학공학기술자 (1.5%)
12. 마케팅사무원 (3.2%)	12. 건축공학기술자 (1.1%)
13. 중등학교 교사 (2.8%)	13. 컴퓨터공학기술자 (1.1%)
14. 행정사무원 (2.5%)	14. 상담전문가 (1.0%)
15. 사회과학연구원 (2.5%)	15. 대학강사(시간강사) (0.8%)

- 그런데 이러한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의 희망직업은 전공계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음. 대체적으로 보면, 앞의 결과 해석에서 지적한 두 가지의 특징인 석사과정 재학생들의 폭넓은 희망직업과 석·박사과정 두루 걸쳐 대학교수에 대한 높은 희망이라는 분포가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됨과 동시에, 특히 공학계열 재학생들이 다른 계열과는 달리 공학 관련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음.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이 조사에서 활용한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공학계열의 직업들이 중분류 및 세분류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계열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전공영역별로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이 조사 결과의 시사점이라 할 것임.
- 또한 석·박사 재학생들의 희망직업은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체로 석·박사 재학생들의 직업기대에서도 성역할 사회화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석·박사과정을 막론하고 남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등을 비롯한 엔지니어 계통의 직업들, 즉 남성 종사자가 많은 직업(male-dominated occupations)이 다수 분포한 반면, 여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직업들(female-dominated occupations)이 다소 분포하고 있었음 (<표 II-5> 참조). 물론 이러한 조사결과가 석·박사 여학생들이 성역할 사회화에 따라 진로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음. 오히려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결정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에 진학한다고 볼 때, <표 II-5>의 결과는 이러한 대학 입학 당시의 진로선택에 따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표 II-5> 석·박사 재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15개 : 성별에 따른 비교

남학생의 선호 직업			여학생의 선호 직업		
직업명	비율	여성 종사 비율	직업명	비율	여성 종사 비율
<석사과정(N=759)>			<석사과정(N=490)>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8.2	10.7	생명과학연구원	13.9	20.0
기계공학기술자	8.0	1.3	대학교수	8.4	16.4
토목공학기술자	6.9	3.3	인문과학연구원	6.3	-
전자공학기술자	6.6	4.2	자연과학연구원	5.3	13.6
자연과학연구원	5.5	13.6	중등학교교사	4.9	45.7
생명과학연구원	5.4	20	사회과학연구원	4.5	20.8
건축공학기술자	4.7	7.7	마케팅사무원	3.9	24.2
대학교수	4.6	16.4	행정사무원	3.9	24.0
전기공학기술자	4.1	4.2	학예사 및 문화재보존원	3.7	48.5
화학공학기술자	3.6	9.3	건축공학기술자	3.3	7.7
통신공학기술자	3.6	5.5	환경공학기술자	3.3	12.9
환경공학기술자	3.4	12.9	문리어학계 학원강사	3.3	69.1
마케팅사무원	2.8	24.2	화학공학기술자	2.9	9.3
컴퓨터공학기술자	2.6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7	10.7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2.0	11.4	대학강사	1.8	58.5
<박사과정(N=401)>			<박사과정(N=211)>		
대학교수	47.1	16.4	대학교수	57.8	16.4
기계공학기술자	6.7	1.3	생명과학연구원	10.0	20.0
생명과학연구원	5.2	20.0	인문과학연구원	8.5	-
자연과학연구원	5.0	13.6	사회과학연구원	7.1	20.8
토목공학기술자	4.5	3.3	자연과학연구원	2.8	13.6
인문과학연구원	4.0	-	상담전문가	2.4	46.4
사회과학연구원	3.7	20.8	대학강사	2.4	58.5
전자공학기술자	3.2	4.2	통신공학기술자	1.4	5.5
환경공학기술자	2.7	12.9	컴퓨터공학기술자	0.9	-
화학공학기술자	2.2	9.3	장학사, 연구사, 관련 전문가	0.9	42.0
통신공학기술자	2.2	5.5	기계공학기술자	0.5	1.3
건축공학기술자	1.7	7.7	토목공학기술자	0.5	3.3
전기공학기술자	1.2	4.2	전자공학기술자	0.5	4.2
컴퓨터공학기술자	1.2	-	환경공학기술자	0.5	12.9
기업 고위임원	0.7	-	학예사 및 문화재보존원	0.5	48.5

주: 여성 종사 비율은 2003년에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노동부·중앙고용정보원, 2004.)에서의 결과임

□ 학위 취득 이후의 취업 전망

-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은 과정에 구분 없이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의 전체 취업처로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 정도의 응답을 보였음. 비록 대체로 높은 편이라는 응답도 2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취업전망의 불투명함으로 인하여 판단을 다소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표 II-6>, [그림 II-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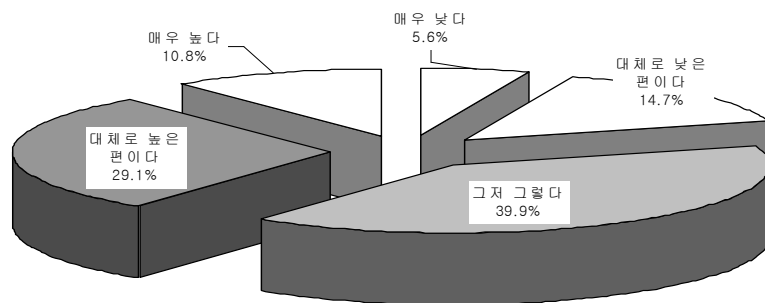
<표 II-6> 학위 취득 이후의 취업 전망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취업처에 대한 취업전망			
석사과정	1,342	3.26	0.97
박사과정	613	3.22	1.12
전 체	1,955	3.25	1.02
전공 분야로의 취업 ¹⁾	1,438	3.60	0.98
2년제·4년제 대학 교원으로서의 취업 ¹⁾	585	2.31	1.02

주: 1) '전공 분야로의 취업'은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2년제·4년제 대학 교원으로서의 취업'은 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5=매우 높다, 4=대체로 높은 편이다, 3=그저 그렇다, 2=대체로 낮은 편이다, 1=매우 낮다)의 결과임.

[그림 II-2] 석·박사 재학생의 학위 취득 이후의 전체 취업처에 대한 취업 전망



- 그러나 전공 분야로의 취업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결과가 비록 석사과정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전공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해 2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자신의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박사과정 재학생들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교원의 취업가능성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이러한 결과는 박사과정 재학생의 상당수가 대학교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에서도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것인데, 최근 교육기관에서 교수를 채용함에 있어서 국외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경향,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 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여겨짐. 결국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대학교수를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국내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치가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II-7> 학위 취득 이후의 취업 전망(전공별)

전공	전체 취업처에 대한 취업전망			전공분야로의 취업전망 ¹⁾			대학교수로의 취업전망 ¹⁾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955	3.25	1.02	1,438	3.60	0.98	585	2.31	1.02
국어국문	82	2.40	0.98	52	2.73	1.03	30	1.70	0.70
문화민속미술사학	25	3.08	0.95	22	3.55	1.06	5	2.20	0.84
역사고고학	43	2.30	0.86	35	2.83	1.15	12	1.50	0.67
영어영문학	73	3.01	0.99	41	2.98	1.01	31	2.52	0.89
철학윤리학	29	2.38	0.98	23	2.39	1.20	8	1.50	0.76
외국어문학	43	2.88	1.03	38	2.87	1.12	11	1.73	1.27
심리학	38	3.03	0.85	28	3.50	0.96	13	1.85	0.90
경영학	113	3.34	0.96	88	3.51	0.77	31	2.16	1.04
경제학	29	3.38	0.86	21	3.29	0.96	5	2.20	1.30
법학	135	3.15	0.89	105	3.20	0.94	39	2.59	1.12
사회학	35	3.06	1.00	25	2.68	0.90	10	1.70	0.67
행정학	32	2.94	0.88	14	3.50	1.02	19	2.37	1.01
교육학	77	3.26	0.92	41	3.56	0.71	40	2.50	0.91
건축설비공학	87	3.23	1.01	62	3.85	0.87	29	2.45	0.87
기계공학	111	3.57	0.94	83	4.00	0.78	30	2.33	1.09
컴퓨터·정보통신공학	232	3.56	0.98	180	3.89	0.82	57	2.91	1.07
전기·전자공학	169	3.66	0.91	135	4.04	0.88	39	2.49	1.05
토목공학	101	3.53	1.19	72	4.18	0.83	34	2.15	1.08
화학공학	55	3.29	0.94	40	3.98	0.83	18	2.50	0.92
물리학	66	3.48	0.96	55	3.56	0.88	11	2.45	1.13
생명과학	92	3.02	0.94	59	3.53	0.84	33	2.15	0.80
생물학	64	2.83	0.95	51	3.69	0.71	15	2.20	0.77
수학	40	2.78	0.92	34	3.26	1.16	10	2.20	0.63
화학	86	3.45	0.88	62	3.81	0.72	23	2.35	1.03
환경학	67	3.30	0.95	52	3.81	0.79	19	2.00	1.11
약학	31	3.84	0.86	20	4.00	0.79	13	2.54	0.97

주: 1) '전공분야로의 취업전망'은 석사과정 재학생에게,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전망'은 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5=매우 높다, 4=대체로 높은 편이다, 3=그저 그렇다, 2=대체로 낮은 편이다, 1=매우 낮다)의 결과임.

제3절 결론 및 제언

-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의 교육적·직업적 경험과 진로에 대한 이 조사는 표본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음. 특히 대학원 입학에서부터 학위 취득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일 사이의 이동에 관한 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비록 이 조사가 예비조사(pilot study)의 성격을 지니고 수행된 것이지만, 보다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의 확대

- 이 조사에서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배출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간주되는 26개 전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계열 및 의약계열에서 하나의 전공만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체능계열에서는 단 하나의 전공도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이는 조사결과를 대학원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추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전 계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표본규모를 확대함을 의미함. 그런데 현재와 같이 조사대상 학과를 소분류 수준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 표집규모는 막대하게 증가하게 됨.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공 분류 체계에 따르면 대학원의 학과(전공)은 소분류 수준에서 118개의 전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전공별로 30개의 유효사례를 확보하려 한다는 단순한 계산공식을 대입하여도 표본규모는 10,000여명에 달하게 됨. 여기에 전공별 비율을 고려하면 표본규모는 실로 무한정 확대하게 됨. 또한 중분류 수준에서 접근하는 경

우에는 정교한 데이터 생성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특히 교육과 직업 간의 의미 있는 행렬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보다 조사대상과 표본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표본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표본추출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사항목의 확대 및 세분화

- 보다 근본적으로 재학생 조사가 청년층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이 조사에서는 대학원 입학에서 학위 취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인 흐름 하에서 교육적·직업적인 경험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특히 석·박사 재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 이전에 이미 다양한 직업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적인 경험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조사항목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석·박사 재학생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이들이 재학 중에 다양한 현장경험을 수행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항목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공 계열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이 조사의 결과에서처럼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사이에는 특히 대학원 생활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즉 전반적으로는 모든 계열에 공통적인 문항 구조를 가져가되, 부분적으로는 각 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 구조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임.
- 하지만 이처럼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세분화함에 있어서는 이 조사가 국가 기초통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계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조사항목의 확대 및 세분화를 위하여

석·박사 재학생 조사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석·박사과정의 분리

- 특히 청년층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이 조사가 추구하는 기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때, 이 조사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박사과정 재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청년층의 교육-노동시장 이행의 관점보다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임.

□ 조사를 위한 전공분류체계 및 직업분류체계의 확립

-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대학원 입학 이전 직업과 희망직업을 하나의 분류체계로 통일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분석을 피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직업분류체계는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을 효율적으로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고급인력이 희망하는 직업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이라고 할 때, 이를 세분류 또는 소분류 수준에서 분류하는 것은 정보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급인력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세분류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확립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 3 장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 조사⁵⁾

제1절 조사의 개요

□ 표집방법과 절차

- 본 조사를 위해서 석사 750명, 박사 750명⁶⁾을 표집 규모로 하여 대학, 학생의 2단계 유층표집을 실시하였다. 표집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조사대상 학교의 표본추출
- 본 조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5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국공립·사립 그리고 박사 학위 배출 규모를 고려하여 20개 대학⁷⁾을 추출하였음. 지역과 학교 유형

5) 진미석·김나라(2004).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석·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세한 분석 결과를 수록함.

6) 세부권공별 최소한의 인원 30여명을 확보하고 조사의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규모임

7) 조사에 협조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한남대, 한양대, 호남대임.

을 고려하고 석·박사 배출규모를 고려하여 수도권 9개교, 충청권 3개교, 영남권 5개교, 호남권 2개교, 강원권 1개교를 선정하였음.

○ 학과표집

- 학과는 석·박사급 인력의 배출규모를 고려하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기타계열로 구분하고 각 계열별로 대표적인 학과를 선정하였음. 석·박사 고급인력의 배출이 계열 및 학과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고,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음. 향후 보다 다양한 학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표집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공계열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중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활용하고, 의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은 제외하였고, 세부전공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분류체계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음⁸⁾.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국문, 영어영문, 역사학, 철학, 외국어 문학, 사회계열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을 선정하였고, 이학계열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선정하였으며, 공학계열은 기계공학, 전기전자전파, 정보통신컴퓨터, 토목, 건축공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마지막으로 기타계열로 약학과 교육학을 선정하였음.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고 해당 대학별로 배출규모를 고려하여 석사 907명, 박사 622명의 학위취득자 총 1,529명을 최종 샘플대상으로 선정하였음.⁹⁾
- 학과별 전공을 고려하여 표집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석사학위 취득자 전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석사학위취득자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공계열과 성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서 표집을 조정하고, 22개의 세부전공별로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표집을 활용하였음.

8) 다만, 심리학의 경우, 연구진과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사회계열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9) 구체적인 학과표집 현황은 [부록1] 참조

<표 III-1>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석사

계열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문 계열	417	851	1,268	224	458	682	73	83	156	63(86.3)	71(85.5)	134(85.9)
사회 계열	3,681	1,295	4,976	1,901	765	2,666	92	100	192	78(84.8)	74(74.0)	152(79.2)
자연 계열	986	703	1,689	506	407	913	64	133	197	60(93.8)	95(71.4)	155(78.7)
공학 계열	8,003	1,347	9,350	3,475	637	4,112	136	171	307	133(97.8)	120(70.2)	253(82.4)
기타 계열	1,470	2,705	4,175	400	1,128	1,528	21	34	55	20(95.2)	23(67.6)	43(78.2)
총계	14,557	6,901	21,458	6,506	3,395	9,901	386	521	907	354(91.7)	383(73.5)	737(81.3)

<표 III-2> 전공별 표집 현황 및 회수율 - 박사

계열	전국			20개 대학			표본			회수(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인문 계열	284	247	531	176	149	325	64	62	126	51(79.7)	45(72.6)	96(76.2)
사회 계열	546	94	640	239	57	296	102	40	142	69(67.6)	25(62.5)	94(66.2)
자연 계열	367	116	483	222	60	282	68	60	128	48(70.6)	31(51.7)	79(61.7)
공학 계열	1,160	74	1,234	637	38	675	144	38	182	127(88.2)	22(57.9)	149(81.9)
기타 계열	129	128	257	69	79	148	18	26	44	17(94.4)	16(61.5)	33(75.0)
총계	2,486	659	3,145	1,343	383	1,726	396	226	622	312(78.8)	139(61.5)	451(72.5)

□ 조사도구

-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석·박사 학위 취득과정, 석·박사학위 이후 진로 활동,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향후 취업전망,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음¹⁰⁾.

<표 III-3> 조사도구의 세부 항목 및 내용

영역	구분	조사 내용
학위 취득과정	진학동기	-석·박사과정 진학 동기
	전공일치도	-석·박사 과정 전공과 학부 전공과의 일치 여부 -전공을 바꾼 이유
	석·박사과정 중 취업유형	-석·박사 학위 취득까지의 기간 및 휴학
	학위취득 소요기간과 경비	-석·박사 학위 취득까지의 기간 및 휴학 -소요경비(직접경비, 생활비) -소요경비 조달방법(장학금 출처)
학위취득이후 진로활동	학위 효용가치	-현재 일과 학위 전공과의 관련성 -일의 수준과 학위간의 적합도 -현재 일의 수준에 적합한 학력 -학위의 효용가치에 대한 판단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직업생활 만족도	-현재 직업 활동의 만족도
	취업상황	-세전 근로소득 -현재의 취업상황
	정규직 취업자	-재직기간 -학위취득과 취업과의 관계 -학위취득과 승진/급여 인상 여부 -전직횟수와 전직 이유(가취업자) -학위취득 후 정규직 취업까지의 기간 -응시 횟수 -전직회수와 전직 이유(신규취업자) -전직 계획 -전직 계획 이유

<표 계속>

10) 조사도구는 [부록2]와 [부록3]참조

영역	구분	조사 내용
학위취득이후 진로활동	미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취업직종 -구직시 우선고려요인 -정규직 취업지원회수 -미취업이유 -취업정보원 -취업기대기간 -현재 가장 어려운 점 -학위취득이 정규직 취업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시간강의 시수 -원하는 분야 취업 대기시간 -원하는 분야 취업이 안 될 시 계획
학위취득자의 취업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위 전공 분야에서의 전공분야 취업 비율 전망(전체, 대학교원) -취업가능성이 낮은 주된 이유 -향후 5년 후 취업전망
배경변인	개인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출신 학부 및 석박사 학위취득 대학 -석.박사 학위 과정 진학 연도 -석.박사 학위 취득 연도 -석.박사 학위 전공 분야 -결혼 여부 -자녀수 -배우자의 취업유형
	부모의 배경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 시절의 부모의 직업 -중고교 시절 및 박사 진학 당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 조사의 방법

○ 조사 기간

- 2004년 10월 1일 각 대학 취업정보센터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11월 20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로 회송하도록 수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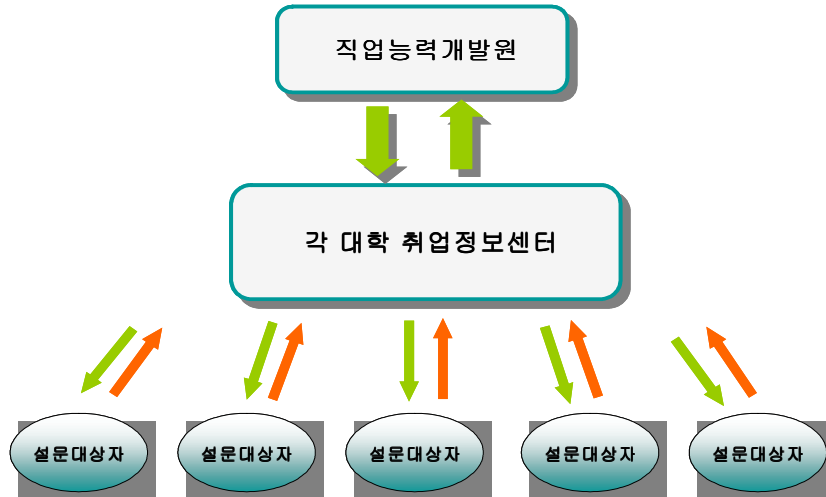
○ 조사 절차

- 본 조사의 특징은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유기적인 연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임.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특성상 졸업 후 취업활동에 대한 조사는 응답을 받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신대학의 취업정보센터나 혹은 해당학과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조사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005년도 향후 졸업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가기 위해서는 출신대학의 취업정보센터가 조사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인적자원정보수집의 인프라 구축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필요가 있음. 이미 교육통계연보사업¹¹⁾에서 이 일을 일정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을 선정하여 졸업생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학 측의 업무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음.
-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에서 2차에 걸친 20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담당자와의 협의¹²⁾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였음.

11) 현재 학사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모두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에서 통계를 내고 있으나,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취업정보센터 또는 대학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석·박사 학위취득자 조사에서도 동아대, 연세대, 영남대, 청주대, 호남대 등 6개 학교에서는 대학원에서 협조해 주었다.

12) 이 조사사업을 위하여 각 취업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인력(아르바이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그림 Ⅲ-1] 설문조사 진행 흐름도



- 이와 같은 사전 작업을 토대로 석·박사 학위취득자 취업조사는 연구진이 조사 대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실무자에게 사전에 조사 협조를 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을 통하여 대학(총장)에 협조를 구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 취업정보센터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취업정보센터에서 각 학과로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였음¹³⁾. 해당 학과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 설문지를 취업정보센터로 보고하고, 이를 연구진에게 회송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연보상의 학과명과 취득자현황 등이 각 대학에서 보유한 학위취득자 명부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표본이 해외 유학, 외국인인 경우, 또는 연락처 미상 및 연락처 변동으로 인해 설문 회수율이 석사 81%, 72%로 나타났다.

13)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접 설문 대상자와 접촉하여 설문을 진행하거나 각 학과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 2가지를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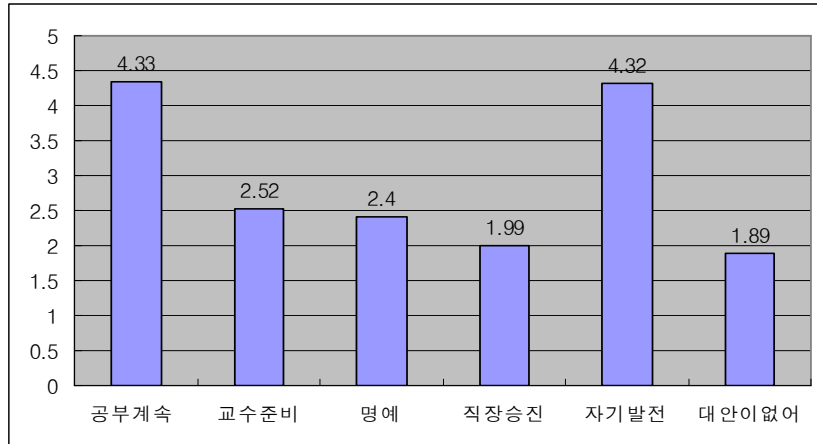
제2절 조사의 결과

□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 석사학위 취득과정

- 석사 진학동기에 대한 석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국내 석사취득자에게 있어 석사는 박사과정을 가기 위하여 거쳐 가는 과정이라기 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보다 강하게 드러남. 석사 가운데 교수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이 5명중 4명에 이르고 있음.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율을 고려할 때, 어려운 취업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정도 유예하는 과정으로서 석사과정을 선택한 학생들도 10명중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진학동기에서 볼 때,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수로 연결되는 길로 석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직장에서의 승진 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석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Ⅲ-2] 석사과정 진학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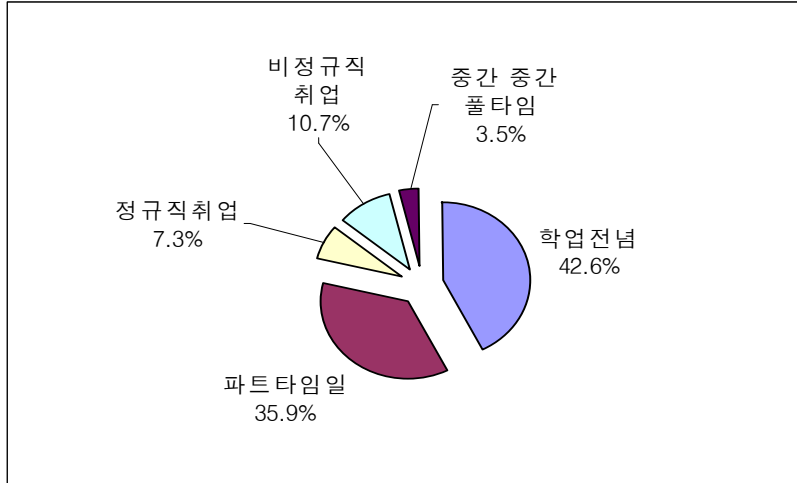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그렇지않다

- 10명의 8명의 석사들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균1379만원, 2년 3개월의 기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생들의 소요경비를 부모나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소요경비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소요경비의 40%이상을 부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석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

- 석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는 학위 취득 후 1년 반 지난시점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72.5%에 이르고 있고, 23.4%는 박사과정에 진학중이거나 진학준비중이며, 구직중에 있는 실업율이 6.7%에 이르고 있음.

[그림 Ⅲ-3] 석사 과정 중의 취업 실태(n=623)



- 취업자가운데 80%가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고, 비정규 풀타임 직업 활동을 하는 비율은 16%에 이르고 있고 파트타이머로 4%가 활동하고 있음. 졸업 후 취업현황은 전공계열별, 성별, 출신대학원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일수록, 지방대학원 출신일수록, 인문사회계열일수록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낮은 대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박사과정에 재학(준비)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III-4> 석사학위 취득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출신대학원별, 전공계열별)

구분	성별		출신석사-대분류		석사전공-대분류			
	남자	여자	서울소재 대학	지방소재 대학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정규직취업	54.9	46.2	60.0	47.1	17.4	42.9	36.7	67.1
풀타임 비정규직 취업	8.8	13.5	5.0	13.8	15.2	11.1	21.7	6.6
파트타임취업	2.2	5.3	1.5	4.1	6.5	4.5	3.3	1.3
구직 중	7.1	5.8	6.2	7.2	6.5	9.6	6.7	5.1
박사과정 중	19.7	17.0	16.2	20.9	39.1	18.7	25.0	14.9
박사과정 진학 준비 중	3.3	4.1	5.8	1.9	4.3	5.6	1.7	2.2
건강, 집안사정 집에서 쉬고 있음	2.2	6.4	2.3	4.1	10.9	4.0	5.0	1.6
둘 이상에 해당	1.8	1.8	3.1	.8		3.5		1.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p<.001		p<.001			

-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학위취득이후 약 2.8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고, 응시횟수는 5.10번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대학졸업자들의 평균 2.4개월에 비하면 약 0.5개월 더 길게 나타난다.

<표 III-5> 석사학위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율, 실업율

구분	경제활동	취업률 ¹⁾	취업률 ²⁾	고용율 ¹⁾	고용율 ²⁾	실업율 ¹⁾	실업율 ²⁾
국문학	41.4*	33.3*	83.3	13.8*	34.5*	0*	0*
영문학	61.3	21.1*	52.6*	12.9*	32.3*	21.1	12.9
외국문학	40.9*	33.3*	44.4*	13.6*	18.2*	22.2	9.1
역사철학	38.9*	57.1	78.6	22.2	30.6*	7.1	2.8
법학	66.7	75.0	83.3	50.0	55.6	12.5	8.3
행정학	52.0*	53.8	76.9*	28.0	40.0*	23.1	12.0
사회학	53.8	71.4	85.7	38.5	46.2	14.3	7.7
심리학	81.3	23.1*	61.5*	18.8*	50.0	15.4	12.5
경제학	60.0	66.7	88.9	40.0	53.3	0*	0*
경영학	76.9	60.0	85.0	46.2	65.4	10.0	7.7
생명과학	61.5	37.5	84.4	23.1	51.9	12.5	7.7
물리학	57.7	33.3*	73.3*	19.2*	42.3	13.3	7.7
수학	55.6	70.0	90.0	38.9	50.0	0*	0*
화학	76.4	73.8	92.9	56.4	70.9	7.1	5.5
기계공학	64.0	93.8	100.0	60.0	64.0	0*	0*
건축공학	90.7	77.6	87.8	70.4	79.6	12.2	11.1*
토목환경	77.8	81.0	90.5	63.0	70.4	9.5	7.4
화학공학	77.3	82.4	94.1	63.6	72.7	5.9	4.5
전기전자	91.2	83.9	90.3	76.5	82.4	6.5	6.5
정보통신	77.9	83.0	90.6	64.7	70.6	1.9*	1.9*
전체	67.6	65.5	84.5	44.3	57.1	9.2	9.2

주: 1) 취업률¹⁾=(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x100

취업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x100

고용율¹⁾=(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x100

고용율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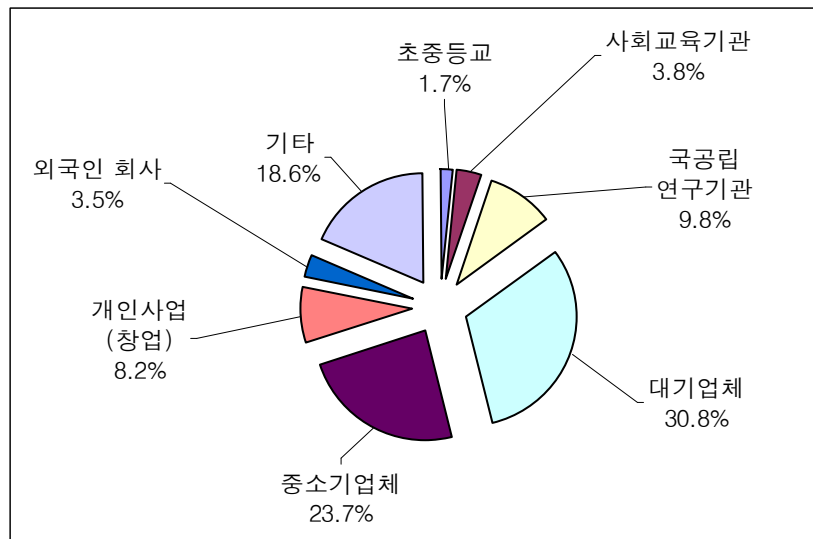
실업율¹⁾=(구직자/경제활동참가자)x100

실업율²⁾=(구직자/전체학위취득자)x100

2) 음영은 해당항목 상위 5개 학과, *은 해당항목 하위 5개 학과

- 취업한 석사학위자 가운데 4명중 1명이 민간대기업체에 취업하고 있고, 5명중 1명이 중소기업에, 13%가 국공립연구기관에 취업하고 있음.

[그림 III-4] 석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n=423)



- 그리고 취업한 석사학위자 가운데 87%는 신규 입직 학위취득자로 나타남. 현재 직무와 전공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관련성이 낮다고 반응한 사람은 13%에 지나지 않고 65%는 관련성이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공과 직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수준에 대하여 62%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 35%의 석사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학력수준이 학사이하의 학력수준이라고 반응하고 있음. 현재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을 옮기고자 하고 있고, 이직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대기업체로 나타남. 이직의 동기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보수와 안정성으로 나타났음.
- 취업한 석사들의 평균 소득은 2596만원으로 나타남. 평균소득은 성별, 전공계열별, 출신대학원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일수

록, 공학계열일수록, 수도권 대학원 출신일수록, 정규직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6> 석사 취업자의 성별, 계열별 소득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지역		정규직	비정규 풀타임	파트타 이머
		남자	여자					수도권	지방대			
평균	2,596.6	2680.3	2377.0	2432.2	2545.8	2299.1	2681.5	2717.4	2508.6	2782.2	2002.2	961.0
표준 편차	1022.9	952.2	1164.4	1252.7	1351.7	923.6	804.0	1072.9	1978.0	933.2	951.9	853.8
		p=.009		p=.151				p=.047		p=.000		

- 취업박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 즉 정규직여부로 나타남. 성이나 전공계열, 출신대학원 등 관련배경변인들은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정규직 취업자나 파트타임 취업자, 구직자 등 미취업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좋은 직장을 기다리는 자신의 눈높이, 전공분야의 취업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고, 희망취업기관으로 10명중 4명은 국공립연구기관, 5명중 1명은 민간대기업체를 기업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선택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과 전공과 직무관련성을 들고 있음. 미취업박사들이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59%는 어학과 전공공부를 하고 있고, 21%는 취업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취업정보원으로 이들 미취업자중 50% 이상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고, 4명중 1명은 동료나 선배 등 개인적인 네트워킹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비해 지도교수나 학교 추천 등 학교의 네트워킹을 이용하는 것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규직에 취업한 석사들이 취업시 활용한 정보원에 비해 인터넷활용이 20% 포인트 정도 더 높고, 그 대신 지도교수나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20%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남. 이는 곧 졸업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인적으로 취업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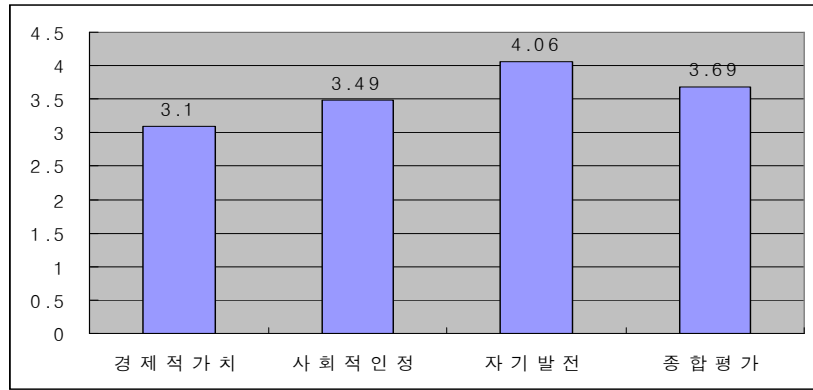
수집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학교와의 네트워킹은 멀어짐을 반영함. 50%의 미취업자는 1년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석사도 4명중 1명을 넘어 서고 있음. 예상하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42%는 눈높이를 조정하여 취업하겠다고 반응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14%정도로 나타나며, 19%는 자신의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향후 박사진학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정도는 이미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계획하고 있고, 50%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이 없다고 반응하고 있음. 앞서 진학동기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사과정 진학계획역시 인문계열이 높은 데 비해, 공학계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석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효용 가치 및 취업 전망

- 석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석사들은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인 가치는 사회적 인정 가치나 자기발전 측면에서의 유용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 특히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석사들은 이공계열 석사들에 비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음.

[그림 III-5] 석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



주: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 향후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50%에 불과하고 있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음. 5년 이후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의 취업전망은 더욱 어렵게 보고 있는데 32%만이 취업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44%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비해 이공계열,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I-7>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의 3년 이내 전공분야 취업 예상

단위: %

구분	전체 (623)	인문계열 (50)	사회계열 (194)	자연계열 (61)	공학계열 (318)	수도권 (258)	지방대 (367)
매우낮다	4.0	24.0	4.1	3.3	.9	2.7	4.9
낮은편이다	14.7	28.0	22.2	13.1	8.5	12.0	16.6
그저그렇다	31.2	30.0	42.8	37.7	23.3	29.8	32.2
높은편이다	39.7	12.0	29.9	36.1	50.6	41.1	38.7
매우높다	10.4	6.0	1.0	9.8	16.7	14.3	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44.676, p=.000			F=9.556, p=.002		

<표 III-8> 세부전공별 석사학위 효용가치평가

구분	석사학위 전공과 학부전공 일치 여부	석사전공 에 대한 만족도	석사학위 효용가치: 경제적인 측면	석사학위 효용가치: 사회적 인정 측면	석사학위 효용가치: 자기 발전의 측면	석사학위 효용가치: 종합적	평균소득
국문학	0.14	4.07(3)	2.59*	3.17*	4.28(3)	3.62	2406.36
영문학	0.33	4.06(4)	3.19	3.58	4.26(4)	3.81	2571.43
외국문학	0.23	3.86	2.77*	3.36	4.05	3.59(5)	2431.43
역사철학	0.25	4.00(5)	2.89	3.31*	4.03	3.69*	1798.46
법학	0.17	3.97	3.03	3.44	3.86*	3.65	2672.86
행정학	0.08	3.88	2.68*	3.36*	3.96*	3.44*	1912.00
사회학	0.46	3.92	2.91	3.36*	4.46(1)	3.82(4)	2537.20
심리학	0.31	3.69*	2.50*	3.50	3.94*	3.38*	1645.91
경제학	0.27	4.20(1)	3.20	3.67(4)	4.33(3)	4.00(1)	3146.671)
경영학	0.35	3.88	2.73*	3.12*	3.69*	3.46*	2554.00
생명과학	0.12	3.81*	3.02	3.55	4.02	3.62	1832.00
물리학	0.08	3.73*	3.12	3.32*	3.92*	3.76	1670.00
수학	0.11	3.94	2.94	3.56	4.06	3.72	2850.005)
화학	0.00	3.85	3.33(4)	3.60(5)	4.15	3.72	2456.49
기계공학	0.13	3.88	3.32(5)	3.60(5)	4.16(5)	3.72	2892.194)
건축공학	0.02	3.91	2.91	3.40	4.00	3.65	2116.83
토목공학	0.04	4.07(1)	3.15	3.44	3.96*	3.52*	2534.21
화학공학	0.05	3.82*	3.41(3)	3.77(1)	4.14	4.00(1)	2346.75
전기전자	0.06	3.94	3.53(1)	3.76(2)	4.09	3.79	3054.482)
정보통신	0.21	3.85	3.52(2)	3.70(3)	4.01	3.84(3)	2965.633)
전체	0.15	3.91	3.09	3.50	4.05	3.69	2596.6

주: 1) () 안의 숫자는 해당항목의 순위로, 1~5위까지의 학과만 표기함.

2) *는 해당항목의 하위 1~5위 학과

3) 만족도 - 1 매우 불만, 2 불만, 3 그저 그렇, 4 만족, 5 매우 만족

○ 시사점

-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득과정, 취득결과, 향후전망 및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의 석사과정은 전통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기 위한 중간단계로 선택하고 있는 경향은 이제 매우 약하고, 그렇다고 자신을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직근로자의 자기향상 과정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 대신, 신규입직자들이 석사학위를 받고 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취업준비단계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으로 판단됨. 석사학위가 경제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선택행위인가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상당히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이후 2여년이 지난 후에 4분의 3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이들 가운데 80%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즉, 3명중 2명은 정규직에 취업하게 되는 데, 이들은 평균 근로소득이 2,600여만원으로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평균 급여인 2,300여만원을 300만원 정도 상회함. 그러나 5명중 1명인 비정규직 풀타임은 근로소득의 평균이 2,000여만원, 파트타임은 900여만원으로 대학졸업생의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6.7%는 구직중인 실직자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4명중 1명에게는 석사학위는 당장 취업활동에서의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같은 점은 석사들의 석사학위의 경제적인 효용가치에 대하여 40%만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도 일정한 정도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자들의 소극적인 반응을 감안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석사학위에 진학하였다는 학생들이 10%라는 적지 않은 석사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음.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에 비해,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유의미한 정도의 낮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석사 프리미엄의 효과는

적어도 소득면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취업한 석사 가운데 3명중 1명은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어 적어도 취업측면에서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정한 정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석사학위자들은 경제적인 효용 가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사회적 인정이나 자기발전적인 측면의 가치를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남. 곧, 전반적으로 보아 석사들은 석사학위취득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음. 이는 우리 나라사람들의 교육선택행위가 반드시 경제적인 효용성의 갖대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적인 인식, 일정한 정도 이미 고학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길로 동승하고자 하는 심리 등에 따라 선택하는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의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점차 석사학위 진학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둘째,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석사들의 취업활동지원에 관한 것임. 전반적으로 석사학위자들의 중요한 취업정보원이 인터넷채용사이트인 하지만, 특히 불완전한 취업상황에 있는 석사들의 인터넷 채용사이트 활용도가 매우 높음. 이에 비해 학교나 지도교수와의 네트워킹이나 지원활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취업자를 위한 채용사이트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대학측에서도 석·박사학위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불완전취업자가운데 여의치 않으면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4명중 1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석사학위과정을 선택한 경우, 취업측면에서도 여전히 불리함을 겪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취업전망이나 박사진학과정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정보가 필요하다 하겠음.

□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실태 조사 결과

○ 박사학위 취득과정

- 진학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박사학위는 교수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종전의 기대는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III-9> 박사학위 진학 동기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	-	.7	6.5	36.6	56.2	100.0	4.48	.65	1
교수가 되기 위해	4.8	13.8	23.2	39.4	18.8	100.0	3.54	1.09	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	8.9	20.1	34.6	29.3	7.1	100.0	3.06	1.07	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50.4	20.3	16.4	8.9	4.0	100.0	1.96	1.18	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3.2	1.6	6.6	45.0	43.6	100.0	4.24	.89	2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51.9	30.0	10.3	5.4	2.4	100.0	1.76	1.00	6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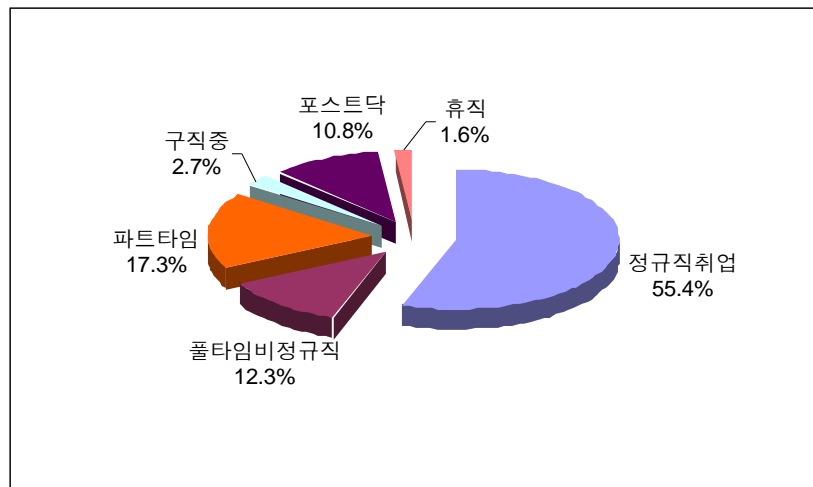
- 교수가 되기 위해 진학하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 박사들은 60%에 지나지 않아 2000년도의 선행조사 95%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청년실업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어 박사과정을 선택하였다는 비율도 10명중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진학동기에서 볼 때, 전공계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수로 연결되는 길로 박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고, 공학계열의 경우, 직장에서의 승진 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박사과정을 취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박사취득 이후 진로 상황

- 또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중 하나는 박사과정중에 이미 취업하고 있는 기취업자 비율이 30%에 이른다는 것임. 이는 학위취득자중 70% 정도가 신규로 입직하여야 하는 입직대기자이고, 박사학위 취득자가운데 기취업자와 신규취업자는 취업현황에 있어서나 박사학위의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들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대체로 10명중 4명의 박사들은 학업에 주로 전념하지만 10명중 5명은 풀타임으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취업과 병행한 비율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이공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박사과정의 수학 기간은 평균 65.3개월로 11학기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계열의 경우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공계열 특히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 5년 이내에 학위취득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학생들의 소요경비를 부모나 자기 부담으로 감당하고 있고,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전체 소요경비의 17%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사과정의 학생들이라도 부모로부터 소요경비의 18%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박사학위 취득이후의 진로는 학위 취득 후 1년 반 지난시점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88%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에 취업하

고 있는 비율은 55.4%이며, 비정규직에 12.3%, 시간강사 등의 파트타임이 17.3%에 이르고 있음. 박사취득자가운데 10명중 1명은 포닥에 진학하고 있고, 구직중에 있는 비율은 2.7%에 이르고 있음.

[그림 III-6] 박사취득자의 졸업 후 진로 상황 : 전체(n=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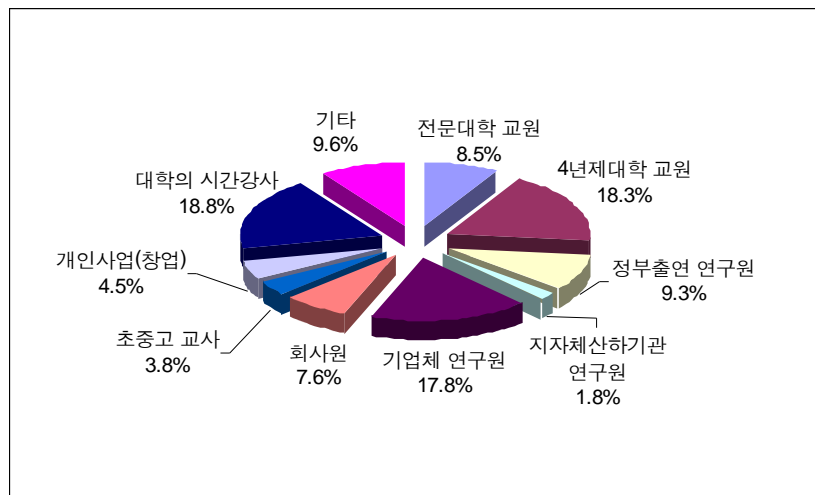


- 한편, 신규입직자로 국한하여 볼 때, 정규직 취업률은 37%에 그치고 있고, 43%가 비정규직 취업이나 파트타임 취업 등 불완전 취업상황에 있음을 보여줌.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은 24%에 그치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은 58%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은 성별의 차이는 일정한 정도 계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바, 인문계열의 경우 정규직의 취업률이 낮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취업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박사 취득자중 신규입직자의 현재 진로현황(성별, 전공계열별)

구분	성별		박사전공-대분류				전체
	남자	여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정규직 취업	44.6	24.0	17.0	37.8	34.1	53.3	36.5
플타임 비정규직 취업	13.7	24.0	25.5	20.0	12.2	10.8	17.1
파트타임 취업	19.6	34.0	48.9	35.6	9.8	11.7	25.8
포스트닥 과정	17.2	10.0	2.1	4.4	34.1	19.2	14.7
구직 중	3.4	4.0	-	2.2	4.9	5.0	3.6
집에서 쉬고 있음	1.5	4.0	6.4	-	4.9	-	2.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27		p<.000				

[그림 Ⅲ-7] 박사 취업자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유형(n=297)



<표 III-11> 박사 취득자의 세부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고용율, 실업율

	경제 활동	취업률 ¹⁾	취업률 ²⁾	파트타임 머비율 ¹⁾	파트타임 머비율 ²⁾	고용율 ¹⁾	고용율 ²⁾	실업율 ¹⁾	실업율 ²⁾
국문학	95.8	17.4*	43.5*	56.5	54.2	16.7*	41.7*	0*	0*
영문학	80.0	41.7*	50.0*	50.0	40.0	33.3*	40.0*	0*	0*
외국문학	94.1	75.0	75.0	25.0	23.5	70.6	70.6	0*	0*
역사철학	85.2	17.4	56.5*	43.5	37.0	14.8*	48.1*	0*	0*
법학	92.9	61.5	61.5*	30.8	28.6	57.1	57.1	7.1	7.7
행정학	86.7	69.2	69.2	23.1	20.0	60.0	60.0	6.7	7.7
사회심리	94.7	38.9*	72.2	27.8	26.3	36.8	68.4	0*	0*
경제학	100.0	33.3*	75.0	25.0	25.0	33.3*	75.0	0*	0*
경영학	100.0	63.2	73.7	26.3	26.3	63.2	73.7	0*	0*
교육학	100.0	52.4	76.2	23.8	23.8	52.4	76.2	0*	0*
물리학	76.5*	76.9	84.6	7.7*	5.9*	58.8	64.7	5.9	7.7
수학	88.2	33.3*	53.3*	46.7	41.2	29.4*	47.1*	0*	0*
생명과학	48.1*	61.5	100.0	0*	0*	29.6*	48.1*	0*	0*
화학	83.3	73.3	80.0	0*	0*	61.1	66.7	16.7	20.0
기계공학	72.2*	76.9	84.6	7.7*	5.6*	55.6	61.1	5.6	7.7
건축공학	76.2*	75.0	81.3	18.8	14.3	57.1	61.9	0*	0*
토목환경	82.4	57.1	71.4	14.3	11.8	47.1	58.8	11.8	14.3
화학공학	77.8*	85.7	92.9	7.1*	5.6*	66.7	72.2	0*	0*
전기전자	91.7	77.3	86.4	9.1	8.3	70.8	79.2	4.2	4.5
정보통신	100.0	82.8	93.1	6.9*	6.9	82.8	93.1	0*	0*
전체	85.0	58.4	74.3	22.7	19.3	49.6	63.2	2.5	2.9

주: 1) 취업률¹⁾=(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100
 취업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100
 파트타임머비율¹⁾=(파트타임취업자/경제활동참가자)×100
 파트타임머비율²⁾=(파트타임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100
 고용률¹⁾=(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100
 고용률²⁾=(정규직+비정규직취업자/전체학위취득자)×100
 실업률¹⁾=(구직자/경제활동참가자)×100
 실업률²⁾=(구직자/전체학위취득자)×100
 2) 음영은 해당항목 상위 5개 학과, *은 해당항목 하위 5개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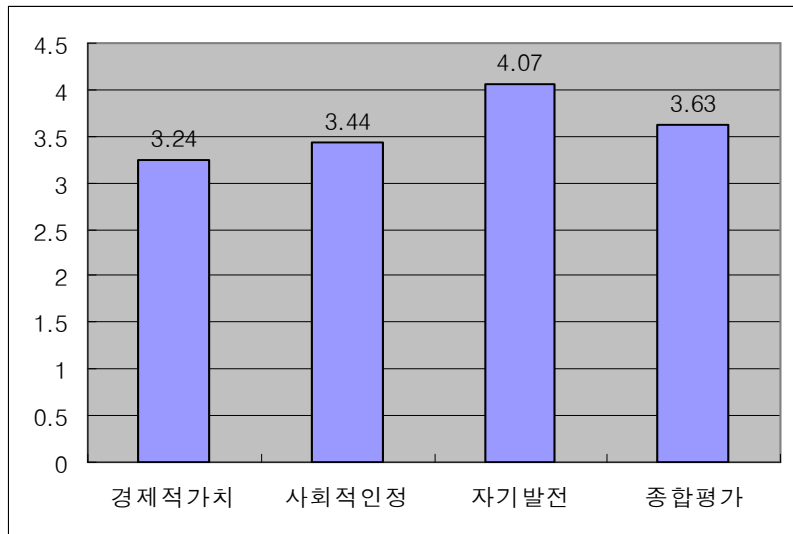
-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할 수 있듯이 고용형태, 즉 정규직여부로 매우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남. 성이나 전공계열, 출신대학원등, 관련 배경변인들은 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정규직 취업자나 시간강사, 구직자 등 불완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들은 자신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박사에 대한 차별과 전공분야 취업처 부족, 그리고 불공정 임용 등의 구조적인 요인을 들고 있음. 또한 자신에게 맞는 취업처를 기다리고 있다는 즉, 자신의 눈높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에 비해 자신의 실력부족, 인간관계 부족, 자신의 노력부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희망취업기관으로 10명중 4명은 국공립 연구기관, 4명중 1명은 4년제 대학을 들고 있음. 이들은 직업선택기준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을 들고 있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70%는 논문 등 연구실적 쌓기, 20%는 취업정보수집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들 미취업자중 57%가 취업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고, 30%는 동료나 선배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비해 지도교수나 학교 추천 등 학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7%에 불과하였음. 40%의 미취업자는 1년 이내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박사도 4명중 1명을 넘어서고 있음. 예상하는 기간 내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3.5%는 눈높이를 조정하여 취업하겠다고 반응하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20%정도로 나타나며, 17%는 자신의 학위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박사학위의 효용가치와 향후 전망

- 박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하여 대체로 박사들은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적인 가치는 사회적 인정가치나 자기발전측면에서의 유용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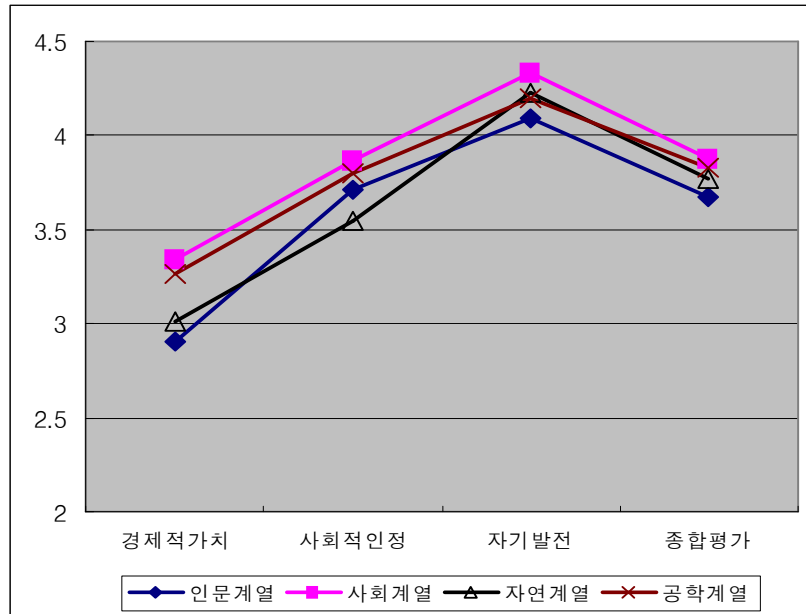
[그림 Ⅲ-8] 박사학위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



주: 5 매우 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특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등 기초학문계열의 박사들이 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 박사들에 비해 경제적인 효용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함.

[그림 Ⅲ-9] 계열별 박사학위의 효용가치 평가



주: 1) 경제적 가치 $p < .012$, 사회적 인정 $p < .359$, 자기발전 $p < .271$, 종합평가 $p < .440$

2) 5 매우 그렇다, 4 그런편이다, 3 그저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향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전망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27%에 불과하고,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10%만이 취업전망이 높다고 반응하고 있어 취업전망을 매우 어렵게 보고 있음.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전망에 대해 더욱 어렵게 평가하고 있어 8.3%만이 대학교원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낮아 4%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

<표 III-12> 세부전공별 박사학위 효용가치평가

	박사학위 전공과 학부전공 일치 여부	박사전공 에 대한 만족도	박사학위 효용가치: 경제적인 측면	박사학위 효용가치 : 사회적 인정 측면	박사학위 효용가치: 자기 발전의 측면	박사학위 효용가치 : 종합적	평균소득 (단위: 만원)
국문학	1.00	4.21	2.82*	3.48*	3.96*	3.71	2226.19
영문학	1.07	4.13	3.20	3.60	4.20	3.60*	2664.17
외국문학	1.06	3.94*	2.71*	4.18	4.18	3.59*	3356.67
역사철학	1.08	4.37	2.93	3.67	4.08*	3.73	2367.27
법학	1.21	4.29	3.43	4.00	4.43	3.93	5400.00
행정학	1.27	4.40	3.67	4.07	4.47	4.07	3668.18
사회심리	1.16	4.21	3.26	3.95	4.16	3.68*	3355.56
경제학	1.25	4.42	3.17	3.33*	4.50	3.83	2562.50
경영학	1.21	4.26	3.21	3.89	4.21	3.95	4115.79
교육학	1.25	4.10	3.14	3.76	4.19	3.95	2652.50
물리학	1.06	4.06	2.76*	3.41*	4.35	3.88	4187.27
수학	1.00	3.59*	2.88*	3.18*	3.88*	3.47	2126.67
생명과학	1.04	4.04	3.07	3.78	4.41	3.89	3241.67
화학	1.00	3.78*	3.22	3.61	4.33	3.72	3866.67
기계공학	1.11	3.89*	3.61	4.00	4.17	4.06	4725.00
건축공학	1.05	4.14	3.24	4.05	4.19	3.95	4128.57
토목공학	1.00	4.00	2.69*	3.44*	3.81*	3.50*	3983.33
화학공학	1.17	4.00	3.22	3.67	4.11*	3.78	4414.29
전기전자	1.13	3.96	3.38	3.67	4.25	3.67*	4169.05
정보통신	1.17	4.17	3.38	4.00	4.38	4.00	4000.00
전체	1.11	4.10	3.15	3.75	4.22	3.81	3733.3

주: 1) 음영은 해당학과 상위 5개 학과
 2) *는 해당항목의 만족도 하위 5개 학과

제3절 결론 및 제언

□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득과정, 취득결과, 향후전망 및 계획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의 의미의 변화임. 현재의 박사과정은 전통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고자 하는 진학동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 또한 박사취득자들의 향후 취업전망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박사학위취득자 특히 국내박사학위자들이 3년 이내에 대학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어도 이제 박사학위는 바로 교수로의 진입(가능성)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적어도 국내 박사의 경우 3분의 1정도는 이미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학위과정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다는 사실은 학사취득-석사취득-박사학위취득-교수(연구원)의 경로와 같은 단선적인 커리어이외에 학사취득-석사취득-취업-박사취득과 같이 학업과 취업간의 관계가 쌍방향적으로 연계되는 복합적인 커리어 유형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줌.
- 한편,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반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취득자의 3분의 1이상이 그리고 신규입직 박사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나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불완전한 취업 상황에 있어 박사학위자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특히 여성박사나 인문계열의 박사들이 경우 시간강사의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음. 더욱이 불완전취업자들의 3분의 2이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박사취득이후 2-3년간의 기간, 특히 신규입직자들의 절반 이상은 매우 불완전한 취업상황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시간강사의 소득은 1,700여만원,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는 2600여만원으로 학사들의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박사학위 취득 후 2-3년간의 불안정한 시기는 박사취득자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또한 고급인력의 활용이라는 국가 인적자원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시간강사의 지위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가장 왕성하게 연구 활동과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대로 활용할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트닥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강사를 과도기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 자체를 독자적인 지위로 인정하고 대우할 필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 또한, 미취업박사들의 미취업원인에 대한 반응에서 국내 박사 차별의 관행이나 불공정한 임용이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일정한 정도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내박사 차별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이에 대한 처방이 뒤따라져야 할 것임.
- 한편,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있는 박사들의 취업활동에 대한 반응에서나 미취업요인에 대한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함. 현재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과 같은 민간부문의 고급인력채용 지원사이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전공별, 학위급별, 성별 등으로 더 다양한 채용지원 사이트들이 개설 운영되어 취업정보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채용지원 사이트는 학술진흥의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정책적 제언

- 본 조사의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우선 박사학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음. 즉, 전통적으로 박사학위는 중국교육으로서, 그리고 석사학위는 박사학위의 중간과정으로서, 대학교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 박사, 특히 국내 박사학위자의 경우 박사학위가 대학교수로의 준비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진학동기에서,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이후 교수로의 취업전망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음. 이와 같은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기대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박사학위자의 공급과 대학교원의 수요간의 심각한 격차가 현실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진로로 박사학위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석사학위가 거쳐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온전한 관심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석사학위과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진학동기나 취업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둘째, 전반적으로 학위과정에 대한 진학 동기나 취업실태에서 전공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인문계열의 경우 학문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교수준비라는 진학동기가 뚜렷하고, 인문계열의 경우, 취업실태의 여러 측면, 즉, 취업률, 임금, 향후 취업전망 등에서 적어도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학위의 효용가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최근에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논의와는 달리, 이공계열의 경우,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는 진학동기도 실용적이지만, 취업률이나, 소득, 임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거시적인 박사인력수급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듯, 기초학문,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노동시장 성취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활용 촉진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초학문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음.

- 셋째, 석·박사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전반적인 효용가치에 있어서 전공을 막론하고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학위과정은 경제적인 가치이외에도 자기발전이나 자신의 전문성 실현 등 비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교육과정의 선택, 즉 인력공급을 예측할 때 우리 사회의 학력에 대한 문화적 기반과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넷째, 석사학위 취업자와 박사학위 취업자의 3분의 1정도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반응에서 학력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향후 어떤 대상들이 학력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요청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섯째, 석·박사 취득자, 특히 미취업 학위취득자들의 취업정보원으로 인터넷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에서 다양한 채용지원 사이트가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여섯째, 석·박사 취업실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상당수의 학위취득자가 학위취득이후 2년 가까운 시점에서 불안정한 취업상황에 있음에도 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이후 대학으로부터의 취업지원서비스나 상담서비스는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대학들은 석·박사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의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대학취업지원센터의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된다 하겠으며 신설되는 각 대학 인력개발종합센터에서 석·박사 대상의 지원 활동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일곱째, 본 연구는 1,200여명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세부전공별 진로현황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박사의 경우, 약 20%로 추정되는 국외박사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고급인적자원에 대한 졸업 후 추적조사는 조사의 대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석·박사와 같은 고급인력의 실태조사는 응답자에 대한 접근율과 거절율도 높아 상당히 난항을 겪는 조사라고 할 수 있음.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와 밀접한 연계활동을 바탕으로 학교를 통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중앙연구기관에서 각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의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조사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는 즉, 조사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특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의 인력개발센터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중앙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인적자원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요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여덟째,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으로 대학원 세계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하고 향후 전공의 확대와 표집수를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각 대학과 대학원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대학원 진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서 발간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 4 장
직업편 발간 및 인터넷 탑재 사업¹⁴⁾

제1절 사업의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학생 및 구직자들에게 직업세계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환경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직업세계의 정보를 탐색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게다가,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은 자신의 직업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전망을 근간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높은 수준의 직업능력을 쌓을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정기오,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적인 수준에서 직업 및 진로에 있어서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

14) '직업편 발간 및 인터넷 탑재 사업'은 한상근·정운경·최동선이 주관하였음.

도록 교육의 투자 수익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 특정 직업의 전망 등에 대한 교육 및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에 있어서 직업정보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직업정보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추진하는 진로지도 인프라 구축의 핵심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대변되는 우리 나라교육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정책 못지않게 진로지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미래의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 책자 발간은 진로지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음.
-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세계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직업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직업선정 및 분류체계의 적합성 문제, 구성항목의 문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결국,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측면과 함께, 지금까지 개발된 직업정보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반인에게 보다 신뢰로운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기 발간된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의 내용과 형식을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모습을 학생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을 발간하여 청소년과 구직자들의 진로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또한, 이 사업에서는 미래의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a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보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미래의 직업세계 : 교사용 가이드』와 『미래의 직업세계 : 중고등학생용 콘텐츠』를 진로 지도 종합 정보망인 커리어넷(<http://careernet.re.kr>)을 통하여 보급하려고 함.

□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내용은 크게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 발간 사업과 관련 정보의 인터넷 탑재 사업으로 구분됨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 발간 사업의 내용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은 직업에 대한 개요,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격,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특성, 취업현황, 재직자가 본 일자리 전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인터넷 탑재 사업의 내용

- 관련 정보의 인터넷 탑재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 교사용 가이드』와 『미래의 직업세계: 중·고등학생용 콘텐츠』를 가공하여 진로지도 종합 정보망인인 커리어넷(<http://careernet.re.kr>)에 탑재하는 것임.

- 용역 사업의 제목 : 커리어넷 시스템 재구축 및 미래의 직업세계 콘텐츠 개발 사업
 - 개발 기간 : 2004년 12월 1일 - 12월 30일
 - 사업 금액 : 10,000천원
 - 사업체 : 삼양데이터시스템(주)
 - 내용 : 미래의 직업세계 메뉴 개발
 - ① 미래의 직업세계 관련 각종 조사 보고서 탑재
 - 재학생 희망직업조사(2002, 2003)
 - 대학 졸업생 조사(2002, 2003)
 - 미래의 직업세계 2003(직업편, 학과편)
 - ② 중학생용 직업사전 개발
 - 2003년에 연구된 「미래의 직업세계 중·고생 콘텐츠」를 중학생용 직업사전으로 가공하여 인터넷에 탑재

- 사업의 방법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 사업은 문헌조사, 외부기관 활용,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됨
 - 문헌조사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의 기획을 위한 문헌 조사 : 국내외 직업전망서, 직업안내자료, 각종 직업사전 등을 수집하여 대표 직업의 선정 방법, 내용체계 및 구성요소, 내용 수준 등을 분석함.

- 직업세계의 변화, 직업정보를 활용한 진로선택 방법 및 전략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분석함.
- 대표 직업 및 기획 파트로 선정된 직업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업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분석함.
 - 외부기관의 활용
 - 대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연구 용역을 위탁함¹⁵⁾.
 - 150여 개의 대표 직업을 선정한 뒤, 이들 직업에 대한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및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중앙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의 조사를 위탁함.
 - 인터넷 탑재 : 웹디자인 및 HTML 문서 작성을 위하여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함.
 - 전문가 협의회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 직업편」의 기획, 구성 체계, 기술 내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함.
 - 대상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학계, 연구소, 중등학교 및 대학교, 일선 상담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 20여명
 - 회수 : 5회 실시
 - 1차 전문가 협의회 : 2004년 9월 21일 개최
 - 2차 전문가 협의회 : 2004년 11월 5일 개최
 - 3차 전문가 협의회 : 2004년 11월 11일 개최
 - 4차 전문가 협의회 : 2004년 11월 16일 개최
 - 5차 전문가 협의회 : 2004년 12월 10일 개최

15) 중앙고용정보원 연구진 : 김한준, 최영순, 이만기, 임미연, 강옥희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앞으로의 직업세계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직업정보를 개발·보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직업전망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캐나다의 Job Futures, 일본의 직업핸드북(職業ハンドブック)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직업전망」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미래의 직업세계」가 있음.

□ 미국의 직업전망서

- 미국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1946년부터 「미국 직업전망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를 발간하여 왔음. 현재 2년 주기로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의 고용전망을 수량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가장 최근의 직업전망서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OOH) 2004-05판이며, 여기에는 총 250여 개의 대표적인 직업들을 직업군별로 분류하여 직업정보와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개별 직업의 설명 항목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IV-1] 미국 직업전망서(OOH)의 직업별 구성체계

직업명
O*NET Code 번호
직업의 특성 Significant Points
직업이 하는 일 Nature of Work
작업 환경 Working Conditions
고용 Employment
훈련, 자격 및 승진 Training, Other Qualifications, and Advancement
직업전망 Job Outlook
임금 Earnings
관련 직업 Related Occupations
부가정보원 Sources of Additional Information

- 이외에도 ① 향후 10년간 인구, 노동력, 교육 및 훈련, 고용, 산업, 직업 등의 변화를 전망하는 “미래의 직업”, ② “취업정보 제공처”, ③ “구직 및 일자리 평가”, ④ “자세하지 않은 직업정보”, ⑤ 직업전망서 활용의 이해를 높이고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직업전망에 대한 전제 가정들과 전망 방법들을 상세한 “고용전망의 가정과 방법”, ⑥ 직업정보원간의 연계를 위하여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O-Net 번호와 그에 따른 직업명을 제시한 “표준직업분류와 O-Net 목록” 등의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미국 직업전망서를 인터넷 사이트 <http://www.bls.gov/oco/>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 향후 10년간의 고용 상태를 수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미국 직업전망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체계를 기초로 향후 10년간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직업, 가장 빨리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업, 가장 빨리 일자리가 쇠퇴하는 직업, 교육 훈련 수준별 고용 증가 예상 직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캐나다의 Job Futures

- 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는 1986년 이후 2년 주기로 Job Futures를 발간하고 있음. 인쇄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의 세계”, 직업별 직업전망을 제공하는 “직업전망”, 학과별 전망을 제공하는 “학과전망”, 그리고 Job Futures의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Job Futures에서는 200여개 직업에 관하여 향후 5년간의 고용 전망을 시도하고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전망 내용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미국 직업전망서와는 달리 좋음(good), 보통(fair), 제한(limited) 등 세 가지 지표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개별 직업의 설명 내용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음.

[그림 IV-2] 캐나다 「Job Futures」의 직업별 구성체계

직업명	
관련 직업 및 학과	
직무 내용 At Work	
교육, 훈련 및 자격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관련 고용정보 In These Occupations	
장래 고용전망 National Outlook to 2004	
도표들 Graphics	
근무분야	고용유형
근로자 연령층	연령별 임금 비교
고용전망	실업률

- 캐나다 직업전망시스템(COPS; Canadian Occupational Projection System)이라는 독자적인 직업 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67개 분야 139개 직업에 대한 인력 예측을 하고 있음. 그러나 Job Futures에서는 좋음(good), 보통(fair), 제한(limited) 등 세 가지 지표로만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개별 직업별 정보 내용을 표준화시키고 도표와 그림을 통해 정보를 시각화시켜서 독자들의 가독성을 극대화시킨 점은 Job Futures의 최대 장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인터넷 사이트 <http://jobfutures.ca/>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직업핸드북

- 일본노동연구기구(日本労働研究機構)에서는 핵심 직업 300개에 대한 업무 내용, 장래성, 취업과정 등을 사진 및 도표와 함께 해설한 「직업핸드북」(職業ハンドブック)을 1981년부터 발간하고 있음.
- 발간 주기는 대략 5년이며, 직업별 고용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개별 직업에 관한 설명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IV-3] 일본 「직업핸드북」의 직업별 구성체계

-
- ① 어떤 직업인가
 - ②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 ③ 이 직업에 취업하려면
 - ④ 이 직업의 역사와 전망
 - ⑤ 노동 조건의 특징
 - ⑥ 이 직업에 대한 문의처 및 관련 단체
-

- 일본의 경우 직업별 고용전망에 관한 독자적인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개별 직업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 기업체, 공공 기

관 등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직업 선택 과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진로선택 가이드'를 책자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은 일본 「직업 핸드북」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2003 한국직업전망」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에서 1999년에 「한국직업전망서」를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며, 이후 중앙고용정보원에는 2002년에 「2003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하였음.
- 「2003 한국직업전망」은 우리 나라대표 직업으로 선정한 218개 직업에 대하여 임금, 고용형태, 고용전망 등에 관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개별 직업에 대한 설명 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IV-4] 「한국직업전망서 2003」의 직업별 구성체계

-
- ① **직업개요**: 하는 일, 사회적 의미, 세부 직업, 근무형태와 시간, 작업환경 등의 해당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 ② **수행직무**: 구체적인 업무활동의 과정 및 내용, 관련 직업과의 직무상 관계, 사용 장비 및 도구 등을 소개
 - ③ **교육·훈련 및 자격**: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전공, 직업 훈련, 자격 및 면허를 비롯하여 채용경로, 이전직이 가능한 관련 직업 등을 소개. 또한, 업무수행능력, 지식, 성격 등을 그래프로 제공함.
 - ④ **고용 및 임금 현황**: 해당 직업의 종사자수, 연령별 분포, 학력별 분포, 월 평균 임금, 여성종사자 비율, 임금근로자 비율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
 - ⑤ **직업전망**: 직업당 60여 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고용변화를 전망함.
 - ⑥ **관련 정보처**
-

- 그러나, 체계적인 고용 전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며, 직업 전망은 현직자 의견 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2003 한국직업전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수록 직업의 적합성 문제
 - 본 책자를 이용하는 주 이용자 층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수록 직업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2003 한국직업전망」의 경우 학생에서부터 일반 국민까지 거의 모든 계층을 이용자 층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록 직업의 범위에 대하여 어느 계층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중고생을 전략적 타깃(target)으로 본다면, 목공, 미장공, 방수공, 유리공, 전공, 철골공, 철근공 등 건설 분야의 많은 직업들 가운데 일부는 과감히 줄일 수 있음.
- 구성 항목의 문제
 - 개별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직업개요, 수행직무, 교육·훈련 및 자격, 고용 및 임금 현황, 직업전망 등 5개 항목에서 다루는 관계로 항목별 텍스트의 내용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는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작업 조건(working condition) 항목을 신설하여 주당 근무, 주야간 근무 시간, 주중 및 주말 근무 시간, 서거나 걷는 등의 운동량, 실내 작업/실외 작업 여부, 힘의 강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직업별로 앞부분에 <핵심 포인트> 항목을 두어 고용 추세와 자격 요건 등을 요약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관련 직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대표 직업 이외에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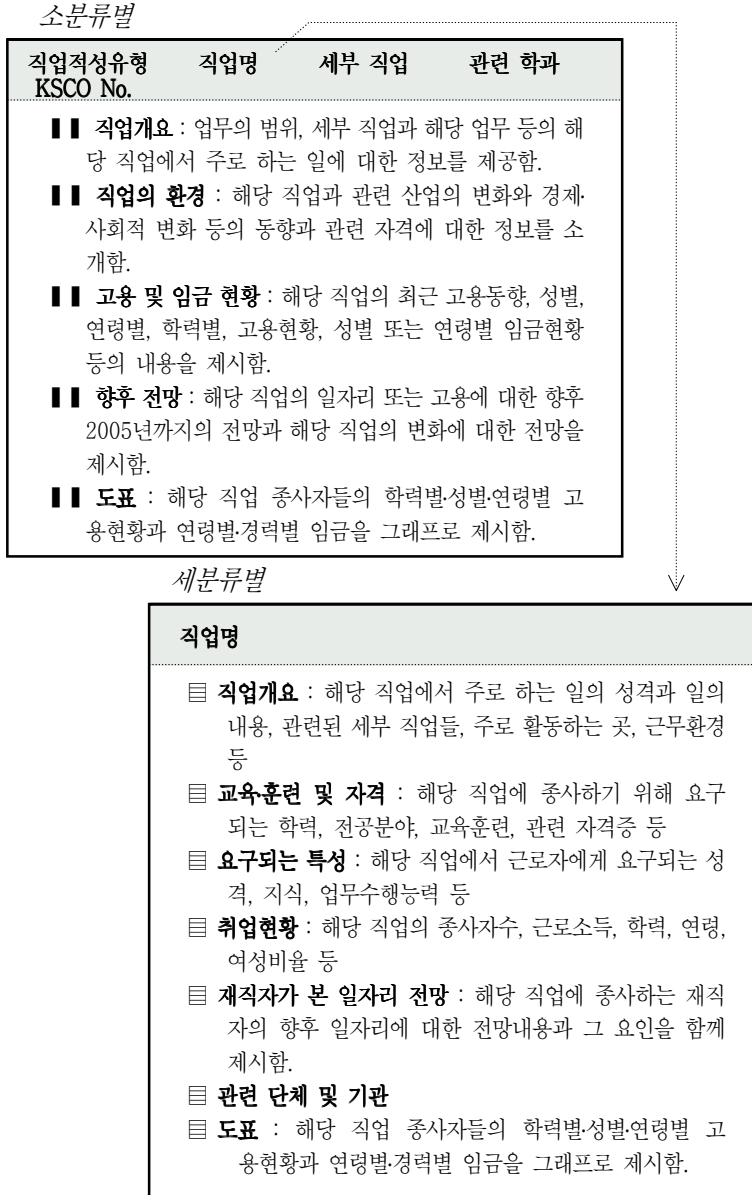
○ 데이터의 신뢰성

- 직업 전망의 경우 체계적인 전망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고용 전망에 대한 현직자의 의견을 5점 척도로 설문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일부 전문직의 경우 임금 등 노동시장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감. 산업별·직업별 조사(OES)를 통하여 전문직의 노동시장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해야 함.
- 또한 직업전망서 발간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관계로 직업 전망서는 2년마다 개정되나 핵심적 자료 가운데 하나인 KNOW 자료는 2년마다 개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의 「미래의 직업세계 2003」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은 190개(소분류 68개, 세분류 121개)의 직업이 소개된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을 발간하여 일선 학교 및 시중 서점을 통하여 배포하였음.
- 「미래의 직업세계 2003」에서는 소분류에 따른 직업별 전망과 세분류에 따른 직업별 전망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IV-5]와 같이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그림 IV-5]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의 직업별 구성체계



-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소분류에 따른 직업에 대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직업적성검사의 23개 적성유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미래의 직업세계 2003」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직업 선정의 문제
 - 전체 직업 가운데 대표 직업을 선정한 것인지, 유망성을 기준으로 유망 직업을 선정한 것인지, 선정된 190개 직업의 기준이나 선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 분류 체계의 문제
 -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이 채용한 분류 체계는 통일된 하나의 체계가 아니어서 혼란을 야기함. 직업별 소개에 선정된 총 190개의 직업은 소분류 68개, 세분류 121개이나, 이 때 소분류와 세분류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임. 소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른 것이고, 세분류는 중앙고용정보원의 WIC-OES 분류를 따른 것임.
 - 이 중 분류체계의 사용에 따라 직업편의 전체 내용이 일관성,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독자들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함.
 - 소분류는 있으나 세분류가 없는 기형적인 모습이 발견됨. 또 처음부터 소/세분류 체계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관계로 소분류에 속하는 세분류 가운데 어떤 세분류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음.
 - 소분류와 세분류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발견됨.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준전문가(소분류)가 이 소분류 소속의 직업상담원(세분류)의 학력관련 정보는 매우 상이함.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소분류)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33.8%에 불과하지만, 직업상담원(세분류)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83.9%에 이르고 있음.

▪ 정보 제시의 방법

- 직업소개는 경우 크게 텍스트 부분과 그래픽 부분으로 나누어지나, 양자의 연관관계가 불명확함.

· 「미래의 직업세계 2003」에서 정보제시는 재직자가 본 일자리 전망을 제외하고는 텍스트 부분과 그래픽 부분이 별개로 처리되어 있음. “요구되는 특성”의 경우 텍스트는 분석적 사고와 인내력 등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그래픽으로는 보다 세부적으로 직업별로 요구되는 성격, 기본지식, 업무수행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에 대한 소개를 보다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59.1%)이 높았음(진미석 외, 2003: 100).

▪ 데이터의 신뢰성

- 소분류 수준의 직업 설명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전망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의 경우 신뢰하기 어려움. 창작 및 공연예술가(p. 345)와 자연·생명공학전문가(85페이지)의 경우 “향후 고용 감소로 예상”되고 있으나 신뢰하기 어려움.

□ 각국 직업전망서의 직업정보 비교(이지연, 2001)

○ 각국 직업전망서의 발행사항 및 세부 직업별 내용구성 체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달체제 유무 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이지연(2001)은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직업전망서의 발간 목적과 내용 체계, 형식, 활용 등을 분석·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

에서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과 관련된 체제 구성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미래의 직업세계 2005」를 계획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이지연(2001)의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발간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독자의 편의성을 구조상 고려해야 함. 인쇄책자의 경우 직업별로 2쪽에 걸쳐 핵심 정보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는 색상디자인의 편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둘째, 모든 이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균형적인 내용 체제를 확립해야 함. 즉,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는 직업세계와 교육시장 정보에 대한 소개만큼이나 '개인의 커리어 관리'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개인의 진로계획 및 전환 준비를 위한 활용지침을 제시하여 「미래의 직업세계」 전체 내용의 핵심이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정보서'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함.
- 셋째, 정보의 수집, 가공, 보급에 있어서 정부-교육-노동시장간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고용정보원,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교사,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 담당자, 공공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 등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제3절 주요내용

- 『미래의 직업세계2005: 직업편』은 '미래의 직업세계-개관', '테마별 직업의 세계', '직업별 소개와 전망'으로 구성됨
 - 미래의 직업세계-개관
 -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지식을 기반으로

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결합되고 있음. 앞으로도 국내 산업의 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농림어업 관련 직업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관련 직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유망직업은 크게 6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음. 현재 우리 나라유망직업은 정보화, 세계화, 사업 서비스, 첨단과학, 문화산업, 노인 및 의료, 웰빙 열풍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소개함.

□ 테마별 직업의 세계

- 직업세계는 매우 광대하여 우리나라에만 7,800여 종(2003 직업사전, 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테마별 직업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옷, 아파트, 결혼과 같은 테마에서도 수많은 직업세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함. 구체적으로 한 학생에게 일요일 하루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생활사를 중심으로 13가지의 주요 테마를 정하고, 각 테마별로 관련 직업을 선정하여 소개함.
- 테마별 직업의 세계는 학생들의 직업정보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하여 각 테마별 직업들을 표현한 그림을 제시하고, 13개 테마별로 7개의 관련 직업들(총 91개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각 직업의 교육·훈련 정보를 제시함.

[그림 IV-6] 직업의 세계 예시1 - 강아지 관련 직업



데이지 강아지 Dog

- ❖ **애견미용사(동물미용사)**
동물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가꾸고 관리합니다. 특히 코트와 꼬리 색안경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애견미용의 시공과 정돈을 담당합니다.
- ❖ **애견동물 트레이너/이전트**
동물행동학, 심리, 교육, CP 등에 애견행동학의 전문을 필요시킵니다. 다양한 애견행동학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수의사**
동물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고 이를 위해 연구하고 처방하는 일에도 수행합니다. 주위사는 예방동물수의학, 가축, 실험동물, 수의학, 애완동물 및 외과동물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연구합니다.
- ❖ **펫시터(Pet sitter)**
애견이식별기 수치를 등록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동물이 부족한 일하는 목적에 따라 애견행동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 **애견트레이너**
애견의 행동을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애견의 행동을 학습시켜 주는 일에 애견행동학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킵니다.
- ❖ **프릿운영자**
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다양한 애견행동학 분야를 담당합니다. 애견행동학 분야의 소견을 습득하여 필요한 애견행동학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킵니다.
- ❖ **핸들러(Handler)**
애견행동학에서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애견행동학 분야를 담당합니다. 애견행동학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애견행동학 분야의 소견을 습득하여 애견행동학 분야의 소견을 습득시킵니다.

교육 관련 학과: 수의학, 애견행동학

[그림 IV-7] 직업의 세계 예시2 - 강아지 관련 직업의 교육·훈련 정보

테마별
직업의
세계

13개 테마별 관련 직업의 교육·훈련 정보

직업
강아지

애견미용사(동물미용사)

- 교육 - 훈련 및 자격
 - 애견미용사는 한국애견협회가 발행하는 애견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4단계로 기본반 18생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한국애견협회 www.kiko.or.kr

애견동물모델(애견모델)

- 교육 - 훈련 및 자격
 -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모델 등록을 많이 받고 종횡 심취 사진 등의 자료 관리를 통하여 원하는 캐스팅에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애완동물모델 에이전트 www.petmodel.co.kr

수의사

- 교육 - 훈련 및 자격
 - 수의사가 되면 수의 과학적 역원이며 시뮬레이션 수의사 국가 고사시험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응시 자격은 수의학대를 졸업한 사람 또는 농림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였거나, 외국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대한수의사회 www.kvma.or.kr
 - 한국동물영양학회 www.kafv.or.kr
 - 한국수의 과학적 역원 www.znrc.go.kr

펫시터

- 교육 - 훈련 및 자격
 - 펫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은 없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인증 자격증 중 애견종합관리사를 취득할 때 애견 생리 학습, 생리 입이치식 견습을 들르는 것부터 펫시터를 할 수 있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한국애견협회 www.kiko.or.kr

애견트레이너

- 교육 - 훈련 및 자격
 - 애견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애견 훈련사(애견)에 입소하여 학습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대략적으로 애견 훈련사(애견) 1년 정도면 3등급 자격증 시험이 도전할 수 있다.
 - 훈련사 자격증은 3단계가 있고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훈련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나, 훈련 실사위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한국애견협회 www.kiko.or.kr

코렛운전자

- 교육 - 훈련 및 자격
 - 코렛운전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애견협회의 애견종합관리사 자격증은 애견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대한애견협회 www.kiko.or.kr
 - 한국애견협회 www.kiko.or.kr
 - 한국애견협회 www.kiko.or.kr

한물러

- 교육 - 훈련 및 자격
 - 한국애견협회에서 발행하는 한물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은 3단계가 있고 기본반 18생 이상으로 관련 분야(치식) 실무 경력 1년 이상 있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단위 및 기관
 - 한국애견협회 www.kiko.or.kr

68

□ 직업별 소개와 전망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은 총 150종의 우리 나라대표 직업을 소개하고 있음. 150종의 대표 직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직업적성의 분류에 따라서 26종의 직업군으로 분류하였음.
- 직업별 소개와 전망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IV-8]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의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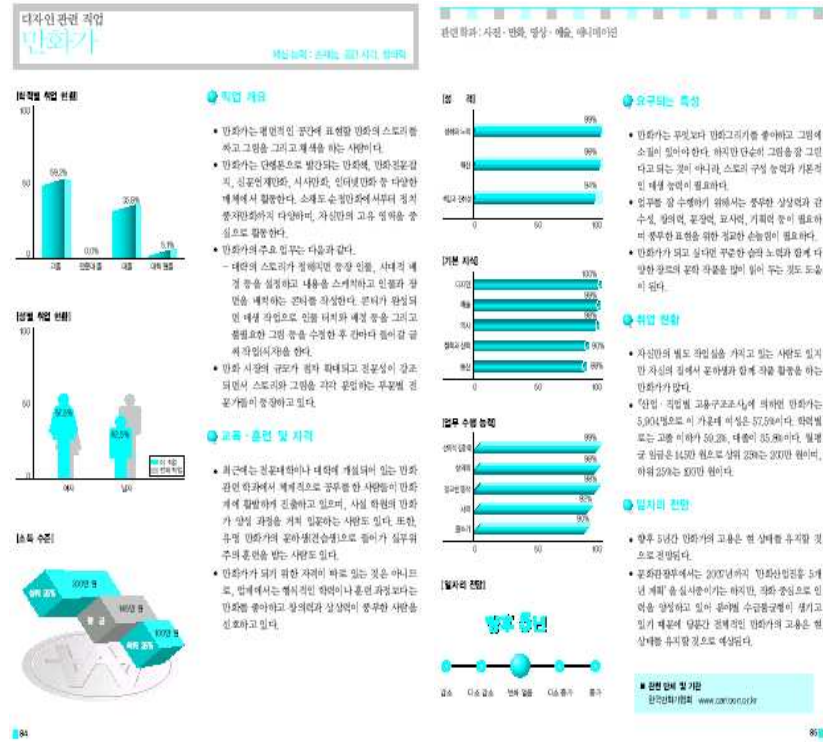
직업군	직업명	핵심 능력	유사직업//관련학과
	■ 직업 개요		
	■ 교육·훈련 및 자격		
	■ 요구되는 특성		
	■ 취업 현황		
	■ 일자리 전망		
	■ 관련 단체 및 기관		
	■ 도표		

- 직업군은 직업적성에 따라 분류할 때 이 직업이 소속되는 직업 집단을 의미함.
- 직업명은 우리 나라대표직업 150개의 명칭임.
- 핵심 능력은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말함. 26종의 직업 적성별로 핵심 능력의 종류가 서로 다름.
- 유사 직업은 직업의 내용이 본 직업명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같지만 일상 생활에서 달리 불리는 명칭임. 직업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록되었음.
- 관련 학과에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대학교 및 전문 대학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음. 학과편에 수록된 학과명은 진한

글씨체로 표시하였음.

- 직업 개요에는 해당 직업에서 주로 하는 일의 성격과 일의 내용, 관련된 세부 직업들, 주로 활동하는 곳, 근무 환경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음.
- 교육·훈련 및 자격에서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 전공 분야, 교육훈련, 관련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였음.
- 요구되는 특성에서는 해당 직업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성격, 지식, 업무 수행 능력 등의 정보를 수록하였음.
- 취업 현황에서는 해당 직업의 종사자 수, 근로 소득, 학력, 연령, 여성 비율 등의 정보를 수록하였음.
- 일자리 전망에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해당 직업의 일자리 전망이 증가, 다소 증가, 변화 없음, 다소 감소, 감소 등 5가지 가운데 하나로 표시하였음.
-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는 해당 직업에 관련된 협회, 정부 부처, 대표적인 사업체 등의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주소를 수록하였음.
- 도표는 해당 직업의 학력별·성별 고용 및 소득 현황과 해당 직업이 필요로 하는 성격, 지식, 업무 수행능력과 재직자가 본 일자리 전망 등 7개의 도표를 수록하였음. 학력별·성별 취업현황에서 0%로 표시된 경우는 본 책자발간을 위한 조사결과이며, 표집 등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IV-9] 직업의 세계 예시 3 - 만화가



제4절 책자 발간과정

- 발간 과정은 기획 분야의 13개 테마별 관련 직업 91개를 선정하고, 본문의 대표 직업 150개를 선정 후 각 직업에 대한 직업 개요, 교육훈련 및 자격, 요구되는 특성, 취업현황 및 일자리 전망 등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침.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고용, 임금 등 각종 국가 통계가 이용되었으며, 관련 조사가 실시되었음. 수집된 자료는 직업 전문가 및 해당 연구진에 의해 알기 쉽게 도표로 처리했으며, 관련 설명이 덧붙여졌음. 사용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 중앙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1-2003년.
 - 중앙고용정보원, 「KNOW 개발을 위한 재직자 조사」, 2001-2003년.
 - 중앙고용정보원, 「2005 직업전망 조사 보고서」, 2004년.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년.

□ 기획 분야의 작업 내용

- 기획 의도
 - 직업 세계는 매우 광대하여 우리나라에만 7천여 개의 직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본 기획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옷, 아파트, 결혼과 같은 테마에서 사실은 수많은 직업세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 구체적으로 한 학생이 일요일 하루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생활사를 중심으로 주요 테마를 13개로 정하고 각 테마별로 관련 직업을 선정하였음.
- 선정된 테마 및 관련 직업은 다음 <표 IV-1>과 같음.

<표 IV-1> 테마별 직업의 세계 수록 직업들

테마 명칭	관련 직업
테마 1 강아지	애견미용사(동물미용사), 애완동물 모델에이전트, 수의사, 펫시터(Pet sitter), 애견트레이너, 포켓운영자, 핸들러(Handler) [본문 관련 직업: 수의사, 애완동물미용사]
테마 2 인터넷	웹디자이너, 웹AE(웹광고기획자), 웹마스터, 웹마케터, 커뮤니티가드너, 웹콘텐츠기획자, 정보보안전문가 [본문 관련 직업: 웹개발자, 광고 및 홍보전문가,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가, 컴퓨터 보안 전문가]
테마 3 게임	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프로그래머, 게임해설가, 프로게이머, 게임기획자, 게임그래픽디자이너, 게임음악제작자 [본문 관련 직업 : 작가, 음악가, 컴퓨터게임개발자]
테마 4 결혼	커플매니저, 웨딩플래너, 플로리스트(Florist), 얼음조각가(Ice-carver) 웨딩드레스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페백진행요원 [본문 관련 직업 :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공예원, 패션디자이너,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테마 5 비행기	항공기정비사, 항공기조종사, 항공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승무원, 항공무선통신사, 항공기유도사(마살러) [본문 관련 직업 : 항공기 및 선박 정비원, 항공기조종사, 항공기객실승무원, 항공관제사]
테마 6 자동차	자동차디자이너, 자동차공학기술자, 자동차모형제작원, 자동차테스트엔지니어,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 자동차판매원, 자동차정비원 [본문 관련 직업 : 기계전자전기재료산업공학기술자, 자동차정비원, 영업원]
테마 7 호텔	호텔경영인, 호텔서비스사, 호텔고객관리원(GRO:Guest Relations Officer), 카지노딜러, 조리사, 소믈리에(Sommelier), 바텐더 [본문 관련 직업 : 호텔지배인, 조리사, 바텐더,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가]
테마 8 놀이공원	테마파크 디자이너, 이벤트기획자, 놀이공원 무용단, 무대의상디자이너, 동물조련사, 화훼작물재배원, 아쿠아리스트 [본문 관련 직업 : 행사기획자, 조경사, 도시계획가, 건축공학기술자, 임업인, 의상디자이너]
테마 9 축구	축구감독, 스포츠에이전트, 치어리더, 스포츠해설자, 심판, 팀닥터, 축구선수 [본문 관련 직업 : 운동경기 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의사, 물리치료사]
테마 10 영화	영화감독, 세트 디자이너, 무술감독, 스탠트맨, 촬영감독, 음향기사, 배우 [본문 관련 직업 : 연출가, 인테리어디자이너,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사, 연기자]
테마 11 옷	킬리리스트, 모델리스트, 패션에디터, 컨버터(Converter, 소재디자이너), VMD(Visual Merchandiser, 디스플레이어), 샵마스터, 재봉원 [본문 관련 직업 : 상품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패션디자이너]
테마 12 아파트	건축설계사(건축가), 측량기술자, 제도사(캐드원), 감리원, 크레인운전원, 건설 관련 기능직, 실내장식디자이너 [본문 관련 직업 : 건축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컴퓨터제도사, 지적 및 측량기술자, 건물설비관리원, 건설기계운전원]
테마 13 책	출판편집자, 북디자이너, 작가, 교정원, 출판기획자, 카피라이터, 북마케터 [본문 관련 직업 : 출판물기획전문가, 제품디자이너, 작가]

□ 대표 직업 관련 작업 내용

○ 대표 직업의 선정

- 각 분야별 150여개 직업.
-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고용직업분류(OES) 세분류 384개 직업을 중심으로 재분류.
- OES 분류를 기준으로 조사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 종사자수 2,000명이상인 직업을 우선 고려.
- OES 수록직업을 충실히 반영하되, OES에서 누락된 직업, 혹은 종사자수가 적은 직업 중 청소년,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직업은 Tip 등의 정보를 통해 제공.
- 정보통신 관련 직업, 기획 관련 직업 등은 청소년, 일반인의 관심을 고려하여 세분.
- 제조 관련 직업, 기계조작 및 장치조작원 등은 직무의 유사성, skill 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수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분류에 따라 분류별 대표 직업은 우선적으로 채택.

○ 직업분류 방식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의 대표 직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적성분류에 따라 정보가 제공됨.
- 직업적성에 따른 직업분류는 직업별로 관련 능력이 명시되는 관계로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준비해야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잇점이 있음.
- 특히 직업적성검사와 직업편, 학과편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음.

○ 대표 직업의 정보 수집 및 정리

-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및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OES)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지식, 능력, 기술)과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 등을 최신화하고 도식화함.
- 관련 학과 정보, 관련 정보처, 관련 적성·흥미 등 세부 직업별 직업 설명 내용을 기술함.
- 직업의 개요, 교육·훈련 정보 등 직업에 관한 설명 수준을 표준화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춤.

○ 대표 직업은 다음 <표 IV-2>와 같이 26종의 직업군, 150개 직업이 수록 됨

<표 IV-2>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수록 직업

직업군명	핵심 능력	관련 직업
디자인 관련 직업	손재능, 공간 시각, 창의력	미술가, 만화가, 애니메이터, 제품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이용사 및 미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애완동물미용사, 공예원
사진 관련 직업	공간 시각, 창의력, 자기 성찰	사진가,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사
각종 작가 관련 직업	창의력, 언어	작가
음악 관련 직업	음악, 창의력	음악가, 대중가수
악기 관련 직업	손재능, 음악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무용 관련 직업	신체 운동, 공간 시각, 음악, 창의력	무용가
운동 및 보안 관련 직업	신체 운동, 자기 성찰, 대인	운동경기 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경호원,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정비 관련 직업	신체 운동, 대인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자동차정비원
특수운전 직업	신체 운동, 공간 시각, 수리 능력	항해사 및 기관사, 항공기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건설기계운전원
대중교통운전 직업	신체 운동, 공간 시각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조리 및 의복 제조 관련 직업	손재능, 대인	조리사, 제과제빵사, 전통음식제조원, 식품공학기술자
제도 및 정밀 제조 관련 직업	손재능, 공간 시각	지적 및 측량 기술자, 귀금속 가공원 및 보석세공원, 치과기공사, 컴퓨터제도사, 금형원
법조인	창의력, 언어, 수리 능력, 자기 성찰, 대인	판사 및 검사, 변호사
기획 전문 직업	공간 시각, 창의력, 언어, 수리 능력, 대인	광고 및 홍보전문가, 행사기획가, 출판물기획전문가, 여행상품기획가, 학예사, 연출자
투자 및 분석 전문 직업	창의력, 언어, 수리 능력, 대인	경영컨설턴트, 펀드매니저, 증권중개인, 보험계리사, 마케팅 및 여론조사전문가
회계 관련 직업	언어, 수리 능력	회계사, 감정평가사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 직업	창의력, 언어, 수리 능력	인문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언어 및 수리 능력요구 직업	언어, (수리능력)	번역가, 통역가, 기자, 아나운서 및 쇼팽호스트, 번역사, 세무사, 관세사, 입상병리사, 손해사정사
대인 전문직 및 서비스 직업	언어, 대인, 자기 성찰	호텔지배인, 비서,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성직자, 여행안내원, 항공기객실승무원, 상품판매원 및 상품대어원, 홍보관측원 및 홍보도우미,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사서
전문 서비스 직업	언어, 대인	일반 공무원, 노무사, 물류관리전문가, 법무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안경사, 방사선사, 수의사, 연기자, 연예인매니저, 국악인, 영업원, 상품중개인, 부동산중개인, 텔레마케터, 바텐더
교직	언어, 자기 성찰, (수리능력)	중고등학교 교사, 특수교사, 대학교수
의료 관련 직업	손재능, 언어, 수리 능력, 대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기술 및 이학 전문 직업	수리 능력, 공간 시각, 창의력	기계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재료공학기술자, 화학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산업공학기술자, 자연과학연구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운영관리자, 컴퓨터보안전문가, IT컨설턴트, 전자상거래전문가, 가전제품수리원, 방송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컴퓨터게임개발자
환경·생명 관련 연구직 및 기술직	창의력, 수리 능력, 자연 친화	도시계획가, 환경공학기술자, 조경기술자, 생명과학연구원
건축 및 설비 관련 직업	공간 시각, 대인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융접원, 문화재보존원, 건물설비관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공작기계조작원
농림축어업 관련 직업	수리 능력, 자연 친화, 신체 운동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어업인

- 「미래의 직업세계 2003」 과 비교하여 2005에 추가제외된 직업은 다음 <표 IV-3>과 같음.

<표 IV-3> 미래의 직업세계 2003과 비교하여 2005에 추가-제외된 직업들

구분	추가된 직업	제외된 직업
1	인테리어디자이너	구매인(바이어)
2	사진가	대학교육 조교 및 초중등학교 보조교사
3	대중가수	목공
4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화학 및 금속공학 전문가
5	무용가	
6	경비원	
7	철도 및 전동차 정비원	
8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원	
9	식품공학기술자	
10	지적 및 측량 기술자	
11	금형원	
12	변호사	
13	보험계리사	
14	손해사정사	
15	아나운서 및 리포터(쇼핑호스트 포함)	
16	결혼상담원(웨딩플래너 포함)	
17	직업군인	
18	임상심리사	
19	치과위생사	
20	전통예능인	
21	변리사	
22	관세사	
23	항공판제사	
24	재료공학기술자	
25	화학공학기술자	
26	섬유공학기술자	
27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28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29	컴퓨터보안전문가	
30	IT컨설턴트	
31	전자상거래전문가	
32	방송 및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33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도 함께 언급)	
34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 「미래의 직업세계 2003」 은 세분류 직업을 기준으로 함.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의 작성 지침은 다음 <표 IV-4>와 같음. 직업별 서술방식은 통일하여 책자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연구진에 주지시키고 그 내용을 확인함.

<표 IV-4>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 작성 지침

항목	형식	비고
1. 직업개요 (5-6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정의: ~사람이다.(2-3줄) · 주요업무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1(2-3줄) - 업무2(2-3줄) - 업무3(2-3줄) · 직업상 혹은 업무상 특성(3-4줄): (가령, 수년간의 숙련이 요구 된다/ 이동이 잦다, 출퇴근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1, 2만 기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담당 업무가 많을 경우 * 업무 1, 2, 3을 모두 기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담당 업무가 많을 경우 ② 직업별로 세부 직업이 나누어질 때, 각각 세부 직업별로 담당 업무 기입 (가령, 목공은 건축목공, 형틀목공, 한식목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우 목공별로 1, 2, 3에 기입)
2. 교육훈련 (2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훈련 기관(3-4줄): 특정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곳 제시 · 자격증 및 자격(3-4줄): 관련 자격증 제시, 전공이나 외국어 등 취업시 유리한 점 제시 	
3. 요구되는 특성(2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되는 성격(2-3줄): 요구되는 성격 및 업무에 임하는 태도 제시 (가령, 꼼꼼함, 치밀함/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등) · 요구되는 기본 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2-3줄): 요구되는 특정 지식 및 능력을 제시 (가령, 경제 등에 대한 지식/ 정교한 손동작 등) 	
4. 취업현황 (2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취업하는 곳(2-3줄): 주로 취업하는 곳 · 종사자의 특징(2-3줄): 학력, 성비, 소득 수준 등 	
5. 일자리전망 (3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수요의 증감 여부 전망(1-2줄): ~할 것이다. ~할 전망이다. ~할 것으로 보인다. · 증감 원인 1(2-3줄) · 증감 원인 2(2-3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감 원인이 적을 경우 증감 원인 1만 기입
6.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관 및 단체명과 홈페이지 주소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전화번호를 기입

제5절 활용방안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은 학생들에게 장래 진로·직업설계를 위하여 적성에 따른 직업, 노동시장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돕는 학부모, 교사 그리고 상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직업설계 및 개발 (Career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은 적성에 따른 26개 직업분류에 따라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며, 직업과 관련 학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각 직업의 관련 학과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중·고교 학생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직업경로(Career Path)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결정하도록 지원하며, 기존의 직업인이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학습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음.
 -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학생
 -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모
 - 진로상담교사 및 직업상담사
 - 실업자 또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 직업을 바꾸거나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근로자
 - 교육·노동·인력 등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적성 및 흥미에 따른 자기 평가
 - 첫째 단계는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는 과정임. 개인은 자신의 적성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어떤 직

업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은 이러한 적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적성검사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직업군이 26종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사하면 바로 검사결과를 볼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적성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종합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

- 진로지도 종합정보망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에서 직업적성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에 회원 등록 및 로그인 후 심리검사를 클릭하면 직업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10개 적성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적성에 따라 26종의 유형으로 해당 직업들이 제시됨. 만약, 자신에게 해당하는 적성이 '손재능', '공간 시각', '창의력' 이면, '디자인 관련직' 직업군에 제시된 직업을 찾아가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음.

- 2단계 :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 및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

- 둘째 단계는 전반적인 직업세계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계임.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직업세계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생성·변화·소멸되고 있음. 세계화·지식 정보화로 인해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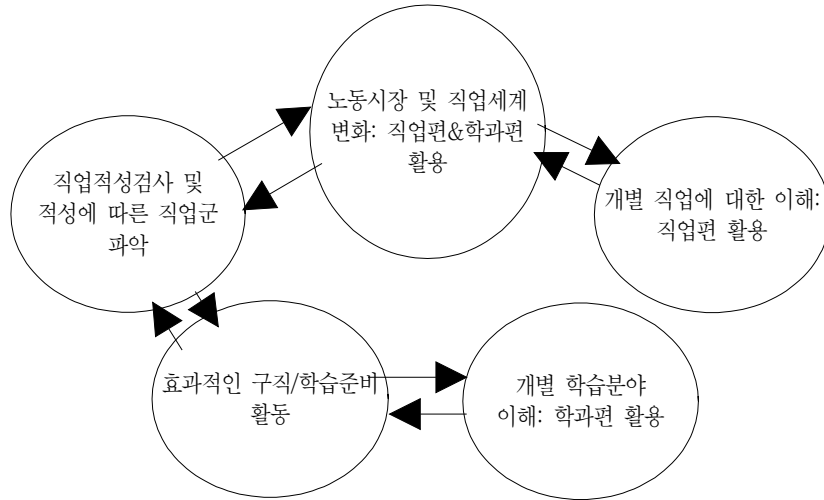
보 관련 산업 또는 직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2005: 직업편』은 직업세계 및 교육환경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업편에 직업세계의 변화와 전망을 싣고 있음.

- 3단계 : 직업에 대한 이해

- 셋째 단계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임. 직업을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적성검사에 제시된 자신의 적성 유형에 따라 해당 직업에 대한 직업 개요, 임금 및 고용현황, 요구되는 학력 및 자격,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전망 등의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임. 다른 하나는 직업세계의 변화 동향을 이해한 다음 관심이 있는 직업을 직접 찾아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임.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에서 자신의 적성 유형에 해당하는 직업을 찾으려 함. 직업명은 왼쪽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직업의 해당 적성은 왼쪽에 제시되어 있음. 직업의 직무내용, 임금 및 고용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음.
-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특정 직업과 관련된 전공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업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학과명이 제시되어 있어 학과편에 수록된 학과로 찾아가 구체적인 학과 정보를 알아볼 수 있음.

[그림 IV-10] 「미래의 직업세계 2005」의 활용방법



- 4단계 : 학과에 대한 이해

- 넷째 단계는 앞으로의 진로 또는 직업에 요구되는 학습 기회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세한 교육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임. 학과편에서는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의 총 141개의 학과의 교육 목표, 주요 교육내용과 주요 진출 분야, 직장 형태, 연봉 수준 등 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탐색할 수 있음.
- 학과편에서 학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과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제시된 직업명을 이용하여 직업편에 수록되어 있는 직업으로 찾아갈 수 있음.

제 5 장 학과편 콘텐츠 개발 사업¹⁶⁾

제1절 사업의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산업기술의 혁신에 따른 지식정보화 사회는 완전고용시대에서 고실업 사회로의 이행,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기업의 고용관행을 변화시켰으며 평생직장으로부터 평생직업 사회로 전환시켰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지식기반 산업의 확대에 따라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요청되고 있음.
- 그 동안 「중·장기 교육시장 전망연구 : 2002~2011 전문대·대학 졸업생 규모 전망」(김현철 외, 2001), 「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실태 조사 연구」(김형만 외, 2001), 「학과(전공) 분석 및 학과(전공)분류 체계 연구」(김창환 외, 2001), 「재학생 희망직업조사」(진미석 외, 2002),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김형만 외, 2002),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 조

16) '학과편 콘텐츠 개발사업'은 이영대윤형환이 주관하였음.

사」(김형만 외, 2003),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진미석 외, 2003)를 수행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교육시장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미래의 직업세계 2003(학과편)」을 개발한 바 있음.

- 노동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교육수요자가 스스로 장래의 직업선택과 교육, 훈련 등의 진로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교육수요자들에게 학과에 대한 최신의 심층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목적

- 이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수요자들에게 교육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에 실시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를 기초로 「미래의 직업세계 2005」의 「학과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음.

□ 사업의 내용

- 2003년도에 실시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조사 결과에서 졸업자 중 취업자 수(전체 및 성별 취업률), 주요 취업 분야, 직장형태, 연봉수준, 전공-직무 관계(직무만족도, 직무유용성, 학력일치도), 학과 전망 등의 내용을 추출하여 반영하는 것임.(해당 학과의 졸업자는 2004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성별 비율을 산출하여 포함하였음.)
- 2003년도에 실시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조사 결과에서 학과전망을 추출하여 반영하는 것임.

□ 사업 추진 내용별 절차

- 「미래의 직업세계 2005」의 「학과편」 콘텐츠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은 <표 V-1>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음.

<표 V-1> 사업 추진 방법

과정	내용	방법
I 단계	·관련 자료의 수집, 자료 검토	·관련 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대학의 학과/전공을 소개하는 자료, 커리어넷의 학과정보를 수집함. ·수집된 자료에서 계열분류체계, 구성 내용 요소 등을 비교 검토함.
II 단계	·수목학과 1차 선정 ·학과소개 구성 내용 요소 결정	·학과편에 수록될 학과를 1차로 선정하고 본문과 그래프에 포함할 구성 내용을 선정함.
III 단계	·조사 데이터 정리 ·수목학과 최종 확정	·2003년 조사(졸업생, 재학생)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고 1차 선정 학과별로 정리함. ·정리된 데이터를 기초로 1차 분석을 통해 결측치, 극단치를 검토하여 수록 학과를 최종 결정함.
IV 단계	·2003년 조사 데이터 심층분석	·학과별로 본문과 그래프 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분석 결과 산출 : 취업분야, 취업률(전체 및 성별), 직장 형태, 연봉 수준, 전공과 직무(직무만족도, 직무유용성, 학력일치도), 학과전망
V 단계	·본문 초안 작성 ·기획편/토막정보 초안 작성	·관련 자료, 조사결과 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최종 선정 학과별로 구성 항목의 요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함. ·기획편 내용, 이용자에게 학과선택을 위한 팁 토막정보 작성.
VI 단계	·외부 전문가 검토 ·직업편과의 연계 작업	·학과별 외부전문가(교수, 강사)에게 작성된 초안 검토 의뢰 및 검토 회의 개최 ·학과편과 직업편의 연계를 위해 학과별 관련직업 정선 작업.
VII 단계	·원고 최종 완성 및 윤문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학과편 책자의 원고를 최종 완성하여 내용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 윤문을 실시함. ·수정된 최종원고 인쇄.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교생의 졸업 후 진로와 학과(전공)에 대한 인식 정도

- 200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자 590,414명 중 약 79.7%에 해당하는 470,703명이 전문대학 및 대학교로 대별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우 90.2%가, 실업계고 졸업자의 57.6%가 해당됨. 반면, 취업을 한 경우는 전체 13.4%로 실업고가 38.1%, 일반고가 2.4%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V-2>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

구분	전체	일반계고	실업계고
진학	470,703 (79.7)	361,468 (90.2)	109,234 (57.6)
취업	79,121 (13.4)	6,909 (1.7)	72,212 (38.1)
무직	13,780 (2.3)	9,475 (2.4)	4,305 (2.3)
입대	367 (0.1)	116 (0.0)	251 (0.1)
미상	26,443 (4.5)	22,935 (5.7)	3,508 (1.9)
졸업자	590,414 (100.0)	400,903 (100.0)	189,510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통계연보.

- 2003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재학 당시 82.8%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했고 실제 진학한 경우는 79.7%로 나타났음. 실업계 고교 졸업생보다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들에게서 진학을 희망했지만 진학하지 못한 비율이 많은 편임. 아울러 일반계 고교 졸업생들의 75.2%는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14.5%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57.7%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21.8%가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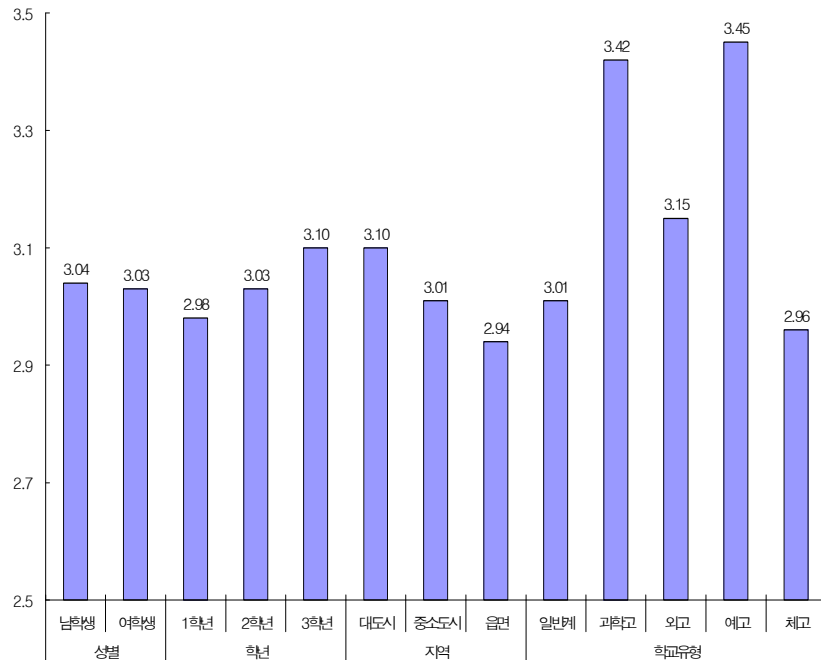
<표 V-3>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상황

구분	졸업자수	진학희망자	합계	진학자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각종학교
일반계	400,903 (100.0)	381,045 (95.0)	361,468 (90.2)	58,331 (14.5)	3,291 (0.8)	298,207 (74.4)	1,639 (0.4)
실업계	189,510 (100.0)	107,972 (57.0)	109,234 (57.6)	70,334 (37.1)	116 (0.1)	37,956 (20.0)	828 (0.4)
전체	590,413 (100.0)	489,017 (82.8)	470,702 (79.7)	128,665 (21.8)	3,407 (0.6)	336,163 (56.9)	2,467 (0.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통계연보.

- 한상근 외(2001)는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에서 고교생들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전공)에 대해 약 3.04점(5점 만점)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음. 3학년(3.10점), 2학년(3.03점), 1학년(2.9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 학과(전공)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가 높았음. 3학년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학과정보에 대해 유사한 수준에서 알고 있었고, 2학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학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V-1] 참조).

[그림 V-1] 고등학생의 학과 정보에 대한 인지도



자료: 한상근 외(2001).

- 진미석 외(2002)는 고교생들의 희망학과(계열)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음.¹⁷⁾ <표 V-4>에서와 같이,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학과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한상근 외(2001)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고교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 중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학과정보에 비해 다소 아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학과정보에 비해 다소 낮

17) 이 조사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생, 과학고등학생, 외국어고등학생, 예술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여기에서의 분석은 이중 일반계 고등학생에 국한한 것임.

있음.

<표 V-4> 고교생들의 희망학과(계열)에 대한 정보 인식 정도

항목	학년	N	M	SD	F	p
졸업 후 할 수 있는 내용	1	1,800	3.5	.90	11.158	.000
	2	1,883	3.5	.88		
	3	1,233	3.7	.88		
	전체	4,916	3.6	.89		
희망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1	1,798	3.1	.87	6.623	.001
	2	1,883	3.0	.84		
	3	1,234	3.1	.89		
	전체	4,915	3.1	.87		
요구되는 수능점수와 내신	1	1,798	3.1	1.02	89.866	.000
	2	1,886	3.2	1.00		
	3	1,232	3.5	.93		
	전체	4,916	3.2	1.01		
요구되는 소질과 적성	1	1,792	3.5	.88	24.900	.000
	2	1,885	3.3	.87		
	3	1,232	3.5	.88		
	전체	4,909	3.4	.88		

주: 5점 만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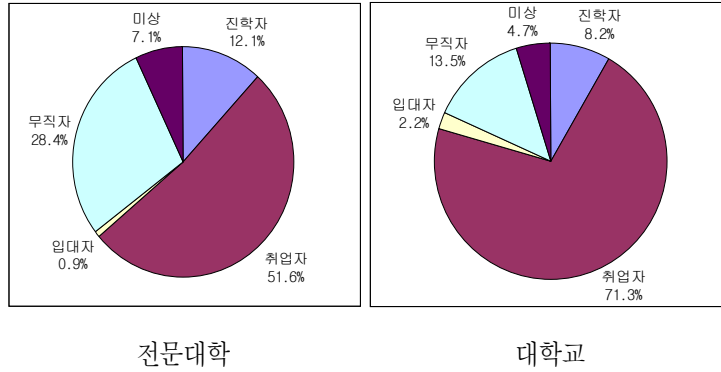
- 임언 등(2003)은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대학 및 전공을 미리 선정하여 이에 맞추어 진로를 준비할 것이 강조되는 상황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갖지 못한 채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에 기초하여 진학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
-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은 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전보다는 진로와 진학할 대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인식해야 상황이나, 정확하고 상세한 교육시장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

에게 생생한 상급학교의 학과(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대학생의 가변적인 진로 및 졸업 후 전공-직업의 일치도

- 고등학교에서 진로계획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대학에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IMF 이후 대학생들의 휴학, 복학, 제적, 복적, 편입, 전출 등 학적 변동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임. 2002년의 경우 전문대학 재학생 중 중도탈락률은 24.7%, 대학교의 경우는 25.2%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생 4명 중 1명은 대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임.
- 전문대학 및 대학교를 졸업하고 편입학, 재입학,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졸업자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2003학년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의 진로는 [그림 V-2]에서와 같이, 전문대학 졸업자(246,789명)의 경우 취업자가 71.3%, 편입학이나 진학이 8.2%(20,328명)인 반면, 대학교 졸업자(258,126명)의 경우 취업자 51.6%, 진학자 12.1%(31,186명)로 나타나고 있음.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504,915명 중 편입학, 재입학,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약 10.2%인 51,514명에 이르고 있음.

[그림 V-2] 대학 졸업자의 진로 상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통계연보.

- 한편, 우리 나라대학 졸업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일치성이 낮은 직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40%대,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30%대가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성은 IMF 이전인 1996년과 비교해 볼 때 2000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임.

<표 V-5> 학교 졸업생의 전공-직업 일치도

(단위: %)

구분	1996				2000			
	일치	보통	불일치	합계	일치	보통	불일치	합계
실업계고	26.1	23.1	50.8	100.0	17.4	25.9	56.6	100.0
전문대학	39.7	18.4	42.0	100.0	35.8	21.5	42.7	100.0
대학이상	48.8	19.7	31.6	100.0	45.3	21.6	33.0	100.0
전체	35.7	21.3	43.1	100.0	29.3	23.8	46.9	100.0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 상당수가 진학한 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공에 관련된 직업 준비를 못하는 것으로 여겨짐. 대학생들은 자신의 학과(전공)에 대해 교(강)수, 조교, 선배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여타의 학과(전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주관적인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대학의 다양한 학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시장의 실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정보에 대한 만족도

-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정보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음. 관심 학과 찾기가 용이하다는 의견이 71.4%로 나타났고, 다소 어렵다는 이유로는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찾고자 하는 학과가 없다는 견해도 나타났음.
- 교육환경의 변화와 설명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에서의 학과 변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학과선택, 향후 학과전망의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 및 취업담당자의 73%가 유용하다고 보고하였음. 다만 좀 더 상세하게 진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았고, 적절하다는 의견, 더 간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각각 29.3%로 나타난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음.
- 교사/취업지도자와 학생들은 공히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편의 도표와 설명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매우 높게 응답하고 있었는데 가장 유용한 정보로는 주요취업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취업률, 전공과 직무도 약간 높게 응답하였음. 그러나 직장형태, 연봉수준, 학과전망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고 있었음. 설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자의 진로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표와는 달리 설

명에서는 적성 및 흥미,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학과정보에 대하여 교사/취업담당자와 학생 공히 매우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반면, 학생들은 장기적인 진로경로, 전공설치 대표학교, 전공 졸업자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V-6>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편」에 대한 만족도

구분	항목	교사 및 대학 진로지도 담당자	학생
학과편 안내	일러두기에 대한 필요성	·포함되어야 함(53.2%)	
	일러두기의 이해도	·이해하기 쉬움(55.6%)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의 유용성	·유용함(73%)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개정 방향	·더 상세하게(41.4%)	
	관심 학과 정보 검색의 용이성	·용이함(71.4%)	
	표준직업분류 코드 이해 정도	·모름(60.3%)	
학과편 도표 및 설명 의 유용성 비교	도표와 설명의 유용성 비교 (32-33쪽)	·둘 다 유용함(67.8%)	·둘 다 유용함 (50.4%)
	도표 중 가장 유용한 정보	·주요취업분야 (50%) ·취업률 (16.1%) ·전공과 직무 (12.9%)	·주요취업분야 (28.5%) ·취업률 (20.6%) ·전공과 직무 (13.4%)
	설명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정보	·취업과 진로(62.9%) ·적성 및 흥미(16.1%)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전망 (11.3%)	·취업과 진로(60.6%) ·적성 및 흥미 (15.4%)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전망 (12.9%)
학과 정보의 신뢰성	학과 정보의 신뢰성	·신뢰함 (98.4%)	·신뢰함 (84%)
	학과 설명 상세함의 정도	·더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61.3%)	·더 자세하게 제시될 필요 (55.9%)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정보		·장기적 진로경로(49%) ·전공이 설치된 대표학교 (28.5%) ·전공졸업자의 사례(21%)
	직업편과 학과편 중 더 유용한 정보	·둘 다 유용 (45.9%) ·직업편 (42.6%) ·학과편 (9.8%)	·직업편 (44.9%) ·둘 다 유용 (32.4%) ·학과편 (20.9%)

출처 : 임언 외(2003).

제3절 주요 내용

-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은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개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학과별 소개와 전망으로 구성하였음.

□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가량이 전문대학, 대학교로 진학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미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음.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 수의 추이, 학생 수의 추이 학교에서 졸업한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과 내용 등 학교를 둘러싼 교육의 환경 변화를 개관하였음.

□ 학과별 소개와 전망

- 학과별 소개와 전망에서는 전문대학 56개, 대학 85개 등 총 141개 학과의 소개와 향후 전망을 수록하였음.
- 학과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학과(전공)분류체계」에 따르되, 일부 학과 명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음.
- 학과별 소개와 전망은 학과 개요, 주요 교육내용, 적성과 흥미, 취업과 진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본 학과 전망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도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V-3] 학과별 소개와 전망의 구성

학과명	대학유형	관련직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개요 ■ 주요 교육 내용 ■ 적성 및 흥미 ■ 취업과 진로 ■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 전망 ■ 도표 		

- 「학과명」은 ‘학과분류체계의 소분류’에서의 해당 학과명을 사용하였음. 해당 학과명에 대한 원칙적인 명칭은 “분야”가 적절함. 예를 들어, 수록된 학과에서 “국어·국문학과”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통용되어 인지도가 있는 명칭이나 “영미어·문학과”의 경우는 독자들은 “영어영문학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몰라 혼란을 줄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혼란은 본문 “학과 개요”에서 관련학과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학과명칭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대학유형」은 해당 학과가 대학교와 전문대학 중 어느 유형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제시하였음.
- 「관련 직업명」은 해당 학과를 졸업하여 진출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업이며, 이 명칭을 통해 독자들은 직업편에 제시된 해당 직업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적성 및 흥미」는 해당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적성과 흥미, 요구되는 자질 등을 수록하였음.
- 「학과 개요」는 학과 개설의 목적, 연구 분야, 인력양성의 목적, 세부 관련 학과를 수록하였음.
- 「주요 교육내용」은 「학과 개요」에 따라 진행되는 주요 교과목의 내용과 범위 등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수록하였음.
- 「취업 및 진로」는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진출하는 주요 분야,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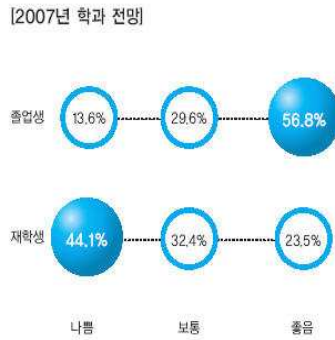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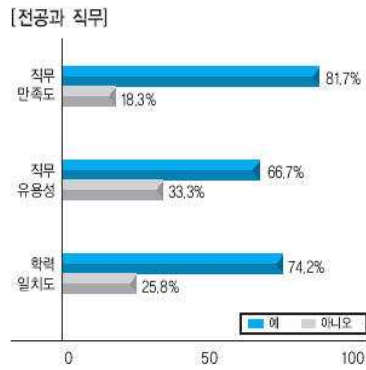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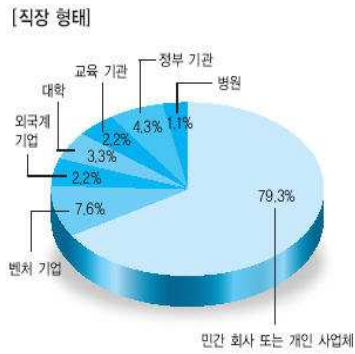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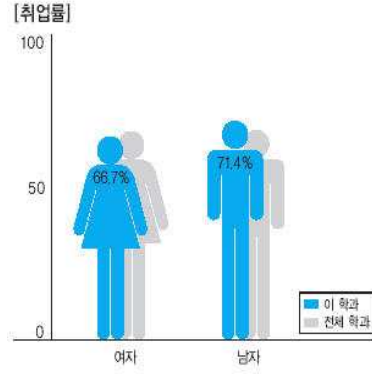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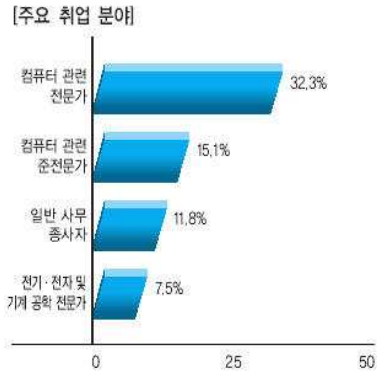
기준으로 전국의 학과에서 배출된 인력의 수, 성별 구성비 등이 수록되어 있음. 아울러 배출된 학생들의 취업률, 취업 분야, 2002년 졸업자들이 1년 6개월 후에 받는 연봉 수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재학생과 졸업생이 본 학과 전망」은 해당 학과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느끼는 향후 전망치임. 이 전망에는 해당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취업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 후의 학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임. 2003년도 졸업생 및 재학생 조사에서 일부의 학과는 재학생에 대한 전망치가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례수의 빈약성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누락된 것임.

□ 학과별 소개와 전망

- 학과편 본문에서 학과별 소개와 전망은 학문의 배경과 학문 분야 설명, 관련학과를 설명하는 ‘학과개요’, 개괄적인 교과과정 및 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세부 교과목으로 구성된 ‘주요 교육내용’,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 필요한 소질 및 적합한 성격, 선택 동기 등을 포함하는 ‘적성 및 흥미’가 있음. 진출분야, 성별에 따른 졸업생 수, 취업률, 초임 평균연봉(졸업 후 1년 6개월), 전공과 직무 만족 관계(직무만족도, 직무유용성, 학력 일치도) 등이 포함된 ‘취업과 진로’, 2007년 학과에 대한 졸업생 및 재학생의 전망 내용이 포함된 ‘학과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V-4] 학과편 도표(예시)



- 학과별 소개와 전망 부분에서는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특정 학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제시하였음.
- 「주요 취업 분야」는 2003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2003년 9월에 실시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조사」의 결과로서 한국표준 직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해당학과 졸업생이 취업한 직업이 많은 6개 이내를 분석하여 도표화하였음.
- 「취업률」은 2002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2003년 9월에 실시한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조사」의 결과로서 조사 응답 졸업자 중 경제활동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기업체나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람¹⁸⁾의 비율, 즉 고용률을 의미함. 취업률은 성별로 구분하여 대학유형별 졸업자의 성별 전체 취업률과 학과별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을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전체 취업률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해당 학과의 취업률과 비교 용이하도록 하였음)
- 「직장 형태」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조사」의 결과로서 취업자 중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외국인기업, 학교, 병원, 공공부문 등 13개 부문¹⁹⁾으로 구성하였음.
- 「연봉수준 : 2002년도 졸업생」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조사」의 결과로서 2002년 2월 해당 학과의 졸업생이 조사시점(2003년 9월)에 취업하여 받는 연봉 수준을 의미함. 오른쪽에는 해당 학과의 평균 연봉 수준을, 그리고 왼쪽에 있는 대학유형별 전체 연봉 수준을 제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는 대학유형별(전문대학, 대학교) 전체 연봉 수준보다 연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

18) 고용률은 진학자 등 비경제활동가지를 모수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제반적으로 취업률을 지나치게 낮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순수취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함으로써 취업상황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19)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유형으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민간기업연구소,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교육기관(초/중/고 등),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재단/사단)법인단체, 병원, 프리랜서, 종교단체가 해당됨.

대의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전공과 직무」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조사」에서 현재의 직장(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직무만족도’,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는 ‘직무유용성’,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직장(일)의 내용이 본인의 학력수준에 비해 어떠한가에 대한 ‘학력일치도’로 구성하였음. 직무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직무유용성은 ‘전혀 도움이 안 됨’, ‘다소 도움이 안 됨’, ‘다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학력일치도는 ‘매우 쉬움’, ‘다소 쉬움’,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긍정(예)과 부정(아니오)로 양분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음.
-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 전망」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조사」,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조사」에서 취업과 학문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전공학과가 향후 3년간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나쁨, 보통, 좋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그래프화하였고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전망 항목을 강조하여 제시하였음.
- 한편, 「관련 직업」은 해당 학과에서 진출한 가능한 또는 진출한 세부 직업으로서 직업편과의 연계를 위해 해당 직업명을 직업편에서, 직업편에서는 관련학과 항목을 통해 학과편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본문의 상단에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였음.

□ 찾아보기

- 찾아보기에서는 본문에 수록된 학과를 대학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여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제4절 책자 발간과정

□ 단계적 개발 절차

- 수록학과 1차 선정 및 학과소개 구성 내용 요소를 먼저 결정하였고, 조사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최종 수록학과를 확정하였음. 이를 기초로 2003년 졸업생 및 재학생 조사 데이터를 심층분석하였고, 학과소개 본문과 기획편 및 토막정보를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 58명으로부터 학과 원고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직업편과의 연계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학과편 콘텐츠를 개발하였음.

□ I 단계

- 여기에서는 노동부 중앙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미래의 직업세계 2003 학과편, 커리어넷 학과정보DB)에서 대학 학과/전공 소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였고 학과분류를 분석하였음.
- 주요 학과정보 자료 내용 검토
 - 여기에서는 중앙고용정보원의 학과정보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과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보았음. 공통적으로 학과의 계열로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의 7개로 구분하고 있음.
 - 책자의 사양이나 내용 등 기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V-7>과 같이 비슷하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의 경우 취업 현황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짐.

<표 V-7> 주요 학과정보 자료 비교

구분	미래의 직업세계 2003(학과편)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과정보 2004 (중앙고용정보원)
발간시기	2002. 12	2003. 11
일러두기	유	유
	·교육환경의 변화와 전망	·후회없는 학과선택을 위한 길잡이 ·나에게 맞는 계열학과 찾기
계열	7	7
	115개 학과 (전 41, 대 56, 대학원 18)	170개 학과
내용	·학과개요	·학문적인 영역
	·주요교육내용	·세부적인 공부내용
	·적성 및 흥미	·주요 교과목
	·자격	·개설대학
	·진출분야	·필요한 적성과 흥미
	·주요 취업분야	·취득가능자격
	·취업률	·진출분야와 직업
	·직장형태	·취업현황
	·연봉수준	
	·전공과 직무에 대한 의견	
	·졸업생이 본 학과 전망	
·재학생이 본 학과전망		
TIPS	·취업을 위한 9가지 준비전략	·부동산학과 인터뷰
	·커리어넷 학과정보 ·커리어넷 학교정보 ·국가전략분야 인력 양성 ·대학 이공계열 우수학생장학금 지원	·진로고민빠를수록 좋다 ·미래는 학과선택에서 시작된다 ·이색학과 : 장례학과
부록	·국가 인적자원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대학
	·찾아보기	·2003 학과(전공) 분류 (KEDI) ·색인
사이즈, 분량	46배판(18.7×25.7), 283쪽	변형46배판(17.5×23), 601쪽

- 학과분류 체제
- 한국교육개발원(2003년)의 학과(전공)분류는 전문대학 2,335개, 대학 4,086개 등의 학과를 분류하고 있음.

<표 V-8> KEDI 4년제 대학의 학과(전공) 분류

대분류 (7)	중분류 (35)	소분류 (121)	대분류 (7)	중분류 (35)	소분류 (121)
인문 계열	언어· 문학	언어학,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영미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공학 계열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 화학	산업공학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인문 계열	인문과학	문헌정보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국제지역학, 철학·윤리학, 교양인문학	자연 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 학
사회 계열	경영· 경제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교양경상학	의약 계열	생활과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법률	법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학, 국제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언론·방 송·매체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			의료
교육 계열	교육일반	교육학	간호	간호학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약학	약학	
	특수교육	특수교육학	치료·보건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초등교육	초등교육학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공학 계열	건축 토목· 도시 교통· 운송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정밀· 에너지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예체능 계열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토목공학, 도시공학		무용·체육	무용, 체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연극·영화	연극·영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음악	음악학, 국악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

<표 V-9> KEDI 전문대학 학과(전공) 분류

대분류 (7)	중분류 (31)	소분류 (76)	대분류 (7)	중분류 (31)	소분류 (76)
인문 계열	언어·문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문예창작, 교양어	공학 계열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 섬유, 신소재, 재료
	인문과학	문헌정보, 문화, 인문일반		컴퓨터·통신	전산·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사회 계열	경영·경제	경영·경제, 관광·금융·회계·세무, 무역·유통		산업	산업공학
	법률	법		화공	화학공학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 비서, 언론·방송, 행정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육 계열	교육일반	사회·자연교육		자연 계열	농림·수산
	유아교육	유아교육	생물·화학·환경		생물, 자원, 환경
	특수교육	특수교육	생활과학		가정관리, 식품·조리, 의류·의상
건축	건축·설비, 건축, 조경	수학·물리·천문·지 리	지적		
공학 계열	토목·도시	건설, 토목	의약 계열	간호	간호
	교통·운송	지상교통, 항공, 해양	치료·보건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예체 능계열	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전기·전자	전기, 전자, 제어계측		응용예술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정밀·에너지	광학·에너지		무용·체육	무용, 체육
				미술·조형	미술, 조형
연극·영화				연극·영화	
음악	음악, 음향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

- 이 학과(전공)분류에서 대학은 대분류 7개(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중분류 35개, 소분류 121개로 분류되고, 전문대학은 대분류 7개, 중분류 31개, 소분류 76개로 각각 분류하고 있음.
- 미래직업세계(2003) 학과편처럼 소분류 수준에서 설명하지 않으나 중분류 수준에서 학문의 배경(학문 성격 및 학문간의 구분), 연구분야, 관련학과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

- 「미래의 직업세계(2003)」(학과편)에서의 전공분류
-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편에서는 KEDI의 전공분류체계에 따라 세분류에서 전문대학 41개, 대학교 56개, 대학원(이공계열의 석사과정) 18개 학과 등 총 115개 학과가 분류되어 있음.

<표 V-10> 미래의 직업세계(2003) 학과분류

계열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인문	국어국문학과, 아시아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유럽어 및 기타 언어관련 학과 역사 및 문화관련 학과 심리학과, 철학 및 종교학과	아시아어관련 학과 영어관련 학과 유럽어 및 기타 언어관련 학과	
	7	3	0
사회	경영학과, 경제학과 관광학과, 금융, 세무 및 회계학과 무역, 국제통상관련 학과 법학과, 사회(복지)관련 학과 지역 및 도시학과 언론방송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응용경영학과, 관광학과 금융, 세무 및 회계학과 무역, 통상 및 유통학과 법률관련 학과 가족, 사회 및 복지학과 비서학과, 사무정보학과 행정학과	
	11	11	0
자연	농림수산관련 학과 생명 및 자원관련 학과 화학과, 환경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생활학과, 수학과 전산 및 통계관련 학과 물리학과, 지리학과	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전산 및 계산관련 학과	생명 및 자원관련 학과 화학과 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전산 및 통계관련 학과 물리학과
	11	4	6
공학	건축학과, 토목학과 도시공학과, 교통관련 학과 금속관련 학과 기계관련 학과 전기공학관련 학과 전자공학관련 학과 재료 및 에너지관련 학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관련 학과 정보공학관련 학과 통신공학관련 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 및 응용공학관련 학과	건축(공학)과 실내 및 건축설비관련 학과 토목관련 학과 금속 및 자동차관련 학과 기계 및 설비관련 학과 전기관련 학과, 전자관련 학과 재료 및 에너지관련 학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관련 학과 정보처리관련 학과 통신관련 학과 기계, 전기 및 산업공학관련 학과 화학공학 및 응용공학관련 학과	건축학과 토목학과 기계관련 학과 전기공학관련 학과 전자공학관련 학과 재료 및 에너지관련 학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관련 학과 통신공학관련 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 및 응용공학관련 학과
	14	13	10
의약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재활 및 보건학과	간호학과 보건관련 학과 재활 및 의료장비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6	3	2
예체능	디자인관련 학과 무용 및 체육학과 미술 및 시각예술관련 학과 음악관련 학과	산업 및 시각디자인학과 의상 및 기타 디자인학과 메이크업 및 뷰티아트 전공 무용 및 체육학과 미술 및 시각예술관련 학과 음악관련 학과	
	4	6	0
교육	교육학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학과	
	3	1	0
계	56	41	18

- 커리어넷 학과DB의 내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대학정보, 학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중 학과정보DB는 <표 V-11>에서와 같이, 전문대학 468건, 대학교 489건의 학과를 소개하고 있음.

<표 V-11> 커리어넷 학과정보DB 현황

학교	학과수	학과설명 항목	비고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68	·대표학과명(유사학과) ·교육목표 ·교육내용 ·장래진로 ·취업률(1999-2001) ·설치학교(지역, 학교명)	<검색조건> ·구분(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과(4년제대학, 2·3년제대학) ·유사학과 ·학과명(유사학과명), 사진/동영상
대학교 (4년제 대학교)	489	※학과 DB 구조 ·학교구분(2·3년제, 4년제) ·학과명(유사학과) ·교육목표 ·교육내용 ·전공교과목 ·장래진로(취득가능 자격증, 취업 및 진로) ·적성 및 능력 ·전문가(교수)의 학과소개 ·학과동영상	상동

□ II단계

- I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편에서 각 학과별로 학과소개 내용 요소 정하였고 학과편에 수록할 학과를 잠정적으로 선정하였음.

○ 수록 내용 요소

- 2005년 학과편 본문은 2003년 학과편의 본문 내용 요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과 개요’, ‘주요 교육 내용’, ‘적성 및 흥미’, ‘취업과 진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본 학과 전망’의 다섯 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별 구성 내용을 통일하여 개별 학과 원고 작성의 원칙이 되도록 함.
- 도표는 2003년도 학과편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그래프(연봉수준) 형태를 변경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의 용이성을 제고 하도록 함.
- 관련 직업의 경우, 2003년 학과편에서는 직업코드를 부여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직업편과 연계하였으나, 독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3Digit 코드 대신, 직업편에 수록된 구체적인 직업명을 제시하였음.

○ 수록 학과 1차 선정

- 2005년 학과편 본문에 수록할 학과는 앞서 살펴본 KEDI 전공분류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대학 121개, 전문대학 76개 총 176개 전량을 수록하기로 하였음.
- 2003년도 졸업생 및 재학생 조사의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여 학과별로 조사 응답 사례수가 30 미만인 경우는 수록하지 않거나 다른 유사학과와 통(폐)합하기로 하였음.

<표 V-12> 학과편 콘텐츠의 내용 구성 요소

구분	구성내용	비고	
본문	학과개요	·학문의 배경 ·학문분야설명 ·관련학과	
	주요 교육내용	·연구 분야 및 성격 ·개괄적인 교과과정 ·세부 교과목	
	적성 및 흥미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 ·필요한 소질 및 적합한 성격 ·선택 동기	
	취업과 진로	·진출분야 ·성별에 따른 졸업생 수 ·취업률 ·초임평균연봉 ·전공과 직무 만족 관계	
	학과 전망	·시대흐름과 사회현상에 따른 전망 ·졸업생의 전망 ·재학생의 전망 ·졸업생과 재학생의 견해 비교	
도표	주요 취업분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취업분야	·졸업생 중 취업자의 취업분야 (표준산업분류)
	취업률	·성별에 따른 취업률	·졸업생 조사 결과 ·사례수가 5미만인 경우는 그래프를 보이지 않게 함
	직장형태	·직장유형	·졸업생 중 취업자의 직장유형
	연봉수준	·전공 취업자의 연봉수준 ·전체 대학교, 전문대 연봉수준	·취업자의 극단치를 제외 연봉(졸업생 조사)
	전공과 직무	·직무만족도	·현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졸업생 중 취업자)
		·직무유용성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졸업생 중 취업자)
·학력일치도		·직장(일)-학교전공과의 일치성(졸업생 중 취업자)	
학과전망	·졸업생이 본 3년 뒤 학과전망 ·재학생이 본 3년 뒤 학과전망	·2007년의 학과전망(졸업생, 재학생)	

□ Ⅲ단계

- 이렇게 잠정적으로 선정된 학과를 기초로 2003년도에 실시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재학생 조사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여 2차 데이터를 생성하였음.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별 사례 특성(성비, 취업률, 연봉)을 2003년 학과편 수록 내용과 비교하여 차이를 파악하고 교육통계연보에서 최근 3년간 학과 소개열에서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았음. 학과별로 사례수가 30 case 미만인 경우, 학과 수록을 위해 학과를 서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학과, 극단치(outlier)로 인해 전체 데이터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학과편에 최종적으로 수록할 학과리스트를 정하였음.
- 학과편 콘텐츠로서 수록을 결정하였으나, 연구진의 회의 및 원내 전문가로부터 일부 학과에 대한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학과명칭을 부여하였음.
 - 4년제 대학에서는 9개의 학과가 해당되는데, 국제관련학(국제지역학, 국제학), 자연·공학교육(자연계교육, 공학교육), 도시·지상·교통공학(도시공학, 지상교통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전기공학, 제어계측공학), 조경·산림·원예학(조경학, 산림·원예학), 천문·기상·지리학(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보건·재활학(보건학, 재활학), 디자인·공예(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공예, 응용미술), 영상·예술(영상·예술, 순수미술)이 해당됨.
 - 전문대학의 경우는 5개 학과로 법·행정(법, 행정), 섬유·재료(섬유, 재료), 환경(환경, 자원), 영상·예술(영상·예술, 미술), 무용·체육(무용, 체육)이 해당됨.
 - 전공(학과)분류에서 계열을 변경한 4개의 학과로는 4년제 대학에서 국제관련학(인문→사회), 조경·산림·원예학(공학→자연), 생명공학(자연→공학), 전문대학에서는 조경학과(공학→자연)가 해당됨.

<표 V-13>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 신규 추가/삭제 학과목록

계열	대학	공통	신규추가	삭제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역사고고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스페인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교양어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종교학과 국제지역학과	아시아문학과 유럽어및기타언어관련학과
	전문대학	영어학과 유럽어및기타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문예창작학과 교양어학과 문헌정보학과	아시아언어관련학과
사회	대학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회계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언론방송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교양경상학과 가족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교양사회과학과	관광학과 지역및도시학과 사회복지학과
	전문대학	경영정보학과 금융회계세무학과 관광학과 무역유통학과 가족사회복지학과 비서학과 행정학과		사무정보학과 법률관련학과 경영학과
교육	대학	교육학과 초등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언어교육학과 사회교육학과 자연계교육학과 예체능교육학과	중등교육학과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표 계속>

계열	대학	공통	신규추가	삭제
공학	대학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전산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항공학과 해양공학과 반도체세라믹공학과 선유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전공학과	도시공학과 교통관련학과 통신공학관련학과
	전문대학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토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산컴퓨터학과	조경학과 건설학과 제이계측학과 광학에너지학과 반도체세라믹공학과 응용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기전공학과 응용공학과	재료및에너지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기전및산업공학관련학과 화학공학및응용공학과
자연	대학	화학과 환경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의상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농업학과 산림원예학과 생명과학과 생물학과 동물수의학과 자원학과 교양생활학과 교양자연학과	물리학과 지리학과 농림수산관련학과 생명및자원관련학과
	전문대학	환경학과 조리학과	의류의상학과 지적학과	전산및계산관련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약	대학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재활및보건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전문대학	보건관련학과 간호학과 재활및의료장비학과	의무행정학과	
예체능	대학	체육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기타디자인학과 순수미술학과 조형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기악학과 작곡학과 디자인일반학과	무용및체육학과 음악관련학과 디자인관련학과
	전문대학	음악관련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기타디자인학과 공예학과 사진만화학과 영상예술학과 뷰티아트학과 체육학과	산업및시각디자인학과 의상및기타디자인학과 메이크업및뷰티아트전공 무용및체육학과 미술및시각예술관련학과

- 미래의 직업세계(2005) 수록 학과 수는 2003년도 학과편 수록 학과 수에 비해 약 1.5배의 규모를 보임. 2003년에 비해 증대된 계열은 인문, 공학, 예체능에서 현저하고, 줄어든 계열은 특히 교육계열에서 두드러짐.

<표 V-14> 「미래의 직업세계 2005: 학과편」 콘텐츠 증감 상황

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계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인문	4 (7.5)	13 (15.3)	3 (7.3)	7 (12.5)	7 (7.4)	20 (14.2)
사회	11 (20.8)	12 (14.1)	11 (26.8)	8 (14.3)	22 (23.4)	20 (14.2)
교육	11 (20.8)	7 (8.2)	4 (9.8)	1 (1.8)	15 (16.0)	8 (5.7)
공학	14 (26.4)	21 (24.7)	13 (31.7)	19 (33.9)	27 (28.7)	40 (28.4)
자연	6 (11.3)	14 (16.5)	3 (7.3)	5 (8.9)	9 (9.6)	19 (13.5)
의학	4 (7.5)	6 (7.1)	6 (14.6)	5 (8.9)	10 (10.6)	11 (7.8)
예체능	3 (5.7)	12 (14.1)	1 (2.4)	11 (19.6)	4 (4.3)	23 (16.3)
계	53 (100.0)	85 (100.0)	41 (100.0)	56 (100.0)	94 (100.0)	141 (100.0)

□ IV단계

-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결정된 수록학과를 2003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재학생 조사 결과를 1차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V-15> 취업률 상위 20개 학과

순위	대학교			전문대학		
	계열	학과	취업률	계열	학과	취업률
1	의학	치의학	100.0%	의학	의무행정	94.0%
2	교육	초등교육학	94.4%	의학	간호	90.3%
3	의학	간호학	92.3%	공학	건축·설비	87.3%
4	의학	의학	90.3%	교육	유아교육	86.7%
5	의학	한의학	87.5%	공학	토목	84.3%
6	예체능	사진·만화	85.2%	공학	응용공학	83.0%
7	사회	가족·사회·복지학	82.8%	의학	재활	82.9%
8	교육	자연·공학교육	81.7%	공학	자동차	81.6%
9	예체능	디자인·공예	79.6%	사회	가족·사회·복지	81.4%
10	사회	경영학	79.3%	사회	금융·회계·세무	81.3%
11	의학	보건·재활학	79.1%	의학	보건	81.1%
12	공학	건축·설비공학	78.8%	사회	언론·방송	80.9%
13	공학	해양공학	78.8%	공학	응용소프트웨어	80.0%
14	사회	경제학	78.1%	공학	기계	79.8%
15	사회	언론·방송·매체학	77.8%	사회	비서	79.7%
16	예체능	체육	77.8%	공학	기전공학	78.8%
17	사회	무역·유통학	77.3%	공학	건축	78.6%
18	사회	금융·회계·세무학	75.0%	공학	산업공학	78.4%
19	교육	예체능교육	75.0%	사회	경영·경제	78.1%
20	자연	의류·의상학	75.0%	공학	섬유·재료	78.1%

$$\text{※ 취업률} = \frac{\text{취업자수}}{\text{전체졸업자수}}$$

<표 V-16> 연봉수준 상위 20개 학과

순위	4년제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계열	학과	연봉 (만원)	계열	학과	연봉 (만원)
1	의학	약학	2,700	공학	자동차	2,003
2	의학	한의학	2,575	공학	반도체·세라믹	1,973
3	공학	자동차공학	2,540	공학	토목	1,886
4	예체능	기악	2,500	공학	건설	1,872
5	의학	간호학	2,452	공학	기계	1,870
6	공학	항공학	2,376	공학	응용공학	1,861
7	공학	해양공학	2,361	공학	기전공학	1,850
8	의학	치의학	2,360	공학	전기	1,842
9	공학	전자공학	2,339	공학	건축·설비	1,829
10	공학	기계공학	2,331	의학	재활	1,829
11	예체능	작곡	2,325	의학	간호	1,810
12	의학	의학	2,321	공학	제어계측	1,804
13	사회	경제학	2,297	공학	화학공학	1,800
14	사회	사회학	2,288	예체능	패션디자인	1,775
15	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2,265	인문	유립·기타어	1,767
16	자연	동물·수의학	2,260	공학	산업공학	1,745
17	사회	경영학	2,244	예체능	무용·체육	1,743
18	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2,240	예체능	공예	1,733
19	인문	역사·고고학	2,229	공학	전자	1,698
20	공학	화학공학	2,226	사회	관광	1,691

주) 대학졸업 후 1년 6개월 초임 연봉 평균임

<표 V-17> 학과전망 상위 20개 학과(4년제 대학)

순위	4년제 대학 졸업생			4년제 대학 재학생		
	계열	학과	긍정 전망	계열	학과	긍정 전망
1	인문	중국어·문학	78.2	자연	동물·수의학	83.3
2	교육	초등교육학	75.0	의학	간호학	75.5
3	의학	간호학	74.4	공학	해양공학	71.0
4	자연	동물·수의학	71.8	의학	약학	70.8
5	의학	약학	71.4	의학	의학	68.6
6	의학	치의학	71.4	공학	조경·산림·원예학	66.7
7	공학	해양공학	68.8	의학	치의학	66.7
8	사회	가족·사회·복지학	65.8	교육	초등교육학	65.0
9	교육	언어교육	63.8	의학	한의학	59.1
10	공학	전자공학	60.9	교육	유아교육학	58.3
11	의학	한의학	60.0	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55.3
12	예체능	체육	59.7	인문	중국어·문학	53.8
13	공학	산업공학	58.3	사회	가족·사회·복지학	48.5
14	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57.7	공학	전자공학	45.9
15	사회	경영학	57.3	교육	교육학	42.5
16	공학	정보·통신공학	56.5	교육	자연·공학교육	41.9
17	사회	금융·회계·세무학	55.1	자연	농업학	39.3
18	교육	유아교육학	55.0	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38.5
19	교육	예체능교육	54.7	사회	금융·회계·세무학	35.1
20	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53.3	교육	언어교육	34.3

<표 V-18> 학과전망 상위 20개 학과(전문대학)

순위	전문대학 졸업생			전문대학 재학생		
	계열	학과	긍정	계열	학과	긍정
1	인문	중국어	82.6	의학	간호	68.8
2	의학	간호	69.4	예체능	뷰티아트	68.5
3	교육	유아교육	62.8	공학	건설	64.3
4	예체능	뷰티아트	61.9	교육	유아교육	63.5
5	예체능	무용·체육	59.2	의학	재활	56.9
6	사회	가족·사회·복지	56.5	공학	반도체·세라믹	55.0
7	예체능	연극·영화	55.6	사회	관광	54.0
8	사회	금융·회계·세무	53.6	인문	중국어	52.0
9	사회	무역·유통	52.6	사회	금융·회계·세무	47.7
10	사회	관광	52.6	사회	가족·사회·복지	46.8
11	자연	조경	50.0	의학	의료장비	45.5
12	예체능	시각디자인	49.3	의학	보건	43.2
13	예체능	음악	48.8	공학	제어계측	42.9
14	사회	비서	47.5	자연	지적	42.6
15	의학	의료장비	46.7	인문	문헌정보	40.7
16	공학	광학·에너지	46.3	공학	응용공학	40.0
17	예체능	영상·예술	46.1	사회	법·행정	39.2
18	인문	교양어	45.1	자연	식품·조리	38.3
19	사회	인문·방송	44.7	공학	기전공학	38.0
20	인문	일본어	44.0	인문	영어	37.5

□ V단계

- 본 학과편은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를 소개하고 있고, 주 독자층이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 교사, 학부모인 점을 감안하여 대학 및 학과선택을 위한 조언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각 계열이 마무리 되는 부분에 “토막정보”라는 명칭으로 제시하였음. 학과편 콘텐츠를 아우르는 기획편을 작성하였음.
- 토막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교 학과 선택을 위한 전략」은 독자들로 하여금 후회없는 선택(No regret choice), 알고 하는 선택(Informed choice)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이를 위한 학과 찾기, 그리고 학과가 설치된 대학 찾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계열별 학과 소개”에 추가하여 수록하였음.
 - 「커리어넷에서 대학정보 찾기」는 진로종합정보망인 커리어넷을 통해 독자들이 국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인문계열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음.
 - 「커리어넷에서 학과정보 찾기」는 커리어넷에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으며, 사회계열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음.
 - 「흥미를 몰라서 학과선택하기가 어려워요!」는 학과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와 유사한 사이버상담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요약하였고, 교육계열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음.
 - 「대학 재학,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했을까?」는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들로부터 직접인 조언을 받는 것 이외에 간접적으로 학과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03년의 졸업생, 재학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이 부분은 공학계열 마지막에 수록하였음.

- 「대학생활은 진로개발의 시간!!」은 대학 입학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시절에 본인의 진로개발을 위해 주로 대학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였음. 자연계열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음.
- 「좀 더 멀리, 그리고 깊게 자신의 인생 전반을 생각하자!」는 대학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로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본인의 진로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담은 원고를 원내 전문가로부터 협조를 얻어 포함하였고, 의학계열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음.

□ VI단계

- 6단계는 그동안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학과소개 내용을 외부의 전문가(주로 대학 교수 및 강사, 관련 기관 실무자) 58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학과의 내용을 수정하고, 학과편과의 연계 를 위해 관련학과 중심의 연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표 V-19> 학과편 콘텐츠 검토 외부 전문가 명단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이화여자대학교	강순화	인하공업전문대학	석종혁	명지대학교	정동주
신구대학	김경섭	강원대학교	손병암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서울대학교	김동일	신구대학	안성노	광운대학교	정홍배
신구대학	김문모	포항공과대학교	안양수	중앙대학교	조형숙
안산1대학	김세옥	동원대학	안인자	광운대학교	주동환
승의여자대학	김순화	서울대학교	여명석	인하대학교	최기영
한양대학교	김영도	동양공업전문대학	오탈균	한양대학교	최기원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효	동서울대학	유태재	배화여자대학	최남순
건국대학교	김종화	경희대학교	은웅기	경기대학교	최돈일
숭실대학교	김진오	홍익대학교	이기복	한양대학교	최병선
인천전문대학	김진한	한양대학교	이동호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최성우
신홍대학	김향선	한강성심병원	이상훈	경희대학교	최승환
영진전문대학	남호원	서울대학교	이석하	연세대학교	최희준
여주대학	도진석	용인대학교	이에리사	이화여자대학교	한자경
영진전문대학	문병상	부경대학교	이영대	한림성심대학	현영호
연세대학교	문성빈	강남고용안정센터	이영선	건국대학교	황순진
동국대학교	문원립	서울대학교	이제경	서울대학교	황인경
연세대학교	박민용	부천대학	이종복	한양여자대학	황호문
서울대학교	박성혁	서울대학교	이훈진		
신구대학	박희주	동남보건대학	전화연		

- 학과편과 직업편의 연계 작업 결과는 <부록> 참조.

□ VII단계

- VII단계는 이전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학과 콘텐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윤문을 받았음.

제5절 활용 방안

-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은 일선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조사 결과(한상근 외, 2001; 진미석 외, 2002, 진미석 외, 2003)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학 학과 중 관심 학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나, 다른 학과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과편 콘텐츠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학과의 세계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음.
-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선입견을 통해 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상황임. 하지만 최근 교육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기존의 학과에 대한 지식으로 학과를 선택할 경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짝음. 학과편 자료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최근 교육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 학과의 세분화, 다양화되어 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그동안 배운 학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개인 생애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나아가 각 전공 및 학과간 다학제적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해당 전공분야 학계에서는 타 학문 및 인접 학문분야의 변화 양상을 본 학과편 콘텐츠를 통해 앞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공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은 2002년부터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미래의 직업세계 사업 3년차의 결과임. 이 사업은 미래의 직업세계 직업편, 학과편 양편으로 구성된 책자 발간 사업과 졸업생 취업조사와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즉 조사 사업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4년도에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직업편과 학과편을 발간하였으므로 이 책자가 학교 현장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의 안내와 재정지원이 요구됨. 동시에 책자 활용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개발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요구됨.

- 2004년 11월에 책자가 발간되고 12월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²⁰⁾.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책자의 광범위한 활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다만 책자의 일선학교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포시기를 11월로 하는 것이 요구됨.
- 2006년도에 「미래의 직업세계 2007년」 발간작업에서는 직업편과 학과편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 새로이 나타난 신생직업들, 그리고 향후에 생겨날 직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전망을 수록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직업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학과 안내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깊이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음. 이를 위하여 2005년도에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조사에서는 학과안내와 직업 안내를 위한 다양한 설문문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석박사 졸업생 및 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고급 인적자원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응답률 역시 떨어지는 어려운 대상임. 이에 따라 학교측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자료수집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각 대학의 종합인력개발센터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센터 인력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 예산상의 한계로 표집수가 제한되어 있어 세부학과별로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유형을 분석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었음. 향후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표집수를 확대하고 아울러 국외박사에 대한 자료 조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보도는 KBS, MBC, SBS, EBS 등 주요 방송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 주요 신문에 보도됨.

<부 록>

<부록 1> 조사도구 : 대학원 재학생 조사(석사과정용)

<부록 2> 조사도구 : 대학원 재학생 조사(박사과정용)

<부록 3> 조사도구 : 석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

<부록 4> 조사도구 : 박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

<부록 5> 「미래의 직업세계(2005): 직업편」 수록 직업의 유사직
업 및 관련 학과

<부록 6>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 수록 학과목록

<부록 7> 수록 학과의 관련 직업

<부록 8>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 수록 팀 자료

<부록 9> 석·박사 취득자 조사 설문협조 대학 및 담당자 명단

<부록 1> 조사도구 : 대학원 재학생 조사(석사과정용)

석사과정 재학생용

SAMPLE ID

--	--	--	--	--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세계가 끊임없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에게 매우 다양한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국민 개개인의 직업적인 역량을 풍성하기 위하여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 뛰어난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사는 우리 나라대학원 교육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적·직업적 경험,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고급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약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설문지는 단순히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제한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설문지에는 개인 성명을 묻는 문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적사항은 자료의 분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설문지 작성에 할애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우리 나라대학원 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연구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최동선
연구원 김나라

♂ 이 설문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과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연락처 : (우135-766)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TEL. 02-3485-5356 또는 5322, FAX. 02-3485-5329

※ 다음은 현재의 대학원 입학 이전의 귀하의 교육적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졸업하였습니까?
- ___ ① 그렇다
 - ___ ② 그렇지 않다. 국내 다른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다.
 - ___ ③ 그렇지 않다. 국외의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다.
2. 귀하가 졸업한 학부 과정은 어떠한 분야이었습니까?
- ___ 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전공과 동일한 학과이다. → 3번 문항으로 가시오.
 - ___ ②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전공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분야의 학과이다.
 - ___ ③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전공과 전혀 다른 학과이다.
- 2.1. 귀하는 어떤 학과에서 학부 과정을 졸업하였습니까? 아래의 빈칸에 귀하가 졸업한 학과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2.2번 문항으로 가시오.
- 2.2. 귀하가 전공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학부 전공이 나의 적성이나 흥미에 전혀 맞지 않았다.
 - ___ ② 학부 전공이 나에게 아주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부 전공보다 현재의 대학원 전공에 관심이 더 많았다.
 - ___ ③ 현재의 대학원 전공 분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 ___ ④ 학부 졸업 후의 직장 경험과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 ___ ⑤ 현재의 대학원 전공에 입학이 쉬웠다.
 - 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3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현재의 대학원 입학 이전의 귀하의 직업적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 단,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직업 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였던 직업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직장(중고생 아르바이트 제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그렇다 → 4번 문항으로 가시오.
 - ___ ② 그렇지 않다.
- 3.1. 귀하는 학부를 졸업한 후 곧바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까?
- ___ ① 그렇다
 - ___ ② 아니다. 잠깐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이후 직장을 갖지 않고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 9번 문항으로 가시오.

4. 귀하가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가졌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직업명, 직장에서 귀하가 수행한 주요 업무를 아래의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응답을 종합하여 개인별 취업코드가 부여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직업명 (□□ 홍보사무직원, 자동차영업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등) :

(2) 직장에서 귀하가 수행한 주요 업무 및 분야 (□□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등) :

5. 위의 4번 문항에 응답한 직업에서 귀하의 취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___①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행사, 노점상 등)
- ___② 정규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___③ 임시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일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___④ 일용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___⑤ 무급 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___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6. 귀하는 언제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까?

입사시기 : _____년 _____월

7. 귀하는 아직까지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___① 그렇다 → 9번 문항으로 가시오.
- ___② 아니다

➔ 7.1. 귀하는 언제 이 직업을 그만두었습니까?

퇴사시기 : _____년 _____월

7.2. 귀하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표시를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자기 계발을 위한 기회를 갖고자	1	2	3	4	5
▶ 업무가 나의 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아서	1	2	3	4	5
▶ 회사에서 나의 발전가능성, 비전이 없어서	1	2	3	4	5
▶ 앞으로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1	2	3	4	5
▶ 임금이 낮아서	1	2	3	4	5
▶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1	2	3	4	5
▶ 회사 측의 정리해고, 휴업, 폐업 등 때문에	1	2	3	4	5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8. 대학원 입학 이전에 가졌던 귀하의 직업적 경험은 현재의 대학원 전공 분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
- 매우 밀접한 어느 정도 그저 별로 관련이 전혀 관련이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없다 없다

※ 다음은 귀하가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려 하였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학원에 입학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전공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___ ② 대학원 입학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___ ③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___ ④ 주위사람(교수, 부모, 친구, 선배 등)의 권유로
 ___ ⑤ 학부 졸업 이후에 별다른 선택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0.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나의 흥미나 적성과 잘 맞다고 생각되어서
 ___ ② 학위 취득 이후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___ ③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___ ④ 나의 직장 경험과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___ ⑤ 주위사람의 권유로
 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1. 귀하가 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때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학과(학부)의 교수 ___ ② 선배 및 학과 동료 ___ ③ 부모
 ___ ④ 형제 ___ ⑤ 친구 ___ ⑥ 없음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2. 귀하는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하였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학부 과정의 지도교수 ___ ② 학부 과정의 선배나 동료 ___ ③ 진학하려는 대학원의 교수
 ___ ④ 친구 ___ ⑤ 대학원 진학 전문기관
 ___ ⑥ 학부를 마친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센터(□□ 취업정보센터, 학생생활연구소 등)
 ___ ⑦ 진학하려는 대학원의 안내정보(□□ 안내책자 및 팸플릿 등)
 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3. 귀하의 학부 졸업년도와 대학원 입학년도를 적어 주십시오.

학부 졸업년도	석사과정 입학년도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 다음은 귀하의 대학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4. 귀하는 대학원에서의 생활(수업, 실험·실습, 각종 연구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5. 다음은 대학원에서의 생활을 세분화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된 학습	1	2	3	4	5
▶ 학위 취득 이후의 직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경험	1	2	3	4	5
▶ 지도교수와의 학문적·인간적 관계	1	2	3	4	5
▶ 선배나 동료 대학원생들과의 대인관계	1	2	3	4	5

16. 귀하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내가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이 부족하다.	1	2	3	4	5
▶ 전공에 관련된 용어를 터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계나 기구,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	1	2	3	4	5
▶ 학과의 분위기나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1	2	3	4	5
▶ 대학원 재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	1	2	3	4	5

17. 귀하는 거의 고정적으로 학과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18. 귀하는 대학원 재학 중에 전공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19번 문항으로 가시오.

→ 18.1. 귀하는 어느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계획입니까?

- ① 현재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
- ② 현재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 18.2번 문항으로 가시오.

18.2. 대학원 재학 중에 전공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공이 나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는다.
- ② 지도교수와의 갈등
- ③ 실험실(또는 연구실)의 선배나 동료와의 대인관계 문제
- ④ 학과(또는 실험실 및 연구실)의 집단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
- ⑤ 현재의 전공 분야가 비전이 없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19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귀하의 장학금 및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9. 귀하는 2004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 ① 교내 장학금(수업료 또는 기성회비 면제 포함) → 20번 문항으로 가시오.
- ② 교외 장학금
- ③ 어떤 장학금도 받지 않았다 → 21번 문항으로 가시오.

→ 19.1. 귀하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이름을 아래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_____ → 20번 문항으로 가시오.

20. 2004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귀하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장학금의 금액은 한 학기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 ① 20만원 이하
- ② 21만원~50만원
- ③ 51만원~100만원
- ④ 101만원~150만원
- ⑤ 151만원~200만원
- ⑥ 201만원 이상

21. 귀하는 장학금 이외에 수업료 및 납입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부모 및 친척으로부터
- ② 전공 관련 부직활동 (중고생 과외 제외)
- ③ 중고등학생 대상의 과외
- ④ 은행 대출
- 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수업료 지원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다음은 귀하의 연구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2. 귀하는 올해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외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그렇다 → 23번 문항으로 가시오.
- ___ ② 아니다 → 29번 문항으로 가시오.

23. 귀하는 올해에 몇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__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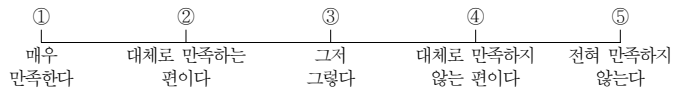
24. 귀하는 이들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___ ① 공동연구원
- ___ ② 연구보조원
- ___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25. 귀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인하여 월 평균 얼마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 ___ ① 20만원 이하 ___ ② 21만원~50만원 ___ ③ 51만원~100만원
- ___ ④ 101만원~150만원 ___ ⑤ 151만원~200만원 ___ ⑥ 201만원 이상

26. 귀하는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7. 귀하는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 혀 그렇지 않다
① 실제적인 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	2	3	4	5
② 학위취득 이후의 진로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③ 전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1	2	3	4	5
④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다.	1	2	3	4	5
⑥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

28. 귀하는 올해에 독자적으로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또는 수행한)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29번 문항으로 가시오.

→ 28.1. 귀하가 독자적으로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① 교내의 연구기관 및 연구기금
 ② 정부 부처 또는 정부 산하의 재단
 ③ 국내 민간기업
 ④ 국내 민간 장학재단
 ⑤ 자비 부담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29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귀하의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9. 귀하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어느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아래의 빈칸에 희망하는 직업 명과 그 직업에서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희망 직업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아래의 응답을 종합하여 개인별 취업코드가 부여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직업명 (□□ 홍보사무직원, 자동차영업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등) :

(2) 그 직업에서 귀하가 수행하고 싶은 주요 업무 및 분야 (□□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싶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등) :

(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업종에 종사하고 싶습니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경영·회계사무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② 금융보험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연구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④ 법률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⑤ 보건의료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⑥ 사회복지종교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⑦ 문화예술디자인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⑧ 운전자운송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⑨ 건설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⑩ 기계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⑪ 금속재료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⑫ 화학·화학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⑬ 섬유·의복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⑭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⑮ 식품·가공 분야 |
| <input type="checkbox"/> 환경 분야 |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분야 | |
|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 |

30. 귀하가 학위취득 이후에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은 귀하의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 대체로 관련 있는
편이다 | 그저
그렇다 | 그다지 관련이
없는 편이다 | 전혀 관련이
없다 |

31. 취업한 이후 받고자 하는 희망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 약 _____ 만원

32. 귀하가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부기관 ②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공사합동기업 ③ 교육기관
 ④ 민간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체 ⑥ 창업
 ⑦ 외국인 회사 ⑧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3. 귀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전공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전공 분야로의 취업	1	2	3	4	5
(2) 비전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취업처로 볼 때	1	2	3	4	5

34. 석사과정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취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공수업이나 전공스터디 ② 석사학위
 ③ 교수님 프로젝트 ④ 시간강사 등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⑤ 대인관계(지도교수, 선배와의 관계)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5. 귀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추가적인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① 학위 취득 이후 곧바로 국내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것이다.
 ② 학위 취득 이후 곧바로 외국의 박사과정에 유학할 것이다.
 ③ 취업한 이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박사과정에 진학할 것이다.
 ④ 대학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교육훈련기관에 다닐 것이다.
 ⑤ 추가적인 교육계획은 없다.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6.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귀하의 전공분야에서 5년 후의 학부 졸업생의 취업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망이 매우 밝다	대체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전망이 매우 어둡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7. 귀하의 성별은? ___① 남성 ___② 여성
38. 귀하의 학과명은 무엇입니까? _____ 학과
39. 귀하는 현재 몇 학기째 재학하고 있습니까? _____ 학기
40.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41. 귀하의 혼인상태는? ___① 미혼 ___② 기혼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 2> 조사도구 : 대학원 재학생 조사(박사과정용)

박사과정 재학생용

SAMPLE ID

--	--	--	--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직업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세계가 끊임없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에게 매우 다양한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국민 개개인의 직업적인 역량을 풍성하기 키워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 뛰어난 고급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사는 우리 나라대학원 교육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적·직업적 경험,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고급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약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설문지는 단순히 여러 분 개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제한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설문지에는 개인 성명을 묻는 문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적사항은 자료의 분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설문지 작성에 할애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작성 해주신 설문지는 우리 나라대학원 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연구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최동선
연구원 김나라

♂ 이 설문조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과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연락처 : (우135-766)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TEL. 02-3485-5356 또는 5322, FAX. 02-3485-5329

※ 다음은 현재의 대학원 입학 이전의 귀하의 교육적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국내 다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③ 그렇지 않다. 국외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 귀하는 어느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까?

- 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전공과 동일한 학과이다. → 3번 문항으로 가시오.
- ②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전공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분야의 학과이다.
- ③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전공과 전혀 다른 학과이다.

→ 2.1. 귀하는 어떤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아래의 빈칸에 귀하가 석사학위를 받은 학과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2.2번 문항으로 가시오.

2.2. 귀하가 전공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석사 전공이 나의 적성이나 흥미에 전혀 맞지 않았다.
- ② 석사 전공이 나에게 아주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석사 전공보다 현재의 박사 전공에 관심이 더 많았다.
- ③ 현재의 박사과정 전공 분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 ④ 학부 졸업 또는 석사 졸업 후의 직장 경험과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 ⑤ 현재의 박사과정 전공에 입학이 쉬웠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3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현재의 대학원 입학 이전의 귀하의 직업적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 단,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직업 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였던 직업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에 직장(중고생 아르바이트 제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4번 문항으로 가시오.
- ② 아니다

→ 3.1. 귀하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곧바로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잠깐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이후 직장을 갖지 않고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 10번 문항으로 가시오.

4. 귀하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에 가졌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직업명, 직장에서 귀하가 수행한 주요 업무 및 분야를 아래의 빈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응답을 종합하여 개인별 취업코드가 부여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직업명 (□□ 홍보사무직원, 자동차영업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학원강사 등) :

(2) 직장에서 귀하가 수행한 주요 업무 및 분야 (□□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등) :

5. 위의 4번 문항에 응답한 직업에서 귀하의 취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___①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행사, 노점상 등)
- ___② 정규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___③ 임시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1년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___④ 일용직 임금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___⑤ 무급 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___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6. 귀하는 언제 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까?

입사시기 : _____년 _____월

7. 귀하가 이 직업을 갖게 된 시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___① 학부 입학 이전 또는 학부 재학 중
- ___② 학부 졸업 이후
- ___③ 석사과정 재학 중
- ___④ 석사학위 취득 이후
- ___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8. 귀하는 아직까지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___① 그렇다 → 9번 문항으로 가시오.
- ___② 아니다

➤ 8.1. 귀하는 언제 이 직업을 그만두었습니까?

퇴사시기 : _____년 _____월

➔ 8.2번 문항으로 가시오.

8.2. 귀하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기 계발을 위한 기회를 갖고자	1	2	3	4	5
(2) 업무가 나의 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아서	1	2	3	4	5
(3) 회사에서 나의 발전가능성, 비전이 없어서	1	2	3	4	5
(4) 앞으로의 고용이 불안정해서	1	2	3	4	5
(5) 임금이 낮아서	1	2	3	4	5
(6)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1	2	3	4	5
(7) 회사 측의 정리해고, 휴업, 폐업 등 때문에	1	2	3	4	5
(8)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9. 대학원 입학 이전에 가졌던 귀하의 직업적 경험은 현재의 대학원 전공 분야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귀하가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려 하였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박사과정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공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 ② 대학원 입학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 ③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학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 ④ 주위사람(교수, 부모, 친구, 선후배 등)의 권유로
- ⑤ 석사학위 취득 이후에 별다른 선택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1.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나의 흥미나 적성과 잘 맞다고 생각되어서
- ② 학위 취득 이후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 ③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 ④ 나의 직장 경험과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 ⑤ 주위사람의 권유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2. 귀하가 박사과정 진학을 결정할 때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과(학부)의 교수 ② 선배 및 학과 동료 ③ 부모
 ④ 형제 ⑤ 친구 ⑥ 없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3. 귀하는 박사과정 진학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하였습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석사 과정의 지도교수 ② 석사 과정의 선배나 동료 ③ 진학하려는 대학원의 교수
 ④ 친구 ⑤ 대학원 진학 전문기관
 ⑥ 석사를 마친 대학의 진로지도 관련센터(□□ 취업정보센터, 학생생활연구소 등)
 ⑦ 진학하려는 대학원의 안내정보(□□ 안내책자 및 팸플릿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4. 귀하의 석사학위 취득년도와 박사과정 입학년도를 적어 주십시오.

석사학위 취득년도	박사과정 입학년도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 다음은 귀하의 대학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5. 귀하는 대학원에서의 생활(수업, 실험·실습, 각종 연구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② ③ ④ ⑤
 매우 대체로 만족하는 그저 대체로 만족하지 전혀 만족하지
 만족한다 편이다 그렇다 않는 편이다 않는다

16. 다음은 대학원에서의 생활을 세분화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된 학습	1	2	3	4	5
(2) 학위 취득 이후의 직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경험	1	2	3	4	5
(3) 지도교수와 학문적·인간적 관계	1	2	3	4	5
(4) 선배나 동료 대학원생들과의 대인관계	1	2	3	4	5

17. 귀하는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이 부족하다.	1	2	3	4	5
(2) 전공에 관련된 용어를 터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3)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계나 기구,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4)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	1	2	3	4	5
(5) 학과의 분위기나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6)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1	2	3	4	5
(7) 대학원 재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	1	2	3	4	5

18. 귀하는 거의 고정적으로 학과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19. 귀하는 대학원 재학 중에 전공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20번 문항으로 가시오.

19.1. 귀하는 어느 분야로 전공을 변경할 계획입니까?

- ① 현재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
- ② 현재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 19.2번 문항으로 가시오.

19.2. 대학원 재학 중에 전공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공이 나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지 않는다.
- ② 지도교수와의 갈등
- ③ 실험실(또는 연구실)의 선배나 동료와의 대인관계 문제
- ④ 학과(또는 실험실 및 연구실)의 집단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
- ⑤ 현재의 전공 분야가 비전이 없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20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귀하의 장학금 및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 귀하는 2004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 ___① 교내 장학금(수업료 또는 기성회비 면제 포함) → 21번 문항으로 가시오.
 ___② 교외 장학금
 ___③ 어떤 장학금도 받지 않았다 → 22번 문항으로 가시오.

➔ 20.1. 귀하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이름을 아래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21. 2004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귀하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장학금의 금액은 한 학기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 ___① 20만원 이하 ___② 21만원~50만원 ___③ 51만원~100만원
 ___④ 101만원~150만원 ___⑤ 151만원~200만원 ___⑥ 201만원 이상

22. 귀하는 장학금 이외에 수업료 및 납입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① 부모 및 친척으로부터 ___② 전공 관련 부직활동(중고생 과외 제외)
 ___③ 중고등학생 대상의 과외 ___④ 은행 대출
 ___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수업료 지원
 ___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23. 귀하는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일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①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___② 소속 대학에서 조교(행정조교, 연구조교 등)로 있다.
 ___③ 전공과 관련한 부직활동을 하고 있다.
 ___④ 중고등학생 대상의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
 ___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다음은 귀하의 연구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4. 귀하는 올해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외부 기관의 연구비 지원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___① 그렇다
 ___② 아니다 → 31번 문항으로 가시오.

25. 귀하는 올해에 몇 개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__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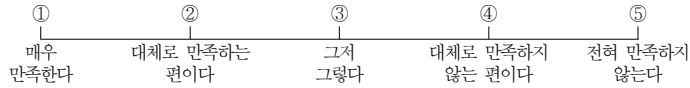
26. 귀하는 이들 연구 프로젝트에 주로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공동연구원
- ② 연구보조원
-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27. 귀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월 평균 얼마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달 평균 실질 수령액의 근사치를 적어주십시오.)

- ① 20만원 이하
- ② 21만원~50만원
- ③ 51만원~100만원
- ④ 101만원~150만원
- ⑤ 151만원~200만원
- ⑥ 201만원 이상

28. 귀하는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9. 귀하는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실제적인 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	2	3	4	5
(2) 학위취득 이후의 진로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전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1	2	3	4	5
(4)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5)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다.	1	2	3	4	5
(6)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

30. 귀하는 올해에 독자적으로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또는 수행한) 연구과제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31번 문항으로 가시오.

→ 30.1. 귀하가 독자적으로 또는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① 교내의 연구기관 및 연구기금
- ② 정부 부처 또는 정부 산하의 재단
- ③ 국내 민간기업
- ④ 국내 민간 장학재단
- ⑤ 자비 부담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31번 문항으로 가시오.

※ 다음은 귀하의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1. 귀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어느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아래의 빈칸에 희망하는 직업 명과 그 직업에서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희망 직업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아래의 응답을 종합하여 개인별 취업코드가 부여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직업명 (□□ 대학교수, 연구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등) :

(2) 그 직업에서 귀하가 수행하고 싶은 주요 업무 및 분야 (□□ 사회학 분야의 대학교수가 되고 싶다. 전문연구기관에서 화학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등) :

(3)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업종에 종사하고 싶습니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경영·회계사무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② 금융·보험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③ 교육·연구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④ 법률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⑤ 보건·의료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⑥ 사회복지·종교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⑦ 문화·예술·디자인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⑧ 운전자·운송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⑨ 건설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⑩ 기계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⑪ 금속·재료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⑫ 화학·화학 분야 |
| <input type="checkbox"/> ⑬ 섬유·의복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⑭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 <input type="checkbox"/> ⑮ 식품·가공 분야 |
| <input type="checkbox"/> 환경 분야 | <input type="checkbox"/> 농림어업 분야 | |
| <input type="checkbox"/>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32. 귀하가 학위취득 이후에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은 귀하의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까?



33. 취업한 이후 받고자 하는 희망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봉 약 _____ 만원

34. 귀하가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2년제 대학 | <input type="checkbox"/> ② 4년제 대학 | <input type="checkbox"/> ③ 초·중·고등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 <input type="checkbox"/>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 <input type="checkbox"/> ⑥ 기업(민간)연구소 |
| <input type="checkbox"/> ⑦ 민간대기업체 | <input type="checkbox"/> ⑧ 민간 중소기업체 | <input type="checkbox"/> ⑨ 개인사업체 |
| <input type="checkbox"/> ⑩ 창업 | <input type="checkbox"/> ⑪ 외국인 회사 | |
| <input type="checkbox"/> ⑫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고 싶지 않다 | | |
| <input type="checkbox"/> ⑬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

35. 귀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전공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전체 취업처로 볼 때	1	2	3	4	5
(2) 2년제/4년제 대학 교원으로서의 취업	1	2	3	4	5

36. 박사과정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취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공수업이나 전공스터디
- ② 박사학위
- ③ 교수님 프로젝트
- ④ 시간강사 등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 ⑤ 대인관계(지도교수, 선후배와의 관계)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7. 귀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추가적인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① 학위 취득 이후 곧바로 외국의 박사과정에 유학할 것이다.
- ② 취업한 이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포닥과정에 진학할 것이다.
- ③ 대학원이 아닌 다른 유형의 교육훈련기관에 다닐 것이다.
- ④ 추가적인 교육계획은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8.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귀하의 전공분야에서 5년 후의 학부 졸업생의 취업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망이 매우 밝다	대체로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전망이 매우 어둡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하거나, 빈칸에 적당한 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9. 귀하의 성별은? ___① 남성 ___② 여성

40. 귀하의 학과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41. 귀하는 현재 몇 학기째 재학하고 있습니까? ___ 학기

4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43. 귀하의 혼인상태는? ___① 미혼 ___② 기혼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조사도구 : 석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



석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인프라 구축 사업(「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고등교육졸업자의 졸업 후 취업실태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학위취득이후 취업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20여개 대학의 24개 학과대상으로 2003학년도 석사학위취득자 900여명을 무선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우리 나라대학원 교육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 : 진미석 연구위원, 김나라 연구원, 박정식 연구원

♣ 연락처 : (135-766)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TEL : 02-3485-5322 FAX : 02-3485-5329

I. 석사학위 취득과정

1. 귀하가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가 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6.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석사학위 전공과 학부전공은 일치합니까?

- ① 일치한다 (☞ 3번으로) ② 일치하지 않는다 (☞ 2-1, 2-2번으로)

2-1. 현재 전공으로 바꾼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 적성에 더 맞아서 ② 전망이 더 좋아서
 ③ 입학하기 쉬워서 ④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공이므로
 ⑤ 전공의 학문적 매력에 이끌려 ⑥ 석사학위 취득이 수월해서
 ⑦ 기타 _____

2-2. 전공을 바꾼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한 결정이다 ② 잘한 결정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된 결정이다
 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3. 석사과정 중 귀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 5번으로)
 ②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했지만 대체로 풀타임으로 학업에 전념하였다(☞ 5번으로)
 ③ 석사과정동안 계속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4번으로)
 ④ 석사과정동안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 4번으로)
 ⑤ 석사과정동안 계속 일하지 않았으나 중간 중간 풀타임으로 취업하였다(☞ 4번으로).

10. 자신의 석사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10-1. 만약 불만스럽다면 그 주된 이유는? _____

11. 귀하는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① 있다(11-1번으로) ② 없다(12번으로) ③ 현재 박사과정 중(11-1번으로)

11-1. 박사학위 취득을 계획하거나 또는 현재 박사 과정 중이라면, 다음 중 어떤 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십니까 (또는 취득 중이십니까)?

- ① 석사와 동일한 대학에서 ② 석사와는 다른 국내대학에서 ③ 외국유학

II. 석사취득이후 진로상황

12. 현재 귀하의 진로상황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 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음 (☞13번으로)
- ② 풀타임 비정규직(계약직,임시직)으로 취업 (☞13번으로)
- ③ 파트타임(시간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음 (☞13번으로)
- ④ 구직 중 (☞25번으로)
- ⑤ 박사과정 중 (☞34번으로)
- ⑥ 박사과정진학준비 중 (☞34번으로)
- ⑦ 건강, 집안사정 등으로 집에서 쉬고 있음 (☞34번으로)

※ 13번 ~ 24 번 문항은 취업자 항목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만 응답해 주세요.

13.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유형은?

- ① 초·중·고등학교 ②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③ 국공립 연구기관
- ④ 민간 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⑥ 개인사업체
- ⑦ 창업 ⑧ 외국인 회사 ⑨ 기타 _____

14. 귀하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래의 빈칸에 직업명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아래의 응답을 종합하여 개인별 취업코드가 부여

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 (1) 직업명 (□□ 홍보사무직원, 자동차영업원, 컴퓨터하드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등) :

- (2) 직장에서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및 분야 (□□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등) :

15. 현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6. 귀하의 연평균 근로소득(세금포함)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7. 귀하는 현재 직업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17-1. 불만스럽다면, 그 주된 이유는? _____

18.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귀하의 석사학위 전공과 관련된 분야입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9.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은 석사학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②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③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19-1.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석사학위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사 ② 전문대졸 ③고졸 ④ 기타_____

※ 20번 ~24번 문항은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분만 응답해주십시오.
비정규직, 파트타임, 구직중인 경우 25번으로 가 주십시오.

20. 귀하의 현 직장은 다음 중 어떤 경우입니까?
 ① 석사학위 취득이후에 얻은 첫직장이다 (☞21번으로)
 ② 석사학위 취득이후에 첫 직장을 얻은 후 옮긴 직장이다 (☞21번으로)
 ③ 석사학위 취득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다 (☞22번으로)
 ④ 다니던 직장에서 석사학위 취득이후 옮긴 직장이다 (☞22번으로)
21. 석사학위 취득이후 첫 풀타임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 및 응시횟수는?
 21-1. _____년 _____개월
 21-2. 응시횟수 _____번
22. 석사학위 취득으로 인해 직장에서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3. 귀하께서 현 직장을 구할 때 취업정보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④ 신문 광고 ⑤ 기타_____
24.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가능하면 옮기겠다
 ③ 현재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24-1.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2가지 선택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_____ 두 번째 이유_____
 ① 보수 ②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도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⑤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⑥ 직장분위기
 ⑦ 업무부담 ⑧ 직장의 사정상 ⑨ 기타_____
- 24-2. 귀하는 어떤 직장으로 옮기시려 합니까?
 ① 초·중고등학교 ②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③ 공공립 연구기관
 ④ 민간 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⑥ 개인사업체
 ⑦ 창업 ⑧ 외국인 회사 ⑨ 기타_____

(☞ 응답을 마친신 정규직 취업자는 문항 34번으로 가 주십시오)

구직자에 관련된 사항 (25번~33번)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 파트타임취업자 및 구직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25. 귀하께서는 풀타임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몇 번을 응시하셨습니다?
_____번
26. 귀하께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않은 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첫 번째 요인 _____ 두 번째 요인 _____
- ① 당장 취업할 자리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직장을 기다리기 때문에
② 전공분야의 취업처의 부족
③ 취업시 학연, 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④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부족
⑤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⑥ 좁은 인간관계 폭
⑦ 가사와 육아부담
⑧ 취업정보의 부족
⑨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
⑩ 연령
⑪ 성차별관행
⑫ 기타_____
27. 귀하께서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④ 신문 광고 ⑤ 기타_____
28. 귀하가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직장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초·중·고등학교 ② 사회교육기관(□□ 학원 등) ③ 국공립연구기관
④ 민간 대기업체 ⑤ 민간 중소기업체 ⑥ 개인사업체
⑦ 창업 ⑧ 외국계 회사 ⑨ 기타_____
29. 귀하께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보수 ②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도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⑤ 직무와 내 전공과의 관련성 ⑥ 기타_____

30. 귀하는 귀하의 석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31. 귀하께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어학공부 및 전공공부 ②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 ③ 취업정보 수집 ④ 면접 준비
- ⑤ 기타 _____

32. 귀하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기대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1~2년 사이 ④ 2~3년 사이
- ⑤ 3년 이상

33. 예상하고 있는 기간 내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계속 기다리겠다 ②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하겠다
- ③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 ④ 석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겠다
- ⑤ 기타 _____

III. 석사학위 취득자의 향후 취업전망

34. 귀하의 학위전공분야에서 올해에 배출되는 석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학위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34-1. 전공분야로의 취업	①	②	③	④	⑤
34-2. 비전공분야포함 전체 취업	①	②	③	④	⑤

35. 귀하의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석사들의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은 석사들이 배출되어서
 - ② 석사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 ③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석사인력의 활용처 개발이 부진하여
 - ④ 석사학위자와 취업처를 연결하는 체제(시스템)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 ⑤ 기타_____
36. 귀하 전공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후, 귀하의 전공분야 학부졸업생들의 취업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망이 매우 밝다 ② 밝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어두운 편이다 ⑤ 매우 어둡다

♠ 일반 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 년도 19__년
3. 거주지 ① 서울수도권 지역 ② 영남지역 ③ 호남지역 ④ 충청지역 ⑤ 강원지역
4. 출신 학부 및 석사(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4-1. 학부_____ 4-2. 석사_____

[보기]

- ① 서울의 국립대학 ② 지방 국립대학
- ③ 서울소재사립대학 (남녀공학) ④ 지방소재 사립대학(남녀공학)
- ⑤ 서울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⑥ 지방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 ⑦ 외국대학_____ (국명을 기입해주세요)
- ⑧ 기타_____

5. 석사과정 입학 년도 _____년 _____월
6. 석사학위 취득 년도 _____년 _____월

7.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7-1. 학부전공 _____ 석사전공 _____

[보기]				
1) 국문학	2) 영문학	3) 불문학	4) 독문학	5) 중문학
6) 일문학	7) 노문학	8) 역사학	9) 철학	10) 법학
11) 행정학	12) 사회학	13) 심리학	14) 경제학	15) 경영학
16) 교육학	17) 물리학	18) 수학	19) 생물학(생명과학)	
20) 화학	21) 기계공학	22) 건축(공)학	23) 토목(환경)공학	
24) 화학공학	25) 전기·전자·전파공학	26) 정보통신·컴퓨터공학(전산학)		
27) 생명공학	28) 약학	29) 기타 _____		

8. 결혼 여부 ① 결혼 ② 미혼 ③ 기타

9. 자녀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10. (결혼하셨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파트타임직 ④ 미취업 ⑤ 기타

11. 부모의 교육수준

부 _____ 모 _____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전문대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졸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4> 조사도구 : 박사취득자 취업조사 설문지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과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인프라 구축 사업(「미래의 직업세계」)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고등교육졸업자의 졸업후 취업실태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학위취득이후 취업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20여개 대학의 24개 학과대상으로 2003학년도 박사학위취득자 700여명을 무선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우리 나라대학원 교육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 : 진미석 연구위원, 김나라 연구원, 박정식 연구원

♣ 연락처 : (135-766)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7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정보센터

TEL : 02-3485-5322 FAX : 02-3485-5329

I. 박사학위 취득과정

1. 귀하가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가 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3.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4. 당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5. 전문성 신장(자기발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1-6.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2. 귀하의 박사학위 전공과 학부 전공은 일치합니까?

① 일치한다 (☞ 3번으로 가시오) ② 일치하지 않는다(☞ 2-1, 2-2로 가시오)

2-1. 현재전공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성에 더 맞아서 ② 전망이 더 좋아서
- ③ 입학하기 쉬워서 ④ 현재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공이므로
- ⑤ 전공의 학문적 매력에 이끌려서 ⑥ 박사학위 취득이 수월해서
- ⑦ 기타 _____

2-2. 전공을 바꾼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한 결정이다 ② 잘한 결정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된 결정이다
- 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3. 박사과정 중 귀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 ① 일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했다 (☞ 5번으로)
- ②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가끔 일을 했지만 대체로 풀타임으로 학업에 전념하였다 (☞ 5번으로)
- ③ 박사과정동안 계속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 4번으로)
- ④ 박사과정동안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 (☞ 4번으로)
- ⑤ 박사과정동안 계속 일하지 않았으나 중간 중간 풀타임으로 취업하였다 (☞ 4번으로).

4. 박사과정 중 귀하가 했던 일은 주로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 ① 전문대학의 교원 ② 4년제 대학의 교원
- ③ 대학의 유급조교 ④ 정부출연(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 ⑤ 지자체산하기관의 연구원 ⑥ 기업(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⑦ 일반기업체의 회사원 ⑧ 초·중·고등학교 교사
- ⑨ 개인사업(창업) ⑩ 대학의 시간강사
- ⑪ 학원강사 ⑫ 기타_____

5. 대학 졸업 이후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휴학기간은 제외)

- ☞ 석사 _____년 _____개월 ☞ 박사 _____년 _____개월
- ☞ 석·박사통합과정에 해당하면 _____년 _____개월

6. 귀하는 박사과정 입학이후 박사학위 취득까지 중단없이 학업을 진행하셨습니까?

- ① 예(☞ 7로 가시오) ② 아니오(☞ 6-1로 가시오)

6-1.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② 가사 및 육아 ③ 질병 ④ 군복무
- ⑤ 경제적 문제 ⑥ 기타_____

7.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소요된 총 경비는 약 얼마정도였습니까?

- ☞ 등록금, 책값, 논문 심사비 등 직접경비_____만원
- ☞ 생활비 _____만원

8. 위의 경비는 주로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로 답해주시시오)

장학금	부모지원	배우자지원	박사과정 이전의 저축으로	과정 중에 계속 취업을 하여서	직장의 지원	대출	총합
							100%

8-1. 만약 장학금을 받으셨다면 주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 ① 정부 ② 학교 ③ 장학재단 ④ 소속 직장 ⑤ 기업 ⑥ 기타_____

- ⑨ 대학의 시간강사
⑩ 학원강사
⑪ 기타_____

13.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박사학위 전공과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14. 현재 귀하가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은 박사학위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③ 일의 수준이 학위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14-1.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박사학위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사 ② 석사 ③ 기타_____

15. 귀하의 현재 직업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불만스럽다

15-1. 불만스럽다면, 그 주된 이유는? _____

16. 귀하의 연평균 근로소득(세금포함)은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17. 귀하는 현재 직장에 얼마동안 근무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 18번-22번 항목은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파트타임, 구직중인 경우 23번으로 가 주십시오.

18. 귀하의 현 직장은 다음 중 어떤 경우입니까?

- ① 박사학위 취득이후에 얻은 첫직장이다(☞19번 문항으로)
- ② 박사학위 취득이후에 첫 직장을 얻은 후 옮긴 직장이다(☞19번문항으로)
- ③ 박사학위 취득이전부터 다니던 직장이다(☞20번문항으로)
- ④ 다니던 직장에서 박사학위 취득이후 옮긴 직장이다(☞21번문항으로)

19. 박사학위 취득이후 첫 풀타임 직장을 얻기까지 걸린 기간 및 응시횟수는?

19-1. _____년 _____개월

19-2. 응시회수_____번 (☞ 21번문항으로)

20. 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해 직장에서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21. 귀하께서 현 직장을 구할 때 취업정보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 ② 선배, 동료의 도움
-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 ④ 신문광고
- ⑤ 기타_____

22. 귀하께서는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가능하면 옮기겠다
- ③ 현재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2-1.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2가지 선택해주시시오.

첫 번째 이유_____ 두 번째 이유_____

- ① 보수
- ② 안정성
- ③ 사회적 인정도
-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 ⑤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 ⑥ 직장분위기
- ⑦ 업무부담
- ⑧ 직장의 사정상
- ⑨기타_____

22-2 . 귀하는 어떤 직장으로 옮기시려 합니까?

- ① 전문대학
- ② 4년제 대학
- ③ 국공립연구소
- ④ 기업체연구소
- ⑤ 일반기업체
- ⑥ 중·고등학교
- ⑦ 개인사업
- ⑧기타(구체적으로_____)

(☞ 응답을 마치신 정규직 취업자는 문항 33번으로 가 주십시오.)

구직에 관련된 사항 (23번-32번)

비정규직 풀타임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 및 구직자만 응답해주시시오.

23. 귀하께서는 풀타임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몇 번을 응시하셨습니다?
_____번

24. 귀하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데에는 다음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1. 내가 원하는 직장을 기다리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4-2. 전공분야의 취업처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4-3. 취업시 학연, 지연 등 불공정한 임용	①	②	③	④	⑤
24-4. 전공분야의 자신의 실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24-5. 취업을 위한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부족	①	②	③	④	⑤
24-6. 좁은 인간관계 폭	①	②	③	④	⑤
24-7. 가사와 육아부담	①	②	③	④	⑤
24-8. 포스트닥으로 진학	①	②	③	④	⑤
24-9. 취업정보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4-10. 학부 전공과의 불일치	①	②	③	④	⑤
24-11. 연령	①	②	③	④	⑤
24-12. 성차별관행	①	②	③	④	⑤
24-13. 국내박사차별관행					

기타 _____

25. 귀하께서는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① 지도교수(학교)의 추천 ② 선배, 동료의 도움 ③ 인터넷 채용정보사이트
④ 신문광고 ⑤ 기타 _____

26. 귀하는 어떤 풀타임 직장을 구하고자 합니까?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대학 ③ 국공립연구소
④ 기업체연구소 ⑤ 일반기업체 ⑥ 중·고등학교 교직
⑦ 개인사업 ⑧ 정규직이라면 어디든 상관 없음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7. 귀하께서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보수 ② 안정성 ③ 사회적 인정도
- ④ 가족거주지와 거리 ⑤ 직무와 내 전공과의 관련성
- ⑥ 기타_____

28. 귀하는 귀하의 박사학위가 정규직에 취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9. 귀하가 전업 시간강사이시라면, 현재 몇 개 대학에서 몇 시간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__개 대학 __ 시간

30. 귀하께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논문작성이나 학회발표 등의 연구실적 쌓기
- ② 교수님과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③ 취업정보수집 ④기타_____

31. 귀하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기대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② 1년 이내 ③ 1-2년 사이
- ④ 2-3년 사이 ⑤ 3년-5년 사이 ⑥ 5년 이상

32. 예상하고 있는 기간내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계속 기다리겠다 ② 눈높이를 조정해서 풀타임 직장으로 취업하겠다
- ③ 박사학위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겠다 ④ 기타_____

Ⅲ. 박사학위 취득자의 향후 취업전망

33. 귀하의 학위전공분야에서 올해 배출되는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학위 취득이후 3년 이내에 전공분야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은 편이다
33-1. 전체 취업처로 볼 때	①	②	③	④	⑤
33-2. 대학교원으로서의 취업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의 전공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박사들의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은 박사들이 배출되어서
 ② 박사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
 ③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박사인력의 활용처가 개발이 부진하여
 ④ 박사학위자와 취업처를 연계하는 체제(시스템)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35. 귀하 전공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후, 귀하의 전공분야 학부졸업생들의 취업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망이 매우 밝다 ② 밝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어두운 편이다
 ⑤ 매우 어둡다

♠ 일반 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 년도 19____년
3. 거주지 ① 서울수도권 지역 ② 영남지역 ③ 호남지역 ④ 충청지역 ⑤ 강원지역

4. 출신 학부 및 석사(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4-1. 학부_____ 4-2. 석사_____ 4-3. 박사_____

[보기]	
① 서울의 국립대학	② 지방 국립대학
③ 서울소재사립대학 (남녀공학)	④ 지방소재 사립대학(남녀공학)
⑤ 서울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⑥ 지방소재 사립대학(여자대학)
⑦ 외국대학_____ (국명을 기입해주세요)	
⑧ 기타_____	

5. 박사과정 입학 년도 _____년 _____월

6. 박사학위 취득 년도 _____년 _____월

7.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7-1. 학부전공_____ 석사전공_____ 박사전공_____

[보기]				
1) 국문학	2) 영문학	3) 불문학	4) 독문학	5) 중문학
6) 일문학	7) 노문학	8) 역사학	9) 철학	10) 법학
11) 행정학	12) 사회학	13) 심리학	14) 경제학	15) 경영학
16) 교육학	17) 물리학	18) 수학	19) 생물학(생명과학)	
20) 화학	21) 기계공학	22) 건축(공)학	23) 토목(환경)공학	
24) 화학공학	25) 전기·전자·전파공학	26) 정보통신·컴퓨터공학(전산학)		
27) 생명공학	28) 약학	29) 기타 _____		

7-2. 박사학위의 세부전공 (기입해주세요. 예시: 분자생물학)_____

8. 결혼 여부 ① 결혼 ② 미혼 ③ 기타

9. 자녀수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10. (결혼하셨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취업하고 계십니까?

- ① 정규직에 취업하고 있다 ② 임시직 ③ 파트타임직
- ④ 취업하지 않고 있다 ⑤ 기타

11. 부모의 교육수준

부_____ 모_____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전문대졸 이하
-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졸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5> 「미래의 직업세계 2005: 직업편」 수록 직업의 유사직업
및 관련 학과

직업명	유사 직업	관련 학과
가전제품수리원	가전제품A/S기사,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전기·제어계측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간호사, 가정간호사	간호학
감정평가사		법학, 경제학, 금융·회계·세무학, 도시·지상교통공학, 기계, 섬유·재료, 산업공학, 부동산학
건물설비관리원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전기설비
건설기계운전원	지게차 운전원, 크레인 운전원	기계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철도운전기전
건축공학기술자	건축설계기술자, 건축기사, 건축가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토목공학, 건설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커플매니저	심리학, 교육학, 가족·사회·복지학
경영컨설턴트	경영분석가, M&A전문가, 경영진단전문가	경영학, 경제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경찰관	형사, 순경	경찰행정, 해양경찰
경호원	보디가드, 청원경찰	경호학, 무용·체육, 경호정보학, 경호행정학, 안경경호학
공예원	수공예원, 장제품공예원	디자인·공예, 도예
공작기계조작원	공작기계조립원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관세사		금융·회계·세무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광고기획자, 광고컨설턴트	경영학, 무역·유통학, 심리학, 사회학, 신문방송, 언론정보, 광고(홍보), 매체학, 뉴미디어
국악인	전통예능인	국악, 한국음악, 전통공연예술
귀금속 가공원 및 보석세공원		기계공학, 금속공학, 기계, 귀금속공예, 귀금속세공디자인, 보석가공
금형원	금형설치원, 금형정비원, 금형제작원, 금형설계원	기계공학, 금속공학, 제어계측공학, 기전공학, 응용소프트웨어, 전기, 금형설계, 기계설계공학, 정밀기계공학, 기계소재공학, 컴퓨터응용기계설계
기계공학기술자	조선공학기술자, 항공공학기술자, 자동차공학기술자, 건설기계공학기술자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해양공학
기자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기자, 보도 기자	국어·국문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네트워크시스템	네트워크관리자, 네트워크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분석가 및 개발자	엔지니어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서관계전문가	법학, 경영학, 경제학
농업인	농작물재배자, 과수작물재배자, 채소특용작물재배자	농업학
대중가수	가수, 대중가요 가수	음악학, 성악, 작곡, 실용음악, 생활음악
대학교수	교수	각 대학의 모든 학과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데이터베이스전문가, 데이터베이스분석가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통계학
도시계획가	도시계획설계가, 도시환경계획가	도시·지상교통공학, 도시환경학, 도시계획공학, 설계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분석가, 조사연구원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수학, 신문방송, 심리학, 사회학
만화가		사진·만화, 영상·예술, 애니메이션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특수분장사	디자인·공예, 뷰티아트, 피부미용, 미용예술, 미용, 코디메이크업
무용가	안무가, 발레무용가, 현대무용가	무용, 무용·체육, 실용무용
문화재보존원	유물관리인, 문화재보존처리전문가, 문화재보수기술자, 문화재수리원	건축학, 디자인·공예, 영상·예술, 조경·산림·원예학, 화학, 생물학
물류관리전문가	머천다이저	무역·유통학, 경제학, 경영학, 물류학
물리치료사	물리요법사, 작업치료사	간호학, 보건·재활학, 물리치료, 작업치료
미술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만화, 영상·예술, 회화·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소, 조형 예술
바텐더	조주사	식품영양학, 호텔경영학, 호텔외식조리학, 식품조리, 외식산업
방사선사	CT촬영기사, MRI촬영기사	방사선학, 의료장비, 광학·에너지
방송·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방송장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버스운전사	시내버스운전기사, 고속버스운전기사, 관광버스운전기사	
번역가	출판물번역가, 전문서류번역가, 외화번역가	어문학, 국제학관련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법무사		법학, 행정학
변리사	특허전문가	법학, 기계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광학·에너지, 정보·통신, 산업공학, 응용공학
변호사		법학, 공법, 사법

보육교사	보육사, 가정보육사	교육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유아교육
보험계리사		금융·회계·세무학, 경제학, 수학, 통계학, 경영, (금융)보험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법학, 부동산학, 부동산관리학, 부동산정보, 부동산재테크
비서	전문비서, 개인비서	통계학, 경영학, 문헌정보학, 전산컴퓨터공학, 비서, 비서행정, 국제비서
사서	기록물보관원, 사서교사, 문서보관원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사진가	사진작가, 촬영기자, 사진기자	사진만화, 영상·예술, 연극영화
사회과학연구원	정치학연구원, 사회학연구원, 경제학연구원, 행정학연구원, 매스미디어학연구원	국제관련학, 경영학, 경제학, 무역·유통학, 금융·회계·세무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단체간사, 사회운동가	사회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가족·사회·복지학, NGO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가	가족·사회·복지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행정, 케어·사회복지
산업공학기술자	산업기계공학기술자	산업공학, 자동화공학, 산업정보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위험관리사, 위험조사자	건축·설비공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상담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심리학,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청소년학
상품중개인	갱매인,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경영학, 경제학, 무역·유통학, 마케팅학
상품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경영학, 경제학, 유통·무역학
생명과학연구원	생물학연구원, 의약학연구원	생명공학, 생물학, 식품공학, 의학, 약학
섬유공학기술자	섬유소재개발기술자, 섬유공정개발기술자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성직자	목사, 승녀, 신부	종교학, 철학·윤리학, 심리학, 불교학, 신학, 기독교학
세무사		금융·회계·세무학, 경영학, 수학, 통계학
소방관	119 구조대원	소방관리, 소방공학, 소방학, 소방방재공학,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관리
손해사정사		수학, 통계학, 경영학, 보험학, 금융보험학
수의사		동물·수의학
시각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복디자이너	디자인·공예, 시각디자인, 사진만화, 영상·예술, 시각커뮤니케이션, 시각정보디자인, 컴퓨터디자인, 광고디자인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엔지니어, 시스템프로그래머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운영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웹서버관리자	전산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식품공학기술자	식품학연구원, 음식료품기술자	식품영양학, 생명공학, 생물학, 가정관리학, 미생물, 식품조리, 식품가공, 식품공학, 식품과학
아나운서 및 쇼핑호스트	뉴스진행자(앵커), 비디오자키, 리포터	국어·국문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악기수리원, 조율사	기악, 음악학, 피아노, 관현악, 음향공학
안경사	검안사	안경광학, 광학에너지
애니메이터	만화영화가	사진·만화, 영상예술, 애니메이션
애완동물미용사		동물·수의학, 디자인·공예, 뷰티아트, 애견미용뷰티, 애완동물, 애완동물(보건)관리
약사	양약사, 한약사	약학, 제약학, 한의학
어업인	연근해어부 및 해녀, 양식원	수산학, 해양학
여행상품기획자	여행상품개발원, 관광여행기획자, 파티플래너	역사고고학, 도시지역학, 지리학, 관광, 경영, 호텔경영
여행안내원	여행가이드, 국내외 여행안내원	역사고고학, 경영학, 관광경영학, 국제관광학, 관광
연기자	배우, 모델, 탤런트	연극영화, 언론·방송·매체학, 연기, 방송연예, 모델
연예인매니저	탤런트매니저, 가수 매니저	경영학, 연극영화
연출자	영화감독, 연극연출가, 방송PD, 광고제작감독	영상·예술, 연극영화, 신문방송, 광고(홍보)
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식품위생영양사, 보건영양사	식품영양학, 식품생명공학, 식품조리, 외식영양, 다이어트정보관리
영업원	기술영업원, 일반영업원, 해외영업원, 자동차영업원	경영학, 경제학, 무역·유통학, 마케팅학
용접원	가스용접원, 초음파용접원, 전기용접원	기계공학, 금속공학, 해양공학, 산업설비
운동경기 감독 및 코치	야구감독, 축구감독, 농구감독, 배구감독	체육, 예체능교육, 사회체육, 무용·체육, 경기지도, 생활체육, 스포츠과학
운동선수	프로 운동선수, 실업팀 운동선수	사회체육, 무용·체육, 생활체육, 경기지도, 스포츠과학, 스포츠레저, 해양스포츠, 골프학, 무도학
웹개발자	웹프로듀서, 웹프로그래머, 웹엔지니어	정보통신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디자인·공예, 시각디자인
유치원교사		유아교육학
음악가	성악가, 지휘자, 연주자, 작곡가	음악학, 관현학, 기악, 피아노, 성악, 작곡
응급구조사	구급요원	전문응급구조학, 의료장비, 응급구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일반사무용소프트웨어개발자, 콘텐츠개발용소프트웨어개발자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응용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자	보건·재활학, 병원경영학, 보건행정학, 의료정보학, 의무행정, 보건정보관리
의사		의학
이용사 및 미용사	이발사, 헤어디자이너	디자인·공예, 뷰티아트, 미용, 피부미용, 미용예술, 헤어메이크업
인문과학연구원	철학연구원, 언어학연구원, 역사학연구원, 심리학연구원	교양어문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철학윤리학
인테리어디자이너	실내장식디자이너, 디스플레이디자이너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디자인·공예, 조형, 기타디자인, 시각디자인, 건설, 실내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인테리어
일반공무원		행정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임상병리사	의료장비기사	생명공학, 생물학, 식품영양학, 의학, 보건·재활학, 의료장비, 임상병리학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상담원	심리학
임업인	조림·영림 및 벌목원, 육묘·화훼작물재배자	조경·산림·원예학
자동차정비원	자동차엔진정비원, 자동차차체정비원, 자동차경정비원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기전공학, 전자, 응용공학, 자동차정비, 차량기계
자연과학연구원	물리학연구원, 천문·기상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지질학연구원	생물학, 화학, 수학, 물리과학, 천문·기상·지리학, 교양자연과학
작가	시인, 시나리오작가, 소설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교양어
재료공학기술자	금속공학기술자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금속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기계재료
전기공학기술자	전력전기공학기술자, 발전설비공학기술자, 전기제어기술자	전기·제어계측공학, 원자력공학, 전기설비
전자공학기술자	반도체기술자, 전자제품개발 및 설계기술자, 전자제어계측기술자	전자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상거래전문가		경영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학, 인터넷비즈니스
전통음식 제조원	떡제조원, 한과제조원	식품영양학, 식품조리, 전통조리, 김치식품과학
제과·제빵사	양과제과사	식품영양학, 식품조리, 제과제빵, 제과테크놀로지
제품디자이너	공산품디자이너, 공예품디자이너	디자인·공예,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기타디자인, 가구디자인, 귀금속디자인
조경기술자		조경·산림·원예학, 건축학, 건축설비공학, 토목공학
조리사	주방장	식품영양학, 식품조리, 조리과학, 호텔조리, 외식조리,

		관광호텔조리
중고등학교교사		교육학, 자연·공학교육, 예체능교육, 그밖의 사범계열학과
증권중개인	투자상담사, 금융설계사, 증권 및 투자 중개인	금융·회계·세무학, 경영학, 무역·유통학, 경제학, 국제경영, 금융보험, 재무금융
지적 및 측량 기술자	지적기사, 측량기사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산림·원예학, 토목공학, 도시·지상교통공학, 환경학, 통계학, 천문·기상·지리학, 지적, 건설, 측지정보, 지적정보, 도시지적공학, 지리정보
직업군인	군인, 장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	전동차 기관사, 열차 기관사	기계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철도운전기전
초등학교교사		초등교육학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사	카메라맨,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조명기사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구영화, 전자공학, 방송영상, 영상미디어, 영화영상
축산인	가축사육자, 수렵종사자	동물·수의학, 축산학
출판물기획전문가	도서편집자, 잡지편집자	국어·국문학, 경영학, 교양어, 문예창작, 출판미디어, 광고(홍보)
치과기공사		치의학, 의료장비, 치기공
치과위생사		치위생학
치과의사	전문치과의사	치의학
컴퓨터게임개발자	게임기획자, 게임프로그래머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컴퓨터보안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 인터넷보안전문가	정보·통신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통계학
컴퓨터시스템설계전문가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컨설턴트	전산학·컴퓨터공학, 전자공학, 경영학
컴퓨터제도사	제도사, 캐드원	건축학, 전산학·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응용소프트웨어, 전산응용기계
택시운전사	택시기사, 개인택시기사	
텔레마케터	전화통신판매원	경영학, 마케팅학
토목공학기술자	토목엔지니어, 토목연구원	토목공학, 도시·지상교통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설
통신공학기술자	광통신연구원, 이동통신기술연구원	정보·통신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통역가	동시통역사	어문학, 국제학관련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특수교사		교육학, 언어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학
판사 및 검사		법학, 공법, 사법
패션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	의류·의상학, 섬유공학, 디자인·공예, 의류작물,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펀드매니저	고객자산관리운용가, 증권투	금융·회계·세무학, 경영학, 경제학, 국제경영, 통계학,

	자전문가, 금융자산운용가	금융보험, 재무금융
피부미용사 및 채형관리사	피부관리사, 피부마사지사	식품영양학, 체육, 뷰티아트, 피부관리, 피부미용, 다이어트정보관리
학예사	큐레이터, 학예연구관	영상예술, 사진만화, 디자인공예, 조소, 회화, 동양학, 서양학, (문화)인류, 고고학
한의사	전문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한의학
항공교통관계사	운항관리사	도시·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항공교통, 항공교통관리, 건설기계운전원,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항공기 및 선박 정비원	항공기정비사, 선박엔진정비원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전자, 기전공학, 응용공학,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기객실승무원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항공학, 항공운항학, 항공서비스
항공기조종사	파일럿, 기장 및 부기장	항공학, 기계공학, 항공운항, 제어계측, 항공조종
항해사 및 기관사	도선사, 운항사, 선장	해양공학, 기전공학, 조선해양공학, 선박기계공학
행사기획가	컨퍼런스 및 회의기획자, 이벤트기획자	심리학, 경영학, 신문방송, 연극영화, 이벤트, 광고
호텔지배인	호텔관리사	경영학, 국제관광학, 레저학, 문화관광학, 호텔경영학, 외식경영학
홍보관측원 및 홍보도우미	전단지배포원, 행사도우미, 나레이터모델	광고홍보학, 광고학
화학공학기술자	석유화학공학기술자, 도료·농약화학공학기술자, 비누·화장품화학공학기술자	화학공학, 정밀화학
환경공학기술자	상·하수도엔지니어, 폐기물처리엔지니어	환경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토목환경공학
회계사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역	금융·회계·세무학, 경영학, 경제학
IT컨설턴트	웹컨설턴트, 정보시스템컨설턴트	정보·통신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경영학

<부록 6>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 수록 학과목록

계열	대학교	전문대학	계
인문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영어·문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프랑스어·문학 문화정보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철학·윤리학	일본어 중국어 영어 유럽·기타어 문예창작 교양어 문화정보	
	13	7	20
사회	경영학 경제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법학 가족·사회·복지학 국제관련학 도시·지역학 사회학 신문·방송·미디어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영·경제 관광 금융·회계·세무 무역·유통 법·행정 가족·사회·복지 비서 언론·방송	
	12	8	20
교육	교육학 유아교육학 초등교육학 언어교육 사회교육 자연·공학교육 예·체능교육	유아교육	
	7	1	8
공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토목공학 도시·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제어계측공학 전자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건축·설비 건축 토목 건설 기계 자동차 전기 제어계측 전자 광학·에너지 반도체·세라믹 섬유·재료	

	섬유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전산·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 기전공학 생명공학	전산·컴퓨터 정보·통신 응용·소프트웨어 산업공학 화학공학 기전공학 응용공학	
	21	19	40
자연	농업과학 조경·산림·원예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지리학	조경 환경 식품·조리 의류·의상 지적	
	14	5	19
의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재활학	간호 보건 재활 의료장비 의무행정	
	6	5	11
예체능	디자인·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무용 체육 조형·영화 연극·영화 음악 국악 기악 성악 작곡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무용·체육 연극·영화 음악	
	12	11	23
계	85	56	141

<부록 7> 수료 학과의 관련직업

계열	학과명	구분	수료 여부	관련직업
인문	국어·국문학	대	○	작가, 출판물 기획전문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
	일본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중국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기타 아시아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영미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독일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러시아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스페인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프랑스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기타유럽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교양어·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문헌정보학	대	○	비서, 사서
	문화·민속·미술사학	대	×	학예사, 여행상품기획원
	심리학	대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행사기획자, 인문과학연구원, 임상심리사, 상담전문가, 성직자, 결혼상담원
	역사·고고학	대	○	여행상품기획원, 학예사, 인문과학연구원, 여행안내원
	종교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성직자
	국제지역학	대	○	여행상품기획원, 사회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철학·윤리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성직자
	교양인문학	대	×	인문과학연구원
	일본어	전	○	번역가, 통역가
	중국어	전	○	번역가, 통역가
	영어	전	○	번역가, 통역가
유럽·기타어	전	○	번역가, 통역가	
문예창작	전	○	작가, 출판물 기획전문가	
교양어	전	×	작가, 출판물 기획전문가	
문헌정보	전	○	비서, 사서	
문화	전	×		
인문일반	전	×		
사회	경영학	대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행사기획자, 출판물 기획전문가, 여행상품기획원, 경영컨설턴트, 펀드매니저(금융자산운용가), 마케팅 및 여론조사전문가, 사회과학연구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호텔지배인, 비서, 상점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노무사, 연예인매니저, 영업원, 상품중개인(경매인포함),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IT컨설턴트, 전자상거래전문가
	경제학	대	○	경영컨설턴트, 마케팅 및 여론조사전문가, 회계사,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단체활동가, 상점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노무사, 영업원
	관광학	대	×	
	광고·홍보학	대	×	

금융·회계·세무학	대	○	경영컨설턴트, 펀드매니저(금융자산운용가), 보험계리사(보험계리인), 회계사, 사회과학연구원, 세무사, 관세사
무역·유통학	대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상점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물류관리사, 영업원, 상품중개인(경매인포함)
교양경상학	대	○	
법학	대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일반(행정)공무원, 노무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가족·사회·복지학	대	○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국제학	대	×	사회과학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도시·지역학	대	×	
사회학	대	○	사회과학연구원, 기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사회복지사, 사회단체활동가
언론·방송·매체학	대	○	사회과학연구원, 기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연기자(모델포함)
정치외교학	대	○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단체활동가
행정학	대	○	사회과학연구원, 일반(행정)공무원
교양사회과학	대	○	
경영·경제	전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행사기획자, 출판물 기획전문가, 여행상품기획원, 경영컨설턴트, 펀드매니저(금융자산운용가), 보험계리사(보험계리인), 마케팅 및 여론조사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호텔지배인, 상점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노무사, 연예인매니저, 영업원, 상품중개인(경매인포함),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IT컨설턴트, 전자상거래전문가
관광	전	○	여행상품기획원, 여행안내원, 상점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금융·회계·세무	전	○	경영컨설턴트, 펀드매니저(금융자산운용가), 보험계리사(보험계리인),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상점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무역·유통	전	○	경영컨설턴트, 펀드매니저(금융자산운용가), 물류관리사, 영업원, 상품중개인(경매인포함)
법	전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사회복지사, 일반(행정)공무원, 노무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가족·사회·복지	전	○	상담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비서	전	○	비서
언론·방송	전	○	기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연기자(모델포함)
행정	전	○	일반(행정)공무원, 노무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교육학	대	○	보육교사, 상담전문가, 결혼상담원,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교사
유아교육학	대	○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육학	대	×	
초등교육학	대	○	초등학교 교사,
언어교육	대	○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교사
인문교육	대	×	중등학교 교사
사회교육	대	○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교사
공학교육	대	×	중등학교 교사
자연계교육	대	○	중등학교 교사
예체능교육	대	○	중등학교 교사

	사회·자연교육	전	×	
	유아교육	전	○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육	전	×	
공학	건축·설비공학	대	○	인테리어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조경사, 건축공학기술자,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건물설비관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지적 및 측량기술자
	건축학	대	○	인테리어디자이너, 컴퓨터제도사(제도사), 부동산중개인, 도시계획가, 조경사
	조경학	대	×	조경사, 임업인
	토목공학	대	○	조경사, 건축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도시공학	대	×	도시계획가, 지적 및 측량기술자
	지상교통공학	대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학	대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항공기조종사, 항공기 객실승무원
	해양공학	대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항해사(선장 및 기관사 포함)
	기계공학	대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치과기공사, 금형원, 감정평가사, 변리사, 기계공학기술자, 건물설비관리원, 공작기계조작원
	금속공학	대	○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치과기공사, 금형원, 감정평가사, 기계공학기술자
	자동차공학	대	×	자동차정비원,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기계공학기술자
	전기공학	대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철도 및 지하철기관사,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변리사, 전기공학기술자, 가전제품수리원, 건물설비관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전자공학	대	○	변리사, 전자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운영관리자, 가전제품수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공작기계조작원
	제어계측공학	대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철도 및 지하철기관사,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변리사, 전기공학기술자, 가전제품수리원, 건물설비관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광학공학	대	×	
	에너지공학	대	×	
	반도체·세라믹공학	대	○	, 감정평가사, 전자공학기술자
	섬유공학	대	○	의상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재료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신소재공학	대	○	, 치과기공사, 감정평가사, 재료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재료공학	대	○	, 치과기공사, 감정평가사, 재료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전산화·컴퓨터공학	대	○	항공(교통)관제사, 컴퓨터제도사(제도사), 통신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운영관리자, 컴퓨터보안전문가, IT컨설턴트, 전자상거래전문가, 컴퓨터게임개발자, 공작기계조작원	
응용소프트웨어공학	대	×	, 응용소프트웨어기술자	
정보·통신공학	대	○	항공(교통)관제사, 변리사, 전자공학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운영관리자, 컴퓨터보안전문가, IT컨설턴트, 컴퓨터게임개발자
산업공학	대	○	, 감정평가사, 변리사, 산업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화학공학	대	○	화학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기전공학	대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항해사(선장 및 기관사 포함), 철도 및 지하철기관사, , 금형원
응용공학	대	×	
건축·설비	전	○	부동산중개인, 도시계획가, 조경사, 건물설비관리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건축	전	○	부동산중개인, 도시계획가, 조경사,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조경	전	○	조경사,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건물설비관리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지적 및 측량기술자
건설	전	○	건축공학기술자, 지적 및 측량기술자
토목	전	○	조경사, 건축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지적 및 측량기술자
기계	전	○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치과기공사, 금형원, 감정평가사, 변리사, 기계공학기술자, 건물설비관리원
금속	전	×	
자동차	전	○	자동차정비원, 기계공학기술자
전기	전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자동차정비원, 금형원, 변리사, 전기공학기술자, 가전제품수리원, 방송 및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방송 및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전자	전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자동차정비원, 변리사, 전자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운영관리자, 가전제품수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공작기계조작원
제어계측	전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자동차정비원, 항공기 조종사, 금형원, 변리사, 건물설비관리원
광학·에너지	전	○	변리사, 안경사, 방사선사
반도체·세라믹	전	○	, 전자공학기술자
섬유	전	×	의상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감정평가사, 재료공학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재료	전	×	, 감정평가사, 재료공학기술자
전산·컴퓨터	전	○	, 컴퓨터제도사(제도사), 비서, 통신공학기술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운영관리자, 컴퓨터보안전문가, IT컨설턴트, 전자상거래전문가, 방송 및 통신설비 설치 및 수리원, 컴퓨터게임개발자, 공작기계조작원
응용소프트웨어	전	○	, 컴퓨터제도사(제도사), 금형원, 응용소프트웨어기술자
정보·통신	전	○	, 변리사, 비서, 통신공학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기술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운영관리자, 컴퓨터보안전문가, IT컨설턴트,

			컴퓨터게임개발자
산업공학	전	○	, 감정평가사, 변리사, 산업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화학공학	전	○	화학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기전공학	전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자동차정비원, 금형원
응용공학	전	○	항공기 및 선박정비원, 자동차정비원, 변리사
농업학	대	○	농업인
수산학	대	×	
산림·원예학	대	○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임업인
생명과학	대	○	식품공학기술자, 식품공학기술자, 임상병리사, 생명과학연구원
생물학	대	○	식품공학기술자, 임상병리사, 자연과학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동물·수의학	대	○	애완동물미용사, 수의사, 축산인(가축사육자)
자원학	대	○	, 지적 및 측량기술자
화학	대	○	자연과학연구원,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환경학	대	○	환경공학기술자, 지적 및 측량기술자
가정관리학	대	○	식품공학기술자, 보육교사
식품영양학	대	○	조리사, 제빵 및 제과원(제빵/제과원), 전통음식제조원(떡제조원), 식품공학기술자, 임상병리사, 보육교사, 영양사, 바텐더(조주사), 생명과학연구원
의류·의상학	대	○	의상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교양생활과학	대	○	
자연 수학	대	○	보험계리사(보험계리인), 마케팅 및 여론조사실문가,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자연과학연구원
통계학	대	○	보험계리사(보험계리인), 마케팅 및 여론조사실문가,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손해사정인, 비서,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물리·과학	대	○	자연과학연구원
천문·기상학	대	×	자연과학연구원
지구·지리학	대	×	
교양자연과학	대	○	자연과학연구원
농수산	전	×	
원예	전	×	
생물	전	×	
자원	전	×	
환경	전	○	환경공학기술자
가정관리	전	×	
식품·조리	전	○	조리사, 제빵 및 제과원(제빵/제과원), 전통음식제조원(떡제조원), 식품공학기술자, 영양사, 바텐더(조주사)
의류·의상	전	○	
지적	전	○	, 지적 및 측량기술자
의학	대	○	임상병리사, 의사, 생명과학연구원
치의학	대	×	치과기공사, 치의사

	한의학	대	×	한의사, 약사(약사 및 한의사)
	간호학	대	○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약학	대	○	약사(약사 및 한의사), 생명과학연구원
	보건학	대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재활학	대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	전	○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보건	전	○	의무기록사
	재활	전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의료장비	전	○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무행정	전	○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예 체 능	디자인일반	대	○	미술가(화가 및 조각가), 만화가, 제품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산업디자인	대	○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공예원
	시각디자인	대	×	애니메이터,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사진가(사진작가)
	패션디자인	대	×	
	기타디자인	대	○	웹개발자(디자인공예),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공예	대	×	미술가(화가 및 조각가), 제품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공예원, 학예사
	사진·만화	대	×	만화가, 애니메이터, 사진가(사진작가)
	영상·예술	대	×	만화가, 애니메이터, 시각디자이너, 공예원, 학예사, 연출자(감독 및 연출자),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무용	대	×	무용가, 전통예능인
	체육	대	○	운동경기 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경호원,
	순수미술	대	○	미술가(화가 및 조각가), 학예사
	응용미술	대	×	
	조형	대	○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연극·영화	대	×	연기자(모델포함), 연예인매니저
	음악학	대	○	음악가(지휘, 작곡 및 연주자),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국악	대	○	음악가(지휘, 작곡 및 연주자), 전통예능인
	기악	대	○	음악가(지휘, 작곡 및 연주자),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전통예능인
	성악	대	×	음악가(지휘, 작곡 및 연주자)
	작곡	대	○	음악가(지휘, 작곡 및 연주자), 대중가수
	기타음악	대	×	
	산업디자인	전	○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시각디자인	전	○	제품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사, 웹개발자
	패션디자인	전	○	의상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기타디자인	전	○	
	공예	전	○	미술가(화가 및 조각가),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공예원, 학예사,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사진·만화	전	○	만화가, 애니메이터, 사진가(사진작가),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사, 학예사
	영상·예술	전	○	만화가, 애니메이터, 사진가(사진작가),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사, 학예사, 연출자(감독 및 연출자),

문화재보존원(전통건축원)			
뷰티아트	전	○	이용사 및 미용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애완동물사육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무용	전	×	무용가, 전통예능인
체육	전	○	운동경기 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경호원, 전통예능인
미술	전	×	미술가(화가 및 조각가), 만화가, 애니메이터, 시각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패션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공예원, 학예사
연극·영화	전	×	연기자(모델포함), 연예인매니저
음악	전	○	음악가(지휘, 작곡 및 연주자),대중가수, 악기수리원 및 조율원

<부록 8> 「미래의 직업세계(2005): 학과편」 수록 팁 자료

팁 1. 대학과 학과 선택을 위한 전략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과와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후회없는 선택, 알고하는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각종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
- 알아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법이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격·훈련·직업정보와 관련 법규를 알아본다.
- 리포터가 되자.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만나 그 직업세계를 알아본다.
-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는 현재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본다.
-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때는 항상 20~30년 후를 내다보는 자세를 갖는다.



- 성적에만 맞춰 선택한 학과는 후회할 가능성이 짙다. 합격보다는 장래 자신의 진로에 맞춰 학과를 찾는다.
- 학과 이름만 보고 가는 것은 금물이다. 요즘 학과의 지명도나 인기를 벗어나 자신이 졸업할 시기까지 장래를 보고 학과를 찾는다.
- 학과목적,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교수진, 시설, 선배의 취업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다.

- 더 생생한 정보는 현재 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들로부터 학과 생활에 대한 체험담을 직접 듣는 것이다.
-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 선생님, 상담선생님,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 4년제 대학, 수도권 대학이 전부는 아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짧다. 정작 대학을 졸업한 후 진로를 생각하고 진학할 대학을 선정한다.
 - 큰 대학, 일류대학에 연연하지 말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곳,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곳이다.
- 대학 바로 알기. 전국의 국립, 공립, 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본다.
 - 지피지기 백전백승. 각 대학의 입시전형요강을 꼼꼼히 분석해 보자.
 - 해당 대학의 위치, 시설, 전통, 사회적 인식, 장학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면 대학생살이 보다 즐거울 수 있다.

출처 :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

팁2. 커리어넷에서 대학정보 찾기

커리어넷에서 대학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 학교기본사항, 설립목적, 연혁, 장학제도, 기숙사, 설치학과, 입시정보를 볼 수 있다.

○ 학교정보

정보검색

학교

지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가에 대해서 총 86건을 찾았습니다.

번호	학교/지역	학교명	조회수
1	[4년제 경상북도]	가야대학교	
2	[2·3년제 인천광역시]	가천길대학	
3	[4년제 인천광역시]	가천의과대학	
4	[4년제 경기도]	가톨릭대학교	
5	[2·3년제 경상북도]	가톨릭상지대학	
6	[4년제 서울특별시]	감리교신학대학교	
7	[4년제 경기도]	강남대학교	
8	[4년제 강원도]	강릉대학교	
9	[2·3년제 강원도]	강릉영동대학	
10	[2·3년제 강원도]	강원관광대학	

[1][2][3][4][5][6][7][8][9]

팁 3. 커리어넷에서 학과정보 찾기

커리어넷의 학과정보에서 관심갖고 있는 학과를 찾아보자.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장래진로, 적성 및 능력, 취업률, 설치학교(지역, 학교명), 전문가(교수)의 학과소개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보검색

구분 대학교 학교 4년제 대학 유사학과

총 489건을 찾았습니다.

번호	학과명 (유사학과명)	사진/동영상	조회수
81	기업경영 및 벤처비즈니스과 (국제어문, 경영학부(벤처경영학과), 기업경영학과, 벤처경영학과, 벤처비즈니스전공, 비즈니스경영학부, 인터넷비즈니스전공)		1134
82	기업법학과		897
83	기초과학과 (과학실험요원양성과, 기초과학부, 물질과학학과군)		626
84	나노공학 (IT전자공학부(나노전자전공), 과학기술학부(나노신소재전공), 광산업학부(나노가공학), 나노신소재공학부(나노공학전공), 나노신소재학과, 신소재공학부(나노, 메카트로닉재료전공))		646
85	낙농학과 (낙농과학과, 낙농학전공, 동물생명자원·낙농과학과(낙농학전공), 동물자원학부(낙농자원과학전공))		746
86	내과 (의학부(내과))		358
87	내국세학과		464
88	냉동공조공학과		681
89	냉동공학과 (공조냉동/특수용접, 기계·냉동·자동차 공학부(냉동공학과))		585
90	네덜란드어학 (네덜란드어과)		477

[1][2][3][4][5][6][7][8][9][10] [다음 10 Page]

팁 4. 흥미를 몰라서 학과선택하기가 어려워요!

Question

저는 고3 학생인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끌리는 학과나 분야도 없고 특별히 잘하거나 못하는 과목도 없어서 앞으로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해야할 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 지 고민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학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누구나 진로를 생각할 때, 잘하거나 좋아하는게 없는 경우만큼 곤혹스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진로란 앞으로의 인생 계획과 관계된 것인데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느 곳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지 정말이지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1. 하찮게 여기지 말자!

흥미분야가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잘하는게 없다는 경우에도 실제로 흥미분야나 잘하는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지 직업이나 미래와 연관 시키기에는 너무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주 특별하게 잘하거나 아주 높은 흥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나 흥미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기를 만들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만큼 답답한 일도 없겠죠. 학과나 진로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과나 직업에 대해서는 알게 되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친한 친구나 선배 또는 친척들이 갖고 있는 취미에 대해 관심이 더욱 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그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겠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학과와 직업을 알기 위해 책, 신문기사, TV, 선배, 친구, 가족, 인터넷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해보고 '재밌겠다', '잘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좀 더 탐색해 봐야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3. 능력과 흥미는 변할 수 있는 것!

능력이나 흥미는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개발되거나 변할 수도 있고, 직업이나 학과선택은 자신의 흥미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나 앞으로의 직업전망, 각 과목별 성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흥미분야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조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자신을 관찰하고 탐색하고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날이 있을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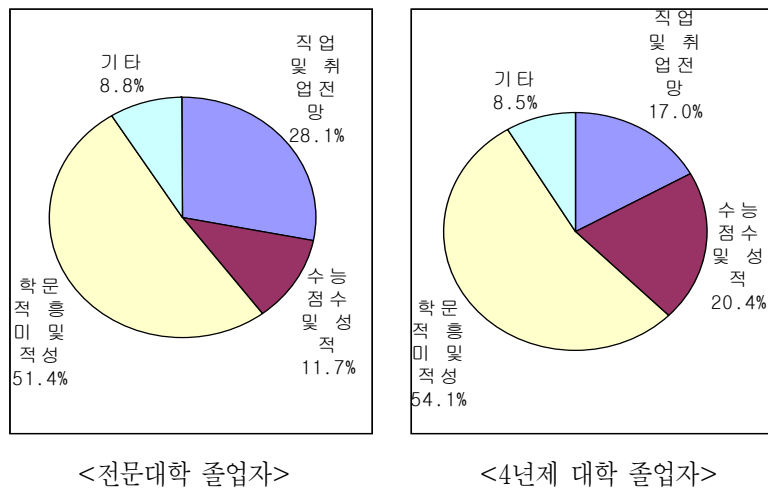
지금은 조금 혼란스럽지만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잘 탐색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 학과선택도 잘 할 수 있을거예요. 힘내세요.

팁 5. 대학 재학, 졸업 선배들은 어떤 기준으로 학과를 선택했을까?

학과를 선택할 때,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중인 선배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입학시 학과를 선택한 기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을 졸업자들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생 모두 학문적 흥미 및 적성을 주된 선택의 기준으로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와 대학교 졸업자들은 51.4%, 5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의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직업 및 취업전망이 28.1%인 반면, 대학교 졸업자는 20.4%가 수능점수 및 성적으로 학과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의 입학시 학과선택 기준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둘째,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선배들은 ‘흥미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라는 항목에 약 60.5% 가량이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였다는 경우가 51.7%,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50.4%, ‘원하는 직업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가 47.0%로 높았다. 그리고 ‘성적에 맞추어’, ‘취업하기 쉬워서’, ‘교사나 부모의 권유’로 선택한 경우는 각각 40.6%, 34.1%, 2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선배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57.4%로 가장 높았고, ‘흥미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55.3%, ‘원하는 직업을 고려하여’가 54.2%로 각각 높았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유 21.9%, 성적에 맞추어서는 25.6%로 다른 이유들에 비해 낮았다.

대학 재학 선배들의 학과선택 기준

(단위: %)

항목	전문대학 재학 선배			4년제 대학 재학 선배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원하는 직업을 고려하여	47.0	31.8	21.1	54.2	28.5	17.3
성적에 맞추다 보니	40.5	28.4	31.1	25.6	29.0	45.4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34.1	35.7	30.2	44.0	35.5	20.4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51.6	33.8	14.6	57.4	31.9	10.7
흥미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60.4	26.0	13.6	55.3	29.8	14.9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4	31.3	18.3	42.6	35.3	22.1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권유	25.5	26.2	48.3	21.8	21.6	56.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이렇게 대학졸업자들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자들은 성적 및 부모님, 학교 선생님의 권유와 같은 외적 기준보다는 자기자신의 학문적 흥미,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학업에 대한 재미와 같은 내적 기준을 고려하여 입학시에 학과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팁 6. 대학생활은 진로개발의 시간!!

대학에 입학하고서부터 졸업 후 진로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혼자서는 시작하려면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대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 학과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자!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 학과동문초청 취업간담회, OB모임, 학과내 소그룹 동아리, 지도교수 면담, 전공 관련기관 견학을 실시한다. 이들 행사에 대한 정보는 학과사무실이나 학과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학과에서는 졸업선배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 재직하고 있는 선배들 명단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희망직종 재직 선배들은 네트워킹, 구체적인 취업 준비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대학내 동아리 중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들이 있다. 외국어 학습 관련 동아리도 이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 동아리에서는 외부 경진대회 참가, 취업 및 창업 관련 행사 참가, 창업연구조사, 사업아이템개발, 시제품제작 및 전시회 출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켜 즐뵤더러 다양한 전공 배경의 동료,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풍부한 정보의 교류, 폭넓은 시야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취업정보센터(경력개발센터)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문의하자!

대학내 취업지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취업정보망을 통해 채용정보, 사이버강의, 교수 및 동문 칼럼, 취업관련 자료 및 사이버강의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취업정보, 기업 인사담당자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특강, 캠퍼스 리크루팅, 취업상담,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한다. 취업정보센터는 취업준비를 위해 직접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아 보자!

대학내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학업적, 진로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상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상담을 전공한 전문가에 의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교과목은 매학기마다 수강하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진로 및 취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다양한 명칭과 형태, 실무자 위주의 강사들,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진행된다.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저학년에서부터 졸업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취업을 준비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커리어비전 (<http://vision.careernet.re.kr>)

팁 7. 좀 더 멀리, 그리고 깊게 자신의 인생전반을 생각하자!

우리 나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입시”이다. 이러다보니 수능시험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주요 이슈가 된지 매우 오래된 실정이다. 특히, 수능시험 점수발표 시기에 즈음해서 대학과 전공의 선택, 그리고 재수라는 갈림길에서 모두가 전전긍긍하지만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된 진로결정 지표는 바로 “수능점수”와 “대학의 사회인지도”이다. 암암리에 이러한 지표는 가장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오차가 적어 신뢰롭다는 사회적 통념마저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지켜본 필자는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지표가 가져다준 개인의 진로개발 오류를 수없이 목격하였다. 짧지 않은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전공과의 불일치를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대학생활의 불성실과 불만족, 그리고 졸업 후 직업선택에 대한 혼돈으로, 결국 취업이란 인생과제에서 비자발적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성, 그리고 이로 인한 고학력실직의 사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인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라는 개인적 책임도 있지만, 우리 나라교육체제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준비와 대학입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과 관련한 철학부재의 교육과 사회책임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을 탓하기 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성장과 발전의 기본 철학이다. 변화가 늦고 어려운 사회의 통념을 탓하고 싸우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디에 기초하여 내릴 것인가? 에 대한 청소년의 심각한 고민과 자기성찰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꼼꼼히 탐색해야 한다. 주관적 자기이해도 필요하지만, 심리검사도구를 통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그려보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해 본다. 각종 직업정보 사이트를 방문하여 향후 자신이 가질 직업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수집한다. 직업에서 하는 일, 요구하는 능력, 그리고 근무환경 및 보수 등과 같은 세부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대학 전공결정에 활용한다.

-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기탐색과 각종 진로정보를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과 관련성 높은 대학전공을 결정한다. 또한, 향후 4년간의 대학생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졸업 후 삶에 대한 준비를 계획한다.

인생은 매우 길다. 물론 대학입학이 인생의 마지막도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좀 더 길게, 그리고 깊게 자신의 인생 전반을 생각하며 進路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후회없이 만족스런 자기 인생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저자 : 이지연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록 9> 석·박사 취득자 조사 설문협조 대학 및 담당자 명단

No.	성명	소속대학
1	권중일	청주대학교
2	김경옥	한양대학교
3	김용선	중앙대학교
4	김인환	경북대학교
5	박철수	한남대학교
6	성두석	부산대학교
7	송병화	연세대학교
8	안성식	고려대학교
9	유정근	영남대학교
10	윤소영	전남대학교
11	이경주	호남대학교
12	이재수	울산대학교
13	임승년	서울대학교
14	정민규	충남대학교
15	정연종	강원대학교
16	정혜련	숙명여자대학교
17	정혜선	동아대학교
18	최기천	인하대학교
19	한석정	성균관대학교
20	홍승렬	이화여자대학교

※ 성명 : 가나다순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2002).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2, 2003).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 김여수·유초하강연회(2002). 「인문학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제언」.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 외(2001). 「학과(전공) 분석 및 학과(전공)분류 체계 연구」
- 김현철 외(2001). 중·장기 교육시장 전망연구 : 「2002~2011 전문대·대학 졸업생 규모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형만 외(2001). 「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실태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형만 외(2002). 「전문대·대학 졸업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형만 외(2003). 「미래의 직업세계(2003):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사업03-5-1.
- 노경희(2002). 「한국에서의 인문학적 사유와 인적자원개발의 연계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 대교협 인터넷사이트
- 민철구·이춘근(2000).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덕규강연회·김지순(2002). 「국내외 인문학 지원 체계 비교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개발원
- 심경호·진미석·최정환·정공식·김영진(2002). 「대학의 강사(시간강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임언 외(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3에 대한 의견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춘익(2001). 인문학 연구 지원 및 학문 후속세대 지원 개선 방안(인문학진흥 심포지움).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주경철(2001). 인문학 연구소 및 연구원 제도의 개선 방안(인문학진흥 심포지움).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 중앙고용정보원 학과정보.
- 진미석·윤형한(2002).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3). 「미래의 직업세계(2003): 대학재학생의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윤형한(2003). 「고급전문인력 활용대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진미석·한상근(2002).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외(2000). 「학문분야별 고급인적자원 수급전망」. 교육인적자원부.
- 진미석 외(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3 -총괄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학과편
-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국외박사학위취득자 통계.
- 한상근 외(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OECD(2003). Education at a Glance.
- Golde, Chris M. & Dore, Timothy M.(2000). At Cross Purposes: What the experiences of today's doctoral students reveal about doctoral education.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1995). Reshaping the Graduate Education of Scientists and Engineers.
-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00). Survey of Doctor Recipients.NSF.

■ 저자 약력

- | | |
|---------------------------|---------------------------|
| ·진미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최동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 ·이영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윤형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 ·한상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 ·정윤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정향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2004년 미래의 직업세계 : 총괄보고서

·발행연월일	2004년 12월 일 인쇄 2004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김 장 호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인쇄처	정문출판 (02)2269-9301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등록번호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비 >